

Gardenin

JUNE 2014 Monthly

월간 가든인 6월호

Outdoor Garden

우리꽃정원, 그 길에서 힐링을 만나다
일본의 벽면녹화 탐방

도시농업의 발견

Vegetable Garden
다육아~ 넌 어떤 식물이니?

Indoor Garden

실내정원의 기본기술 II
용기정원 - 제1회 경진대회

Garden Information

맛있는 정원_플랜테이션



BIG EVENT!!

테르메넨 할안권,
인터넷 서점 이벤트 / 26종 꽃씨온한세트 2봉 증정

알싸한 사랑만큼 아름다운
알리움속 (Genus Allium)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이색정원
채소정원 (Vegetable Garden)



아름다운 꽃잎과 다양한 품종을 자랑하는
원추리 (Hemerocallis)



10,000원



ARI 가든
(Alpine Rock Island)

암석정원의 완성(完成)

한국정원의 절제미/품격의 정원/관리가 편리한 4계절 특성

전문
시공



벽화수주식회사
031)726-0610 www.벽화수.com

Cover Story



호국영령의 꽃 양귀비

곱디고운 잎으로 초여름 길 열어주니 그 마음 가없으리.
바람에 나부끼며 먼지가신 안쓰런 영혼 잘 보내려는 손짓이네.
우람한 신록에 마음 전하려는 듯 남겨진 정 달래려 함이네.
아아~~부디 다 잊고 행복한 기억 가져가시길.

세월호 참사에서 소중한 가족을 잃은 희생자 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님에게도 머리 숙여 애도와 경의를 표합니다.

월간 가든인 임직원 일동 드림

Gardenin





Contents

OUTDOOR GARDEN

- 3 COVER STORY
- 6 발행인의 글 꽃밭에서
- 7 정원치유 프로그램 우리꽃정원, 그 길에서 힐링을 만나다
- 10 박공영과 함께하는 식물 속 숨쳐보기 정원, 속 보이네
- 14 정원 탐방
자연속, 숲의 향연-유니스정원
- 18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온달과 평강이 사는 온평원의 들
- 22 키친가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채소정원
- 26 퀘럼 오하나의 베란다 정원관리
6월, 병충해 방제와 가지치기를 해주자
- 30 도시농업 연재 아이템
옥상정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원모델
- 34 유평섭 교수의 가든이야기
일본의 벽면녹화 탐방
- 38 용기정원 제1회 용기정원 경진대회
- 40 양귀비 하늘거리는 꽃잎이 매혹적인 양귀비

INDOOR GARDEN

- 42 류제의 정원 여름철 구근관리
- 44 재활용 가드닝 폐 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
- 46 내 손으로 만드는 실내정원 실내정원의 기본기술II
- 50 식충식물 파리지옥
- 52 다육의 멘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육식물
- 56 우리꽃 소개 원추리



URBAN FARMING & EDUCATION

- 58 슈퍼푸드 토마토
- 60 텃밭박사님과 함께 하는 텃밭농사 상추
- 64 차병원 수목진단센터장의 으뜸교육 먹음직스러운 떡병
- 66 국립종자원의 찾아가는 종자교실 아이들이 만든 작은 정원
- 69 안완식박사의 먹거리파일 녹두

GARDEN DESIGN & STORY

- 72 내 손으로 주택정원 디자인하기
정원 디자인 준비 작업하기
- 78 비즈니와 조경 렉스필드CC
- 82 서수현 가든디자이너의 정원을 즐기는 방법
정원은 거실의 연장선에 있다
- 84 호국의 꽃 양귀비
- 87 정원 디자인 정원사 친구들
- 90 손관화 교수의 정원구성
정원 초화류의 질감에 따른 시각적 효과
- 92 이명호의 야생화 꽃마리

GARDEN INFORMATION

- 94 맛있는 정원 플랜테이션
- 96 수생식물 우리집에 맞는 수생식물은?
- 100 수목시대
안정적인 접목묘를 생산하려면?
- 102 몸이 건강해지는 푸성귀 식탁
- 104 Q&A
- 107 가든인이 추천하는 Book & Flowerpot
- 108 가든인 뉴스





꽃밭에서

—내 너를 위해 기도하느니—

시인 김영채

봄날이 짙어가는 꽃밭에서
한박 웃음짓던 네 모습 그리며
아지랑이속 아물대는
꽃웃음 네 얼굴이 눈앞에 어리는데
살날 가는 바람에
그 꽃잎 하나 떨어져 눕는 자리
나의 피어린 눈물이 지는구나

살바람에 꽃잎 지듯
피어나는 나의 꽃봉오리는
물깊은 천길 바다
어둠감긴 침묵의 암흑 속
얼음보다 차가운 바닥에서
너의 원망어렸을 모습을 내 가슴에 담기엔
심장의 피조차 얼어붙어
이 가슴은 병화가 된다.

운명이란 그런 것일까 —
기쁨의 손 흔들며 떠나던 네 모습이
영영 보이지 않는 통만으로 남은 줄이야
그것이 너와의 피눈물로 이어진 운명일 줄이야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는 더할 것도
이제는 한낱 실오라기 기다림도
모두 너의 영혼을 위해 씻어야 할 것인가 보다.

이제 난 이렇게 너와 함께 마주하던
너와 함께 웃음짓던 마음의 꽃밭에서
실록 짙어가는 6월의 아름다운 네 영혼의 꽃밭에서
사랑의 영원한 꽃으로 승화한 너를 위해
너를 위해 기도하느니

잘가거라 내 사랑하는 꽃이여
잘있거라 내 소망의 꽃봉오리여
안식의 꿈에 들라 영원히 영원히—
아— 잊을 수 없는 내사랑
사랑하는 나의 꽃이여 영원하라

아름다운 너의 꽃망을 다시 피울 때까지
영원하라 영원하라.



자연스런 우리꽃정원-자연을 품다, 사람을 품다

우리꽃정원, 그 길에서 힐링을 만나다

우리꽃정원의 진미는 자연스러움이다. 자연을 품은 듯, 자연을 그대로 들여놓은 듯,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재를 살려 정원을 만들었다. 오솔길, 바위, 자갈, 연못, 폭포, 냇가, 야생화, 나무, 갈대(그라스류) 등, 익숙한 소재로 자연을 연출했다. 철따라 피는 야생화가 색을 만들어낸다면 계절마다 다르게 다가오는 초록은 설렘을 뛰어넘어 정화(淨化)다. 치유다. 큰 사건사고로 화사한 계절에 우울함을 느꼈다. 깊은 슬픔에 빠진 긴 시간에서 이전 일상으로 복귀해야 한다.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마음 다스리기에 식물을 만나보자. 가꾸고 만지고 느끼고 보고 들어보자. 그 끝에 치유가 있다.



길따라 걷다보면 힐링이...

신록이 꽃보다 아름다운 6월이다. 이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전에 우리네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유해보자. 큰 사건 사고로 우울한 4월과 5월을 보냈다. 가장 아름답게 피어 올랐던 자연의 경이로움에 신경쓰지 못했다. 슬퍼하고 안타까워 내내 먹먹한 가슴 풀어내리기도 바빴다.

이런 맘을 정원 속에서 달래보자. 정원이 가장 아름다운 6월에 그 어울림에 몸을 맡겨보자. 정원 속에서 마음을 추슬러보자. 길따라 걸어가면서 식물에게 잔잔하게 맘을 걸어보자. 예쁘다. 어디서 왔니, 어쩔 이리 곱니~~하면서 말문을 열어보는 것이다. 그러다 내 맘에 들어오는 꽃이, 나무가 있으면 가만히 앉아 서로 교감해보자. 마음을 나눴다. 정원은 밖에서 바라다보는 것보다 정원 안을 걸어가며 느끼는 효과가 최고라 여긴다.

꽃은 덤이요, 초록은 선물이라

길따라 걸으면 군데군데 피어있는 야생화는 바라보는 순간 감탄이 나온다. 화사한 색으로 피어올라오는 꽃은 한 송이를 만나나 무리를 만나나 맘속에 깊이 들어온다. 자세히 들여다보자. 꽃잎을 세어 봐도 좋고, 사진으로 담아도 좋다. 붉은색은 마음을 흔들고 흰색꽃은 차분하다. 큰 꽃송이는 감탄하고 작은 꽃송이는 어여쁘다. 특히 야생화는 익숙해서 좋다. 어디서 봤을 듯한 꽃이다. 어릴 적 교향에서 갖고 놀았던 꽃이기도 하고 들에서, 산에서 봤던 꽃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겹다. 아는 꽃이라서, 익숙한 꽃이라서 정겨운 것이다.

초록과 어울려 그 화사함을 더 끌어올리는 영특함도 있다. 가만히 있으면 점잖아서 좋고 바람에 나부끼면 그 흔들림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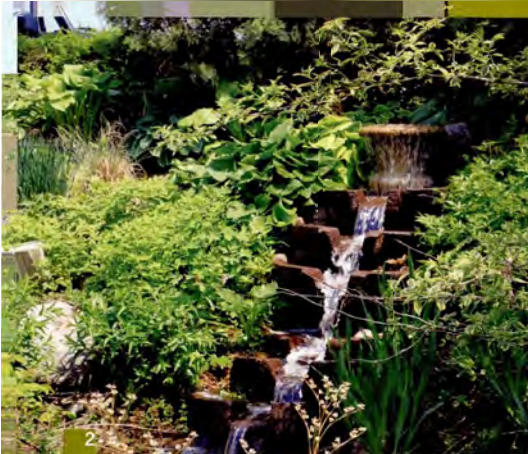
초록이 짙어간다. 시선 머무는 곳은 다 초록이다. 정원의 초록은 더 예쁘다.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조팝나무의 우거짐이 풍성하고, 관목의 초록은 힘차다. 옥잠은 탐스럽고, 휴게라(붉은 바위취)는 고급스럽다. 붓꽃(아이리스)는 아련하고, 새담의 초록은 잔잔하고 바위솔의 초록은 다양하다. 꽃이 안 부러운 초록이다.

자연을 닮은 우리꽃정원

부담스러움은 다가가기가 쉽지 않다. 당연 치유도 멀다. 우리꽃정원은 자연스럽다. 원래 그랬던 것처럼 자연을 품었다. 정원의 구성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있다. 길을 들여놓으니 정원도 살아났다. 멀리서 바라만 보는 정원이 아닌 내가 직접 걸어 들어가서 살피고 힘을 얻을 수 있다. 정원이 나를 품는 것이다.

길은 길을 만들고, 또 다른 길로 이어진다

곡선의 길은 멋스럽다. 초록매트를 깔아 편안하다. 길은 길을 만들고, 또 다른 길로 이어진다. 그리 넓지 않아도 구



1. 우리꽃정원이 오솔길이 있어 좋다.
2. 우리꽃정원의 폭포
3. 생명력이 힘차다
4. 작은 꽃송이가 예쁜 톱풀
5. 붉은임동자꽃
6. 출출 흐르는 작은 시냇가
7. 가까이 보면 더 예쁜 야생화
8. 우거진 길
9. 생명력이 힘차다

부러진 길은 정원 구석구석으로 연결되어 초대한다. 식물을 세세히 살펴기도 좋다. 맘과 몸을 내려놓기도 좋다. 식물이 내뿜는 이로운 물질은 맘껏 들이마시고, 내 상처받은 맘은 다 내려놓자. 깊은 호흡으로 정원의 이로운 힘을 이기자. 디딤돌을 건너 다른 길을 만나면 호기심이 생긴다. 식물들 배려한 디딤돌이다.

우거진 나무에서 삶의 열정을 만나

식물은 바쁘다. 철따라 해야 할 일이 점점산중인가 보다. 바쁘게 씨를 틔우고 꽃을 피우고 수정을 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숙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겨부가 없다. 투정 없이 살아있음에 감사하듯 최선을 다한다. 비오면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뜨거운 태양에도 오롯이 자신을 드러낸다. 하루가 다르게 풍성해지는 나무를 보면 상처받고 찢긴 맘이, 나약해지는 맘에 힘이 붙지 않을까?

여름이 제격, 연못과 폭포

물이 여름을 만나면 시원하고, 상쾌하다. 떨어지는 폭포에 시선이 머물고, 연못엔 정이 옮겨간다. 곳곳에서 만나는 물을 위한 자리는 우리꽃정원만의 장점이지 않을까? 정원이 연못과 실개천과 폭포를 만나니 힘이 느껴진다. 식물의 품이 넓어진다.

야생화는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소

소박하면서도 품격있게 피어있는 야생화는 찾아오는 이의 마음을 늘 위로한다. 계절마다 다른 꽃으로 피어 정원의 활력소역할을 한다. 붉은색의 노루오줌은 무리지어 탐스럽게 피고, 초롱꽃은 수줍은 듯 고개숙인 모습이 우아하다. 회개 또는 붉게 피는 가우라는 수줍은 듯 복스럽게, 화려하게 핀 원추리는 힘이 있다. 패랭이는 예쁘고, 상록 잔디패랭이는 화사하다.

돌 틈에서, 쪼개진 계단틈새에서도 생명은 자란다

적박한 조건, 틈새에서도 생명은 피어난다. 틈이 벌어진 계단에서 자라고 있는 양지꽃은 신기하다. 줄기를 뿔어나가는 기운이 실로 대단해 보인다. 바위틈에서 자라 더 멋진 바위솔과 새담 또한 위대해 보인다. 화려하게 큰송이로 피어나는 꽃이 무색하게 틈새에서도 자라는 종류는 더 위대하고 대단하다.

야생화는 매력 있다. 작게 또는 크게, 익숙한 듯 무리지어 피는 모습이 정겹다. 야생화의 분야도 넓어지고 있다. 길가, 관공서, 가정, 학교, 골프장, 식물원 등 사랑받는 장소도 늘어간다. 꽃에 정성을 들이면 마음의 짐도 사라진다. 정원에 야생화를 들여놓자. 생명력도 우수하고 퍼짐성도 좋다. 우리꽃에서 개발한 야생화는 세계 여러 곳에 수출하고 있다. 우리뿐만이 아닌 세계사람도 좋아하는 꽃인 것이다. **G**

박공영과 함께 하는 식물 속 흠쳐보기

정원, '속' 보이네~~



긴 꽃대 위에 둥근 형태로 꽃을 피우는 파, 양파, 부추, 산마늘 등은 지금 이맘때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다. 둥글게 피는 게 매력인 알리움 속 중 알리움 기간티움은 크기가 단연 압권이다. 암석과의 어울림을 자랑하는 똑새풀 속, 화단의 앞쪽이나 돌틈 사이에 자라면 근사한 알리움 속, 잡초인줄 알았는데 정열을 간직했

다는 알리움 속이 6월에 속을 들여다보는 식물군이다. 우리씨드그룹 박공영 회장과 함께 하는,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식물 속 흠쳐보기'로 식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자. 글·사진 |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회장

알싸한 사랑만큼 아름다운 알리움 속 (Genus Allium)

알리움은 우리 주변에 흔하디 흔한 식물이다. 파, 양파, 부추, 산마늘 등이 이에 속한다. 봄, 여름, 가을에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구근과 지하경 다년생식물로 이루어진 매우 큰 속식물로 세계에 700여 종이 있다. 주로 아시아 북반구의 건조하고 산이 많은 지역에서 왔다. 대부분의 종은 하나의 줄기에 무수히 많은 종자 덩어리를 이용 점차적으로 하나의 집단을 형성한다.

어떤 종들은 결실이 잘 안되지만 무수히 많은 구근덩어리를 만들어 점차 집단을 형성하는 종들도 있다. 또, 많은 경우 다육성의 지하경을 지니고 있는데 몇몇은 꽃에 주아를 형성한다. 기저부나 줄기를 감아드는 잎과 뿌리는 문졌을 때 톡 쏘는 듯한 냄새가 난다.

정원에서의 알리움은 역시 아름다운 꽃을 갖는 구근식물이다. 이른 봄 꽃을 피워내는 알리움 코로나리아, 6월에 어련이 머리카기만한 크기를 자랑하며 피어나는 알리움 기간티움, 이들은 개화시기에 있어 시들곤 한다.

일반적으로 둥근 형의 구형으로 피거나 때론 반구형 혹은 난형이나 간혹 팬던트형 산형화로 대부분 1~10cm 지름이고 때로는 30cm까지도 있다. 키가 큰 종들은 화단의 가장자리에서 집단으로 기르고



키가 작은 종은 화단의 앞쪽에서 기르거나 암석정원에서 기른다. 사실 우리나라는 두메부추와 산부추, 한라부추 등이 원예관상적 가치가 매우 크다. 이들은 꽃피는 시기가 다르고 대부분 구근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들로 정원을 만들어도 좋을 것이다.

대체로 내한성이 매우 강하여 겨울에 상록을 유지하는 것도 있으며 냉해에도 견딜 수 있다. 재배는 대부분의 종류는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며 햇빛이 충분한 토양을 선호하므로 양지 정원에 알맞다. 다만 이른봄 피어나는 종류는 월엽수 아래 양지에 심어도 좋다. 추식구근으로 재배하는 알리움 기간티움, 마늘, 양파 등의 구근은 가을에 5~10cm 깊이로 심고, 지하경과 함께 덩어리를 형성하는 종은 봄에 토양의 표면이나 바로 밑에 심는다

여름에 휴면 상태에 드는 종류들은 건조함을 유지해야 한다. 증식은 성숙된 종자를 이른 봄에 모판에 파종을 하고 가을에는 구근을 나누어 지하경이 있는 종은 봄에 분주를 한다.

질병 및 병충해는 흰가루 병이나 노균병과 묘 잠복병이 생길 수 있고 굴파리는 물론 파밤나방 등도 자주 발생하므로 병충해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원고를 쓰는 요즘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이라도 하라는 듯 알리움의 꽃말이 더 슬프게 다가온다. 알리움의 꽃말은 '무안한 슬픔'이란. 고인들의 명복과 보낸 이들의 빠른 안정을 빌어본다.

뽕꾸기가 올때면 피어나는 봄 이삭 식물 뚝새풀 속 (Genus Alopecurus)

일년생 혹은 다년생 그라스 식물로 25~40종의 속으로 북쪽 온대지역의 목초지와 방목장, 간혹 산비탈의 돌더미와 암석지대가 원산지고, 특히 우리나라는 보리와 같이 자라는 봄의 대표적인 논잡초이다. 이 종류 몇 종은 주요 사료작물로 몇 개는 장식용 잎을 지니고 있고 혼합화단이나 암석화단에 적합하다.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현재 심겨지고 있는 것은 우리꽃에서 증식 판매하는 무늬어우꼬리그라스가 대표적이다. 잎에 노랑의 무늬를 가지고 매트를 형성하는 식물로 꾸준한 주문을 받는 식물이다. 내한성은 뛰어나고 재배환경은 물빠짐이 좋은 토양의 양지바른 곳이 적지이다. 특별한 병해충은 없고 봄이나 초 여름에 분주를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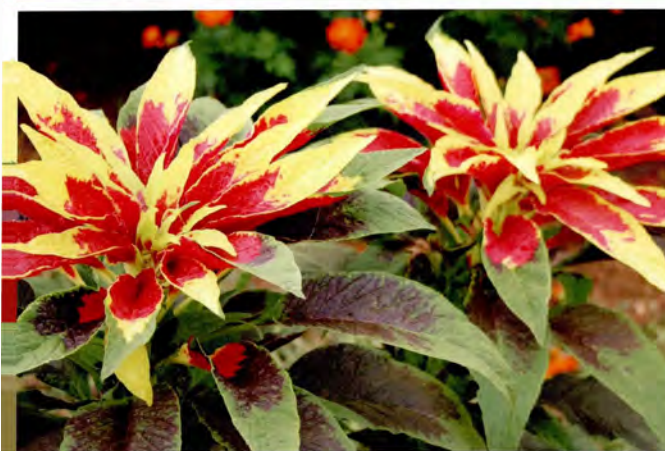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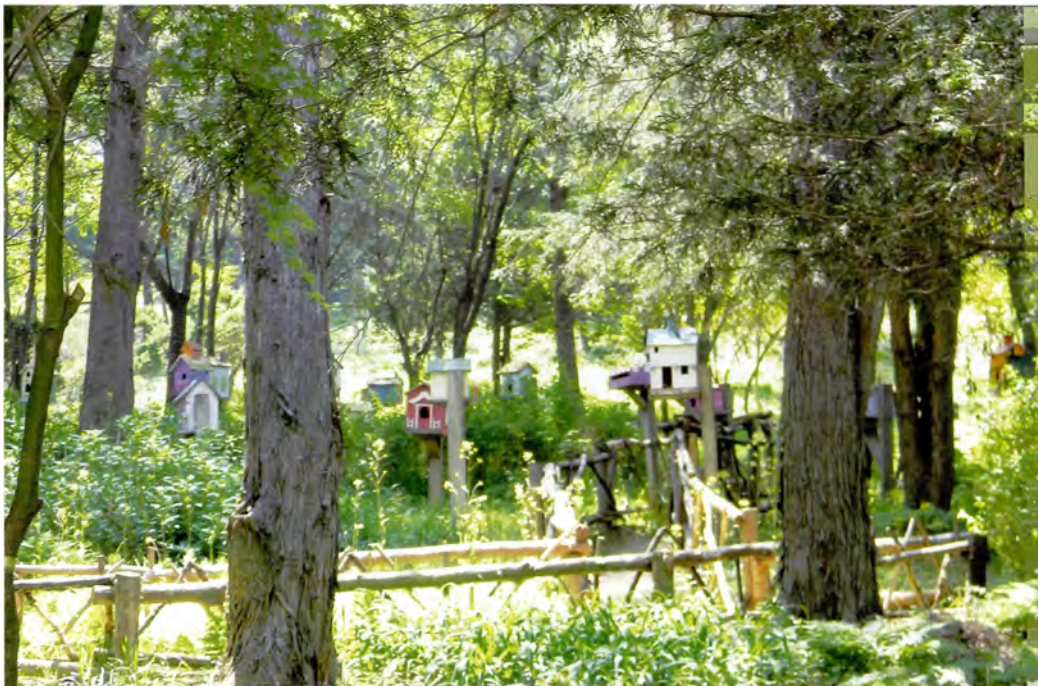
아름다운 봄의 전령, 알리섬 속 (Genus Alyssum)

알리섬은 십자화과 식물의 일종으로 근생하거나 매트 혹은 곧게 자라는 일년생, 상록성의 다년생식물과 이관목이 있는 150이상의 속으로 대부분 지중해 연안과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의 넓고 암석이 있는 지대에서 발견된다. 이들은 0.4~2.5cm 길이의 단순하고 호생하는 잎을 가지고 있고, 주로 이른 봄과 초여름에 피는 4개의 잎을 지닌 십자형 모양의 흰색이나 노란색 꽃을 보기 위해 재배된다. 암석원 등과 같은 정원에 적합하며, 여러 종류의 식물이 있는 화단의 앞쪽이나 돌틈 사이에 적합하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고 배수가 잘되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하며 햇빛이 잘 드는 양토에서 기른다. 꽃이 핀 다음 치밀함을 유지하기 위해 가볍게 다듬어 준다. 증식은 봄이나 가을에 파종을 한다. 다년생의 경우 초여름에 뿌리심이나 꺾꽂이를 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진딧물, 벼룩, 딱정벌레, 흰가루병, 노균병 등의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정열을 간직한 꽃 비름 속 (Genus Amaranthus)

비름 속 식물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큰 잡초로 인식된다. 주로 식용을 한다. 전세계의 온대와 열대 지역에 곧게 자라거나 포복성 혹은 생존기간이 짧은 일년생과 다년생식물로 약 60여 종의 속을 가지고 있다. 여름이나 초가을에 수직 혹은 길게 늘어 떨어지는 빨간색 혹은 녹색의 작은 꽃들이 모여 큰 꽃을 이룬다. 꽃들은 다양한 색의 종자에 의해 형성된다. 잎에 다양한 무늬를 가지는 색비름은 재배가 쉽고 잎이 아름다워 관상용으로 많이 재배한다. 줄맨드라미(A. caudatus) 등의 재배종은 꼬투리째 따서 말려 장식용으로 이용한다. 내한성은 약하고 양지에 식재하며 이른 봄 육묘하여 심는다. 여름에는 물을 많이 주고, 습도를 높게 해야 한다. 발아적기는 20°C 이상 오를 때 파종을 한다. 줄맨드라미는 5월 중순쯤 이식을 심어 하므로 직파를 하는 것이 좋다. 그레아 쓰러지지 않는다. 60cm 정도로 성글게 파종을 한다. 병해충으로는 진딧물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G**





유니스정원 안의 open 준비 중인

이풀실내정원과 가든센터 탐방

자연속,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숲의 향연

더불어 건거나 홀로 걸어도 행복한,
정원 숲과 이야기 나누며, 새들의 연주회가 열리는 숲

글 · 사진 | 이명

자연의 공간은 모두가 소유할 수 있는 소재가 참 많다. 숲 속의 새, 곤충들이 그 중 하나다. 숲을 건강히 만들어주고 생태계의 보존역할도 활발히 해준다. 정원 속 친구들의 생태과정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소재다. 마음과 환경을 풍요롭게 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다시 방문하는 호기심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새들의 노랫소리는 정원의 숲에서만 느끼는 고유공간이고 숲 정원의 특권이다. 정원 속 새들의 음악회는 일정한 시간(오전, 오후)에 즐길 수 있다. 정원주인이 준비한 소박하지만, 다른 수목원이나 식물원에서는 군침을 이룬 새싹터를 찾기 어렵다. 유니스정원은 각기 다른 새 가족들의 습터를 정원공간에 연출했다.

유니스의 자연정원만이 전하는 독특함이 묻어나는 소박한 숲 정원. 소리 없이 정원의 식물을 돌보고 숲을 가꾸어 나가며,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동물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숲 정원 주인의 배려가 곳곳에 자연스럽게 연출됐다. 숲 정원의 공간을 걸으며 새들의 대화에 휘파람으로 답변하니, 더 많은 속삭임으로 화답하듯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었다.

보고, 즐기고, 느끼며, 나누는 정원의 독창적인 공간 연출은 많은 이들에게 사진 등으로 공유하도록 한 공간인 숲 정원을 거닐다 보면 부유한 마음을 얻고 돌아올 수 있다. 다시 오픈 공간이다.



정원에는 식물의 다양한 식재도 필요하지만, 쉼의 공간도 중요한 요소다. 정원의 디자인 연출 역시 정원을 방문하는 사람에게 많은 공간을 전달하며, 정원을 돌보는 정원사의 손길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명소로도 남을 수 있다.

정원을 만드는 것은 식재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각각의 토양에 맞는, 각 공간에 맞는 음지 · 양지 식재선정, 색상의 선택, 계절별 개화의 선정은 전문 정원사의 몫이지만, 정원을 가꾸는 모두가 배우고 자료를 정리해 나간다면 즐겁게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다.

많은 농업, 정원분야의 실습교육이 있지만 정원문화의 도입이 시작된 우리에게 관심분야로 나타나는 직업군도 유출이 된다.

유니스정원만이 연출하는 아름다운 공간. 수많은 사람의 시간들이 사진으로 연출된 습터이자 독창적인 자연 숲에서 얻은 재료를 이용하여 창의적인 디자인과 색채를 연출한 평온한 습터다. 이제는 방문객 모두의 포토 존이 되어버린 유니스정원의 벤치코너다. 바닥의 창의적 디딤돌 사진도 자세히 관찰하면, 정원사의 창의력과 디자인 연출에 얼마나 많은 손길과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유니스정원의 공간에 맞는 독창적 정원의 공간예술을 느끼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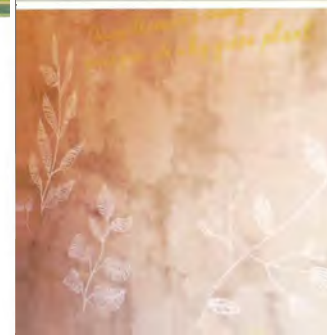


정원사는 잡초 하나도 신경 쓰며 조심히 뽑아낸다. 잡초가 많아지면 식물성장에 지해요인이 되며, 보고 느끼는 정원의 목적을 다하지 못한다. 한 종의 식물을 정원에 소개하기 위해 정원사는 여러 해 시간을 들여 식재를 추적하는 경우가 많다. 정원을 찾는 모두에게 기쁨을 주려는 배려이고, 함께 공유하는 기쁨이다. 또 다른 이유는 주변 식물이 행여 다칠까 염려가 커 짧은 시간 꽃을 보기 위해 1년이란 사계절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기 때문이다.

유니스정원에는 정원사의 보살핌으로 식물의 성장 과정을 지켜주려는 따스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팻말을 볼 수 있다. 정성으로 이룬 정원을 걸어보길 기대해 보며, 아기를 돌보듯 조심조심 식물이 밟히지 않도록 지켜주기 바란다.

안산시, 팔곡일동 일대 2만 7천여평의 유니스정원은 안산지역을 넘어 경기도 지역의 명소로 자리를 잡고 있는 숲 정원의 발전이다. 정원탐방에서 새로운 정보를 얻어 상금한 초여름을 맞아 유니스정원의 새 보금자리를 살짝 들여다보았다.

안산은 세월호의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하며, 2014년 봄, 오랜 기간 깊은 고통의 상처를 안은 모두에게 쉬어가는 정원과 같은 정원을 준비한 실내정원의 새 건물이 공급하다. 5월 말정 개관을 앞두고 우리에게 사진 찍는 것을 허락하신 지승현 사장님께 감사하며 정원 garden gallery의 공간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G**



온달과 평강이 사는 온평원의 뜰

최선미씨
정원



전경 : 잔디를 깎고 돌을 경계적으로 이용해 화단을 조성했다.

'정원으로 꿈꾸는 사람들' 6월호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산 자락에 위치한 최선미씨의 정원을 만나 보자. 마음 맞는 부부가 이뤄낸 정원은 곳곳에 정성이 들어가 있다. 전정과 후정이 초여름을 싱그러게 맞이하고 식물은 부부의 사랑을 받아 유난히 탐스럽다. 이야기가 있고, 자연이 그대로 들어온 온평원의 뜰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가든디자이너 우정아씨를 따라 그 이야기를 들어보자. 글·사진 | 우정아 가든코디네이터



경기도 안성시 서운산 자락에 위치한 최선미씨의 정원은 예스러운 황토 집을 사이에 두고 전정과 후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정은 잔디를 깔고 구역별로 스토리를 만들고, 돌을 경계적으로 이용해 화단을 조성했고, 후정은 돌을 계단식으로 쌓아 만든 벽천으로 계곡물을 끌어들여 산을 연계해서 자연 그대로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차경을 이용하여 조성되어 있다. 집을 중심으로 피라칸서스, 왕벚꽃, 자두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개나리, 목수국, 조팝류, 오엽송, 반송, 철자화 등의 어린 목본류와 작약, 튜립, 무스카리, 수선, 알리움, 칸파눌라, 치자 베로니카, 독일붓꽃, 로즈마리, 천리향, 동의나물, 매발톱, 후룩스, 돌

단풍, 애기아주까, 휴케라, 미비추, 은쭉, 용담, 할미꽃, 바위솔 등의 초본류가 160평(530m²)에 아기자기하게 식재 되어 있다. 2010년 터를 마련한 후 흙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조성한 정원은 이 부부에게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맺는 곳이다. 맛벌이를 하고 있는 주인장 부부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시작하는 제초 작업이 신선한 풀 향기로 하루를 열 수 있는 기쁨이고, 퇴근 해서 낮 동안 보지 못했던 꽃들에게 일일이 눈 도장을 찍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한다.

평강은 그리고, 온달은 만들고

정원 곳곳에 놓인 기와와 돌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주인공의 솜씨라고 했다. 설계를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소품의 제작 등 디자인 파트는 부인이 전담하고, 큰 나무의 식재나 시공을 하는 것은 남편의 몫이라 한다. 이런 역할의 나눔이 두 사람의 손으로 지금의 정원이 조성되기에 조금은 남들보다 용이했을 것이다. 유난히 손재주가 많은 이들 부부는 전문가도 힘든 벽천을 두 사람 힘만으로 만들 정도로 위력이 있다. 정원의 참경물 제작은 소소히 들어가는 정원 장비의 절감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또 참경물의 제작은 그들만의 기념일을 기억할 수 있는 소중한 추억으로도 자리잡고 있다고 한다.





사랑에 적응하는 식물

이 집 정원에는 유난히 월동이 안 되는 남부 수종이 눈에 많이 띄었다. 특히 울타리목으로 쓴 피라칸서스는 중부 지방에서는 동사하여 잘 쓰이지 않는 수종이지만, 주인장은 눈 쌓인 피라칸서스의 열매 사진을 보고 난 후, 한 눈에 반해 울타리목으로 선택했다고 한다. 피라칸서스를 이 곳의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첫 해에 잎으로 일일이 싸매고 덮어 주고, 겨울 내내 물 관리에 주의했더니, 이듬해부터는 별다른 보호막이 없어도 월동이 됐다고 한다. 또한 월동이 안 되는 초화류는 가을이면 화분에 옮겨 실내나 이동식 비닐하우스로 옮겨 관리하고, 봄에 다시 정원으로 옮겨 심어 꽃을 본다고 한다. “번거로운 일이지만 자연은 또 그만큼의 기쁨을 선물한다”는 주인장의 말에 진정한 식물 바라기의 모습이 보인다.

내사랑 제라늄

제라늄은 이 정원에서 유난히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전용 비닐하우스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라늄이 화려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제라늄은 주인장이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초심을 갖게 한 식물이라고 한다. 길에서 꽃이 예뻐 이름도 모른 채 구입해 기르면서, 제라늄에 대한 궁금증으로 하나 둘 식물을 공부하다 보니 모든 식물에 관심도 생기고, 지금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는 꿈을 가질 수 있게 해주었다고 한다.

제라늄은 유럽에서는 흔한 식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되는 식물로, 비를 맞으면 잎이 누렇게 변하고 제 때에 떨어지지 않으면, 녹아내려 고사한다고 한다.

햇빛을 좋아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실외에서는 통풍이 되는 전용 하우스가 필요하고, 겨울에는 실내 관리 시 환기를 자주 시켜 주어야 한다고 했다.

요즘은 제라늄을 삼목해서 화분을 만들어 주위에 선물하고, 씨를 받아 필요한 이에게 전해 주는 제라늄 전도사가 되었다고 한다.

마음이 머무르게 하는 정원

처음 이 곳에 자리를 잡고 정원을 조성할 때만 해도 동네 어르신들의 걱정거리였다고 한다. “어르신들은 꽃을 심고 가꾸는 우리 부부를 못마땅해 하셨어요. 땅에 벽거리를 심어야지 먹지 못하는 것을 왜 심냐고 호통을 치시곤 하셨죠. 하지만 그러시던 어르신들도 지금은 지나다니시면서 저희 집을 한 바퀴 돌고 가신답니다. 꽃 이름도 물어보시고, 좋은 구성하게 해 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우리 집 정원을 둘러 보며 잠깐이라도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시는 것에 전 만족합니다.”

더불어 살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어 손자, 손녀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온평원 주민들의 소박한 꿈이 희망으로 전해오는 듯하다. **G**





이른 봄... 채소정원으로의 산책이 편한 곳이다. 벽돌로 통로를 만들어 신발에 흙이 묻지 않도록 만들었다. 통로를 제외하면 40여 명의 좁은 공간이지만 200여명이 먹는 식탁을 1년 내내 풍성하게 해 준다. 정원 가장자리는 사철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고, 키가 큰 옥수수를 심어 나방 등의 날개가 있는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 풀무학교 생태농업 전공부 -

Vegetable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채소정원

Garden

아름다운 정원에 먹을거리가 풍성하다. 눈으로 보기에 예쁘고, 먹기까지 하니 얼마나 알찬 정원인가. 조금은 낯선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 어머니들의 삶의 보고이기도 한 텃밭을 알뜰살뜰히 가꾸는 것의 연장선상이라면 억지일까? 굳이 계획을 하고 색의 조화를 따지고, 병충해까지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땅이 부족해 노는 땅 없이 알뜰하게 가꾸다보니 얻은 지혜쯤이지 않을까? 도시농부의 텃밭살림이 발전하고 있다. 단지 채소를 심는 것보다는 계획하고 따져가며 텃밭에 정성을 들인다. 가든인 독자라면 단순히 씨를 뿌리고 모종을 옮겨 심는 정도에서 벗어나 오도선생님을 따라 텃밭에 색을 입히고, 천연방제법을 익히고, 채소정원의 계획을 배워보자. 텃밭이 정원으로 바뀌는 감각을 느낄 수 있게...

글 · 사진 | 오도 풀무학교 원예선생님



채소정원에는 다양한 식물들이 어울림을 연출한다. 뿌리혹선충을 예방해 주는 메리골드와 진딧물을 막아주는 한련화, 바람에 날려 와 꽃을 피우는 개망초까지... 그 속에서 자라는 채소들(브로콜리와 양배추, 상추 등)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란다.
-풀무학교 생태농업 전공부 -



정원 일을 하기에 좋은 계절인 따뜻한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채소정원으로 발길이 닿는다. 정원하면 꽃이나 나무, 연꽃 등을 연상하게 되는데 채소와 꽃이 함께 어우러진 꽃밭을 '채소정원'이라고 한다. 채소정원에는 아름다운 이상으로 마음을 끄는 것이 있다. 봄이면 가장 먼저 올라와 파란 물의 정원을 연출하는 강아지눈꽃(정식명=큰개불알꽃)은 보는 사람의 눈을 맑게 만들어 주는 힘이 있다. 채소들이 한참 자라기 시작하는 시기에는 잡초로 취급이 되어 뽑아버리기 일쑤지만 강아지눈꽃은 약탈카리성 토양에서 잘 자라는 잡초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본격적인 채소정원의 일이 시작되면 앞치마에 모자를 쓰고 창화도 챙겨 신는다. 봄이라고는 해도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 흙이 얼었다 풀렀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신발에 흙이 달라붙기 일쑤다. 삽과 레이크로 이랑을 만들고 이랑이 준비되면 채소도 심고 꽃도 심어 보기도 좋지만 키우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건강한 채소로 키운다. 채소정원에 채소도 심고 꽃도 심는다고 하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게는 어색하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산업화가 발달하기 이전 시골집 주변의 텃밭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고, 지금도 유심히 살펴보면 찾아볼 수 있는 풍경이다. 원래 전통농업이라 함은 산업화 이전 자급을 위주로 하는 가족이나 마을 단위의 중소농 중심의 농업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급 위주의 중소농이 중심이었던 전통농업에서는 상품성보다는 먹는 데 초점을 맞춰, 채소작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파악해 한정된 땅에서 서로 어울리게 길렀던 것이다. 또한 기계나 비료, 농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사람과 살아 있는 것들(소, 미생물 등)의 힘을 빌려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채소와 꽃 또는 채소와 채소를 함께 심는 것을 우리말로로는 '섞어짓기'라고 할 수 있고, 한자로는 혼식(混植) 또는 혼작(混作)이라고 표현하며, 영어로는 Companion Planting이라고 한다. 우리의



채소정원 한켠에 나무판자로 채소들의 심터를 만들어 주었다. 자연 소재인 나무는 채소들이 뿌리를 내리기에 적당하도록 산소를 제공해 준다.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채소들이 서로를 꺼안으며 튼튼하게 자란다. 땅을 일구다 부러진 심이 훌륭한 장식물이 되어 주고 있다. - 풀무학교 생태 정원 -



채소를 이용해 만든 화단이다. 상추의 다양한 색채를 이용해 줄과 줄 사이를 장식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마늘이나 파 종류를 심어 입체감을 주고 있다. 일반사람들이 와서 보고 가정에서 응용할 수 있도록 채소의 이름을 써 주는 세심한 배려도 빼놓지 않았다.
— The Eden Project(영국) —



보기만 해도 예쁜 채소정원이다. 한껏 자란 상추들이 치마폭을 펼치고 하늘하늘 춤을 추고 있는 듯 하다.
— RHS Garden Wisley(영국) —

밭상에 매일 같이 올라오는 밤과 채소들은 본래 야생에 있던 식물들 중에서 인류가 이용가치 높은 종류만 채집해 육종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 식물들은 단일적으로 생육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식물들이 공존, 공생하면서 군락을 형성하고 있었을 것이다. 산업화에 따른 비료와 농약의 사용에서 생긴 병해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해결점을 찾기 위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전통농업이고 그 속에는 자연이 바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섞어짓기는 결국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옛 조상들에게 배우는 지혜라고 볼 수 있다. 채소정원의 생태계는 햇빛과 그늘, 온기, 바람, 새, 곤충, 동물들이 상호작용하는 더 큰 생태계의 일부분이다. 자연생태계는 조화롭고 이로온 상호 관계성을 띠면서 다양함과 균형을 형성한다. 정원사들의 주된 초점이 건강한 흙을 만드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부가적인 목표는 자연의 다양성을 우리의 채소정원에 반영하는 것이다. 심지어 잡초조차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섞어짓기는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각각의 작물이 서로 어떻게 옆에 위치할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식물은 혼자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가까이에 식물들끼리는 여러 가지 점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 덩치가 큰 식물이나 잎이 무성한 식물은 음지를 만들어 바람에 그치지 튼튼하지 못한 식물에게 있어서 바람막이가 되어 준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향신료인 마늘은 그 강한 냄새가 장미의 향기를 더욱 진하게 해주고 진딧물 예방에 좋다. 매달국수의 원료인 메밀은 꽃가루를 옮겨주는 꽃봉오를 유인할 뿐만 아니라 갈습을 흡수하기 때문에 수확 후 흙으로 돌려주면 영양분이 없는 토양도 비옥하게 해 준다. 그 건강한 뿌리는 집토와 같이 무거운 흙을 바꾸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

시양에서는 섞어짓기에 허브를 많이 이용하는데 허브의 독특한 향기가 큰 몫을 한다. 향기는 식물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방법이다. 어떤 향기는 꿀벌처럼 꽃을 수분하는 익충을 끌어 들인다. 이런 분비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물방울로 식물을 둘러싸는 휘발성 오일의 형태로 되어 있다. 오이냄새 덩어리의 파란 꽃이 피는 보리지를 딸기밭 사이에 심으면, 딸기가 잘 자라고 열매의 맛도 좋은 것으로 관찰되고 딸기 꽃에 해를 입히는 곰팡이 사성균에도 강하다. 허브의 식물체뿐만 아니라 뿌리에서도 분비액이 나오는데, 여름 화단의 대부분을 장식하는 메리골드의 뿌리 분비액은 뿌리혹선충 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채소정원에서의 섞어짓기는 비록 과학적인 증거 자료는 드물지만, 토박이 농사꾼들의 부지런한 손길이 묻어나는 작지만 풍성한 텃밭으로 증명해 준다. 소박한 밥상을 차리기 위해 채소정원으로 나가면 채소랑 꽃들이 금세 광주리를 가득 채운다. 먹기에도 좋지만 보기에도 좋은 채소정원으로의 산책은 늘 설렘으로 가득하다. **G**



섞어짓기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는 옥수수와 호박 그리고 줄콩을 심은 모습이다. 아랫부분의 호박은 옥수수와 줄콩에 그늘을 만들어 토양의 건조를 막고, 호박사이를 뚫고 올라간 옥수수는 태양의 빛을 받으며 줄콩의 버팀목이 되어 준다. 줄콩은 옥수수를 기둥삼아 타고 올라가지만, 땅속뿌리에서는 질소를 고정해 토양을 비옥하게 해 준다.
— Yalding Organic Garden(영국) —



섞어짓기의 대표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파서양파는 향신료이면서도 해충을 방제해 주고, 같이 심는 채소의 품질이나 생육을 좋게 한다. 딸기의 둥근잎과 짙은 초록이, 파의 뾰족하고 차가운 녹색의 잎을 부드럽게 해 준다.
— Kelle Castle Garden(영국) —



여름 식탁을 가장 많이 장식하는 상추는 그 색깔이 다양하다. 연한 연두 빛에서부터 짙은 보라까까지... 상추를 한 종류씩 심을 수도 있지만 두세 종류씩 섞어서 심으면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된다. 키가 작고 다양한 색깔의 상추 뒷부분으로는 녹색의 잎을 갖는 다양한 호박을 심어,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주고, 채소정원에 안정감과 통일감을 준다.
— West Dean Garden(영국) —

6월,

병충해 방제와 '퀘럼네 화단' 오하나의 베란다정원관리 가지치기를 해주자

우리나라는 보통 5월부터 더워지기 시작하여 여름을 맞게 된다. 그나마 6월은 7~8월에 비해 덜 덥기 때문에 식물이 성장을 많이 하는 시기이지만, 이 시기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병충해피해를 입는 식물이 많이 생긴다.

처음으로 베란다에 텃밭을 들여놓은 분이라면 병충해가 생기면 당황하게 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기도 한다. 혹은 뽀아버리는 결과도 있을 것이다.

퀘럼네 화단, 오하나님이 귀땀하는 천연 방제비법과 피해시기를 피하는 방법을 들여다보자.



글·사진 | 오하나 '퀘럼네 화단' 블로그 운영

지긋지긋한 병충해!! 너희를 어쩌면 좋을까?

5~6월부터 가장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바로 병충해다. 특히 채소를 많이 키우는 베란다라면 더욱 병충해로 인해 골머리를 썩게 될 것이다. 창문도 공공 단아놓았는데 대체 어디서 기어 들어온 것인지 진땀물이며 총채벌레며 웅애까지!! 해충을 너무나 혐오하는 사람은 이쯤 되면 식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자꾸만 들게 된다. 하지만 애써 키운 채소를 해충에게 넘겨 줄 수는 없지! 하며 다시 해충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 계절이 바로 6월이다.

6월이 가장 큰 해충과의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인 이유는 바로 대부분의 채소가 '일년생'이기 때문이다. 가을까지 정성껏 키워야 하는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의 채소가 한여름에도 열심히 사랑으로 보살펴야 되지만 일년생, 뿌리채소 등의 일년생 채소는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보통 초봄부터 키워 5~7월이면 수확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병충해가 우



글거리는 한여름이 되기 직전에는 이미 수확을 하거나 심한 병충해로 인해 처분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베란다는 노지텃밭과 달리 덜 추위 2~3월에 빠른 파종이 가능하다. 또한 겨울에도 파스한 관계로 한여름이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5~6월에 미리 병충해 방제 및 퇴치를 하지 않으면 7~8월 동안 퍼져버린 병충해 때문에 퇴치가 곤란해질 수도 있다.

베란다텃밭에서는 수확 직전의 계절인 6월이 가장 병충해 퇴치에 신경을 쓰게 되는 계절인 것이다. 그래도 한가지 다행인 점은 베란다텃밭이 노지텃밭, 옥상텃밭보다는 병충해 피해가 훨씬 적다는 것이다. 햇볕이 부족하여 힘들게 채소를 키우는 하지만 병충해가 적게 생긴다는 것은 초보 가드너에게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5~6월 동안 채소들의 잎을 꼼꼼히 살펴 병충해가 생겼다면 즉각 잡아주고, 미리 천연살충제를 뿌려준다면 훨씬 피해

를 줄일 수 있다. 베란과의 통풍을 위해 창문을 열 때도 날아다니는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충망이 달려 있는 쪽으로 열어주는 것이 좋다.

더위를 타는 식물은 위치를 옮겨주자.

병충해만 예방했다고 하여 끝이 아니다. 높아진 온도와 강한 햇볕 때문에 흙은 봄보다 더 빨리 말라가 물을 자주 췌겨주어야 한다. 당연히 손이 더욱 많이 간다. 여기에 다가 올 여름의 무더위에 대한 걱정까지... 남향의 베란다는 여름부터 햇볕 양이 줄어들어 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더위에 대한 걱정이 한결 적다. 하지만 동향베란다는 뜨거운 햇볕이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식물들이 말라 죽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식물의 위치를 옮겨주는 것이다. 더위에 강한 식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으로 옮기고, 더위에 약한 식물은 그나마 시원하고 그늘진 위치로 옮겨주도록 하자. 사람도 국가에 따라 성격이 다르듯이 식물도 살아온 지역 환경에 따라 조금씩 성격이 달라진다. 우리나라 야생화 혹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식물들이야 여름 더위를 잘 이겨내겠지만 시원한 환경에서 자라온 식물들에게는 우리나라의 더위가 참 이겨내기 힘든 환경일 것이다. 게다가 베란다 공간은 벽과 창문으로 막혀 있어 통풍이 잘 되지 않는다. 야외보다 온도가 더 높다. 더위를 타는 식물에겐 참 힘든 환경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기 힘든 식물은 원산지에서 다년생이든 우리 나라에서는 한해만 꽃을 감상하기도 한다. 프리블러, 목마가렛, 후쿠시아, 캄피올라 등과 같은 화초가 이에 속한다. 이들 모두 여름 동안 무더위를 피해 그늘지고 시원한 곳에서 잘 관리해주면 매해 꽃을 볼 수 있고, 특히 후쿠시아와 목마가렛은 매니아층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인기가 있어 여름을 무사히 보내 예쁜 꽃을 매해 감상하는 가드너가 늘고 있다. 만약 아무리 관리해도 여름 동안 예쁘게 관리할 자신이 없다면 가지치기를 하여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자. 허브를 가지치기했을 경우에는 통풍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줄기를 활용한 수 있기 때문에 수확을 겸하게 된다.



예쁜 꽃을 피워준 후쿠시아

마치 요정과 같은 꽃의 모습에 흠뻑 반해 모종을 구입하게 된 후쿠시아다. 다른 컬러의 후쿠시아 모종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종로 꽃시장에서 딱 한군데 판매하는 곳을 발견하고 어쩔 수 없이 빨간색에 가까운 꽃을 피우는 모종을 구입했다. 나름 상태가 좋은 모종을 고르다고 골랐는데도 불구하고 꽃잎의 상태는 썩 좋지 않았고, 금새 꽃망울과 꽃들이 후드득 떨어져 버렸다. 꽃을 감상한다고 구입했는데 순식간에 꽃이 없어져 버린 것이다. 동향베란다는 부족한 햇볕 속에 다시 꽃을 피워주긴 할까 하는 생각에 절망했는데 언제 생겼는지 모를 후쿠시아 꽃망울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쁜 꽃도 피워주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동향베란다에서도 예쁜 꽃을 풍성하게 피워준 후쿠시아! 여름만 잘 넘겨준다면 동향인 우리집 베란다에서도 오래도록 사랑스러운 요정의 모습을 보여줄 것만 같다. **G**

로즈마리 가지치기와 수확하기



1 한번도 가지치기를 안했더니 무성하게 자란 로즈마리이다. 가위로 줄기를 짧게 잘라 수확을 하고 여름도 잘 보낼 수 있게 해줄 생각이다.



2 짧게 자른 로즈마리 잎을 어느 정도 남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짧아졌다. 많이 정돈된 모습이다.



3 잘려나간 로즈마리의 줄기에서 로즈마리의 잎을 추려내어 일부는 로즈마리 시럽을 만들었고 일부는 말려서 로즈마리 차로 활용할 생각이다.



4 일부 줄기는 아랫 잎을 정리하여 물에 꽂아놓았다. 위에는 수분 유지를 위해 테이크아웃 컵뚜껑을 씌워주었다. 뿌리가 나와 어느 정도 자라면 흙에 옮겨 심어주면 번식이 가능하다.



5 가지치기를 했던 줄기에서 2개의 줄기가 자라났다. 자를 때마다 줄기가 2개 자라나 더욱 풍성하게 자랄 수 있게 된다.

Gardenin point

베란다 텃밭 관리

병충해 관리

1. 5~6월, 채소 잎을 꼼꼼히 살펴 병충해가 생겼다면 즉각 잡아준다.
2. 천연살충제를 뿌려준다. (난황유, 마요네즈 희석액 등)
3. 통풍을 위해서 방충망이 있는 창문을 열자.

더위 관리

1. 동양베란다는 직접적으로 강한 햇볕을 받기 때문에 식물의 위치를 바꿔줌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2. 더위에 강한 식물은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더위에 약한 식물은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옮긴다.

실내식물 건강관리

1. 식물과 화분은 실내로 들어오기 전에 철저히 점검한다
2. 에어컨 근처는 냉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식물이 잘 자라는 공간을 선택한다.
3. 식물을 심는 흙은 항상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산이나 들에서 가져오지 말고, 반드시 상가에서 구입해서 사용하자. 병충해피해도 덜고 식물이 더 잘 자랄 수 있다.



6 언제 짧게 잘랐었냐는 듯 2달 만에 풍성한 로즈마리 줄기다. 짧게 잘라도 새로 잎이 돋아나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단, 잎은 어느 정도 남겨주는 것이 새로운 줄기가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 연재 아이템

옥상정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원모델

옥상정원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좋은 경관을 제공함은 물론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흡수하고, 산소, 음이온 등을 방출하는 등의 이점이 있고, 정신적인 피로를 줄여주고, 사람들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낸다. 자연과 접촉한 아이들은 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일터에서는 사람들에게 23%의 덜 지루함을 느끼게 한다는 정원, 옥상정원의 여러 긍정적인 효과와 활용법에 대해 소개한다.

글 · 사진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정명일



옥상정원의 조성(부산시청)



옥상정원의 활용(영동제일유치원)
4계절관상용옥상정원모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부드러운 햇살과 푸른 산과 천이 앞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언제부터인가 도심에 전원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이렇다 도심 속 생활공간에서 식물을 기른다는 것이 사치가 아닐까 걱정스럽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꿈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식물의 도입효과

식물은 생활공간 속에서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을 흡수하고, 산소, 음이온 등을 방출하는 등의 이점 외에도 다양한 효과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경치가 좋은 곳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11%정도 더 많이 지불하고자 하며, 상가주변의 좋은 경관은 내부투자를 이끌어 내는 이점을 주기도 한다. 생활주변에 적절한 채소의 재배는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정신적인 피로를 누그러뜨려 준다. 적정량의 과일나무는 집밖으로 사람들을 끌어내어 만나게 함으로 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게 한다. 또한, 식물은 이용 대상자에 따라서도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자연과 접촉하므로 긍정적인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일터에서는 사람들에게 23%의 덜 지루함을 느끼게 하기도 한다.

옥상공간에 식물의 도입

옥상에서 식물을 기르는 근원은 고대 바벨론왕궁 테라스에 세웠다는 공중정원(Hanging

Garden)이다. 멀리 메디아(현 이란)에서 시집은 왕비에게 녹지가 풍부한 고향의 경치를 보여주어 마음의 위안을 주고자 하였다는 유래가 전해진다. 당시 바빌로니아도 녹지가 부족했던 도시였는데 녹지의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건물의 옥상을 이용했다는 점이 지금에도 매우 흥미롭다. 옥상정원은 20세기 중반 이후에도 산업화와 도시화로 파괴된 도시 생태의 복원과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옥상에 식물을 도입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국내에도 급속한 도시화로 인한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같은 인공지반을 증가로 대기오염, 홍수, 열섬화 같은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환경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최근 옥상정원의 실용 및 산업화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옥상정원의 활용을 높이는 방안

국내 옥상녹화 사업지에 대한 사례조사 결과 옥상정원은 식재식물의 종류가 제한되어 있어 식물 종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하고, 이용대상자를 고려하지 못한 정원이 많이 조성되고 있어 활용도가 매우 낮은 특성을 보인다. 특히 식물의 계절적 생장특성이 잘 고려되지 않은 식물식재로 개화나 관상기간이 특정계절에 치우쳐 4계절 이용을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옥상정원의 이용성 향상을 위하여 텃밭과 같은 재배공간을 포함하거나 식물의 잎, 줄기, 꽃, 열매, 단풍 등을 통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식물을 적절하게 식재하는 원예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원예적인 옥상정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설계의 단계부터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이용대상자를 고려하여 수목원, 꽃밭, 잔디밭, 허브원, 과일, 채원 등 다양한 테마를 가진 공간으로 구성해도 좋다. 시공과 관리의 단계에서는 물 관리를 위한 수전의 확보와 이용의 편리성을 위한 휴식공간의 확보, 잡초관리, 시비관리, 전정 등의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4계절 관상을 위한 옥상정원모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07~2012년까지 옥상정원용에 활용이 가능한 식물자원 226종(정원식물 170종, 허브식물 23, 텃밭채소 33)을 선별하여 활용을 추천하였으며, 2012년에는 이들 식물을 활용하여 “4계절 관상용 옥상정원 모델”을 개발하여 시범 조성하였다. 개발된 모델은 유지원생의 교육적 이용이 고려된 혼합형정원으로 정원과 텃밭공간이 공유된 형태이다. 부분별로는 텃밭, 허브원, 습지비오름, 잔디마당, 산책로 등을 두어 체험과 생태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4계절관상을 위하여 잔디를 제외하고 총 56종의 다양한 식물을 식재하였으며, 식물의 생장과 개화시기 등을 봄(금낭화, 매발톱, 기린초, 산철쭉, 수수꽃다리 등), 여름(배롱나무, 참나리, 붉은은풍취, 범부채 등), 가을(낙산홍, 두매부추, 큰평의비름, 벌개미취 등), 겨울(에메랄드골드, 황금실화백, 눈향나무, 사철나무, 흰말채 등)의 계절적 특성을 살려 배치하였다.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난간의 높이를 150cm로 높였으며, 시설물로는 쉼터, 텃밭도구함, 수전과 개수대 등으로 구성하였다. 본 모델은 매뉴얼로 만들어져 2013년부터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 또한, 본 옥상정원을 활용하여 유지원생에 대한 원예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지적능력향상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4계절관상용옥상정원모델, 옥상정원 현장평가
붉은인동(백면), 섬백리향(허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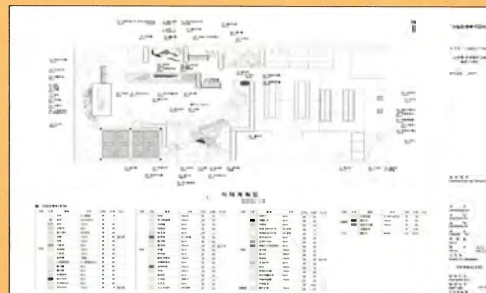


옥상정원 식물의 생장과 개화시기 계절적 특성을 살려 배치해야 한다

봄	금낭화, 매발톱, 기린초, 산철쭉, 수수꽃다리 등
여름	배롱나무, 참나리, 붉은은풍취, 범부채 등
가을	낙산홍, 두매부추, 큰평의비름, 벌개미취 등
겨울	에메랄드골드, 황금실화백, 눈향나무, 사철나무, 흰말채 등
시설물	쉼터, 텃밭도구함, 수전과 개수대 등으로 구성



초등학교 교육용 옥상정원 모델



교육용 옥상정원 식재 계획도 (초화)



고령자 치료용 옥상정원 모델



치료용 옥상정원 식재 계획도



교육 및 치료용 옥상정원 모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12~2013년 이용자를 고려한 옥상 정원 모델 개발 연구를 통하여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용 옥상정원모델”과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고령자 치료용 옥상정원모델”을 개발하였다. 교육용 학교 옥상정원 설계는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기위한 목적으로 대상지를 전국 초등학교, 대상자를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로 하였으며, 1개 학급이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실 두 칸 규모인 옥상면적 264㎡(약 80평)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주요 설계는 정원과 텃밭이 공유된 형태로 정원의 식물식재는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식물위주로 계획하였다. 텃밭의 설계도 수업을 위한 높임텃밭, 뿌리관찰 텃밭, 덩굴식물 터널, 파종을 위한 미니온실 등과 자원순환 교육을 위한 빗물저금통과 퇴비화 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치료용 옥상정원 모델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노인 및 요양원자, 보호자 및 종사자에게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고 정원활동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상지를 전국 복지관 및 요양시설로 하였으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최소면적으로 옥상면적 264㎡(약 80평)를 기준으로 설계하였다. 주요 설계는 치료를 위한 오감정원, 운동시설, 휴게쉼터, 포켓쉼터, 생태습지, 산책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호자 및 휠체어 등의 이동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였다. 이들 모델들은 매뉴얼로 만들어져 2014년부터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

이제 옥상정원은 더 이상 시공자 중심의 정원조성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질 때 정원은 우리 곁으로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올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정원이 이용자, 식물 생산자, 정원 시공자 모두에게 축복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G**



옥상정원의 식물관찰



현물채(겨울봄은표피색), 옥상정원의 원예활동
옥상정원텃밭 기르기

교육용 학교 옥상정원은?

- 목적:** 어린이들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 대상지:** 전국 초등학교, 대상자를 초등학교 학생 및 교사
- 면적:** 1개 학급이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실 두 칸 규모인 옥상면적 264㎡(약 80평)를 기준으로 설계되었다.
- 주요 설계:** 정원과 텃밭이 공유된 형태
- 정원의 식물식재:**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있는 식물위주로 계획
- 텃밭의 설계:** 수업을 위한 높임텃밭, 뿌리관찰 텃밭, 덩굴식물 터널, 파종을 위한 미니온실 등과 자원순환 교육을 위한 빗물저금통과 퇴비화 시설 등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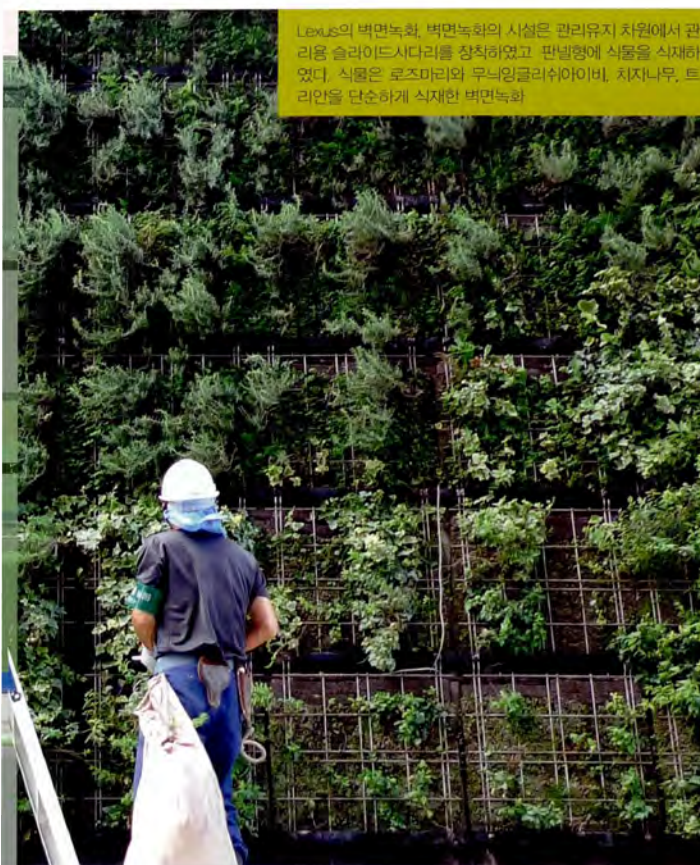
치료용 옥상정원은?

- 목적:**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노인 및 요양원자, 보호자 및 종사자에게 자연을 가까이 접할 수 있게 하고 정원활동을 통해 치유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 대상지:** 전국 복지관 및 요양시설
- 면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최소면적으로 옥상면적 264㎡(약 80평)를 기준으로 설계
- 주요 설계:** 치료를 위한 오감정원, 운동시설, 휴게쉼터, 포켓쉼터, 생태습지, 산책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호자 및 휠체어 등의 이동을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였다.

이들 모델들은 매뉴얼로 만들어져 2014년부터 현장에 보급되고 있다.

일본의 벽면녹화 탐방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기후 조건을 가진 일본의 벽면녹화를 교수님의 안내로 들여다보자. 도심 곳곳과 실내의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벽면녹화는 공기정화, 인테리어 효과뿐만 아니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다. 일본의 벽면녹화는 실외 실내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하지만 직원들의 대우는 차 별이 없어 이직이 잦을뿐더러 식물 관리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하니, 조금 부러운 생각이 든다. 글·사진 |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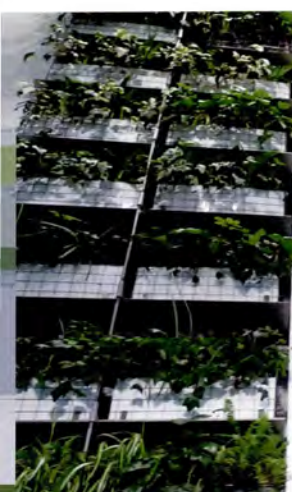
Lexus의 벽면녹화, 벽면녹화의 시설은 관리유지 차원에서 관리용 슬라이드시다리를 장착하였고 판넬형에 식물을 식재하였다. 식물은 로즈마리와 무늬잉글리쉬아이비, 치자나무, 트리안을 단순하게 식재한 벽면녹화

서울 시청사의 벽면녹화를 하기위해 좀 더 좋은 실내벽면녹화를 완수할 수 있을까 하는 취지로 서울시청에서 일본의 도쿄시청에 의뢰하여 일본의 벽면녹화협회의 협조를 받아 도쿄시에 있는 벽면녹화가 잘된 곳을 안내 받게 되었다. 일본의 벽면녹화는 기후와 온도가 우리나라와 달라 그대로 답습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우선 도쿄만하더라도 기후가 우리나라처럼 추운겨울이 없이 따뜻하고 공중습도가 습한 관계로 일본의 외부 벽면녹화를 모방 답습하기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일본의 외부벽면 녹화식물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란 실내에서 식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실외에서 식재하기도 어정쩡한 식물들이 일본의 외부벽면녹화에 식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내 벽면녹화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일본도 확실하게 실내 벽면녹화에 적당한 식물선정이 정립되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실험단계에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보다는 식물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데 이유로는 추운겨울 없이 겨울에도 따뜻하고 습도가 높은 것이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때로는 바람이 세차풍해를 입어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단 한가지 식물이 잘 관리되고 있는 사실은 식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월급이 다른 직원과 같이 높은 월급을 받고 있어 자기 일



Mitsubishi Estate Group에 식재된 기둥벽면녹화, 식물은 털머위, 자주달개비, 알제리아아이비, 도깨비고비, 황금실죽백, 덩굴장미, 줄사철, 베르게니아, 울고시리 등이다



Swatch Group의 박스형 벽면녹화, 식재된 식물은 무늬접란과 알제리아아이비, 무늬잉글리쉬아이비, 문주란, 보스톤 핀, 왕모란을 식재하였다.

에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예사나 정원사가 받는 월급이 많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의 경우 안정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의 실정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된다.

외부벽면에 식재된 식물의 종류로는

잉글리쉬아이비와 로즈마리, 산호수, 조팝나무, 휴케라, 털머위 줄고사리, 알제리아 아이비, 부겐베리아, 넉줄바위고사리, 홍자단, 치자나무, 백문아재비, 하이페리쿰, 장미, 배롱나무, 호야, 필레아, 고무마딩굴, 남천, 일본조팝나무, 웨프레라무늬중, 문주란, 접란, 맥문동, 자주달개비, 수호초, 마삭줄덩굴, 은쑥, 꽃댕강, 인동덩굴, 베르케니아, 실화백 등이 식재 되어 있었다.

실내식물로는

잉글리쉬아이비와 팔손이, 넉줄바위 고사리, 무늬산호수, 무늬호야, 필레아, 무늬왕모란, 무늬웨프레라, 테이블야자, 큰봉의꼬리, 싱고니움, 산세베리아, 스킨답서스, 스킨답서스 라임, 스파티필름, 온시디움, 틸란드시아, 마삭줄덩굴, 아글라오네마, 아스파라거스, 네오레겐시아, 코르딜리네, 호야, 크로톤, 필로덴드론, 안수리움, 몬스테라 등이 식재되어 있었다. **G**



도쿄 시내에 원예상가의 포켓용벽면녹화시례. 식물은 아나나스류, 호야, 빌베르기아, 트리안, 무늬접란, 에크메야류, 콜롬비아, 에크메야류 등



플랜트박스형 벽면녹화. 식물식재는 맥문아재비, 잉글리쉬아이비, 트리안, 줄사철로 식재되어 있다.



오모테산도자이루백화점의 식재된 포트용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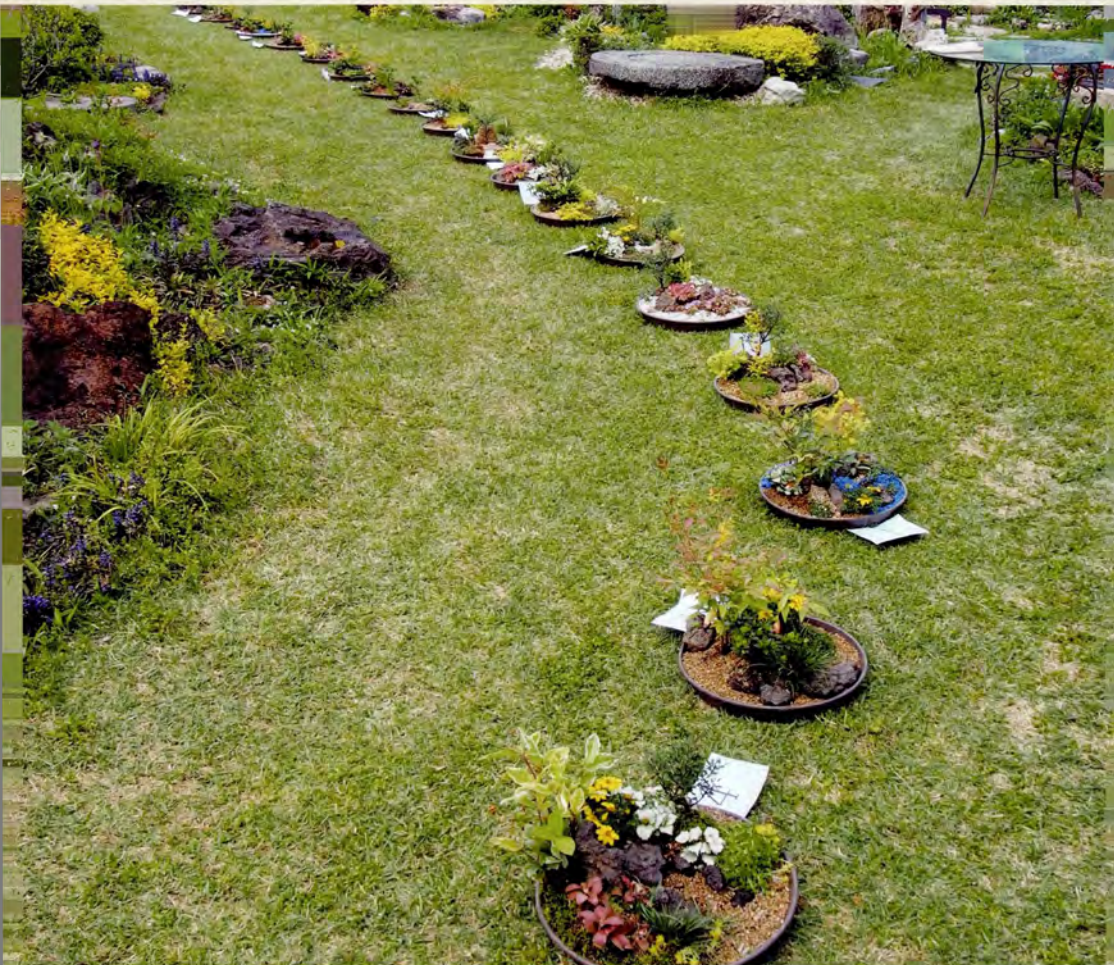
오사카의 이온쇼핑몰의 벽면녹화



오사카에 있는 차야마치의 섬머 바게인쇼핑몰의 광고용 벽면녹화



오모테산도 자이루백화점의 실내벽면녹화조경. 식물은 팔손이와 무늬산호수, 잉글리쉬아이비, 다발리아고사리, 프리티스, 슈가바인이 식재되어 있다.



멋스럽게 식재된 용기정원, 나라히 출선 모습도 멋스럽다

제1회 용기정원 경진대회

2014년 4월 24일 경기조경가든대학 졸업생들의 모임 푸르미에서 제 1회 용기정원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정원문화의 대중화를 바라는 이들의 후원으로 마련된 행사는 참가자들을 배려하여 일체의 참가비 없이 점심식사까지 제공해 호평을 받았다. 장소와 식재를 후원한 인영재씨와 푸르미의 자원봉사자들의 배려가 돋보이는 대회였다. 스케일이 큰 것이 아니더라도 정원문화를 쉽게 접근 가능한 용기를 이용하여 자연을 끌어들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참가자들은 높이 평가했다. 대회의 평가 기준은 30여 가지의 식물 중에서 7개를 참가자가 선택해 디자인, 식재하는 것으로 식물들의 특성과 식생에 맞는 식재를 했는지, 자연스럽게 식재 되었는지,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었는지를 기본으로 하여, 대회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뽑았다. 참가자가 직접 뽑는다는 점이 다른 대회와는 차별화 되었고, 참가자 누구나 공감하는 수상작이라는 점이 그 어느 대회보다 뜻 깊었다



대상 방현순 세월호의 명혼



수상자들(대상, 방현순, 금상 배선옥, 양명숙, 은상 이복임, 동상 정명자, 원정연, 인기상 강연순, 최덕재)



준비위원들



식재 재료들

대상을 받은 방현순씨는 세월호의 참사를 주제로 하여 어린 영혼들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을 표현해 호평을 받았다. 동양적인 식재를 선택하여 식물들을 구도적으로 배치했으며, 색들로 바다를 표현해 이색적인 작품을 탄생시켰다.

그 밖에 대부분의 작품들이 각자의 개성과 주제의 표현이 잘 나타나 작품의 완성도가 높은 대회였다. **G**



정원문화를 봉사, 실천하는 푸르미

제 1 회 용기정원 경진대회

2014. 4. 24

장소: 유년의 들

주최: 푸르미 중앙회

후원: 푸르미 각 지회

유년의 들

(사)안스가든월드





하늘거리는 꽃잎이 매력적인

양귀비 *papaver*

하늘거리는 붉은 꽃잎이 매력적인 꽃양귀비를 키워보자. 검은수술과 붉은 꽃잎이 대조적이기도 하고, 길쭉한 줄기 끝에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게 피는 양귀비는 단순하면서도 화려하다. 얼마나 예뻐왔으면 중국의 유명한 미인의 이름이 붙었을까?

정원에 조금만 뿌려도, 무리지어 뿌려도 바람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장관이다. 일년생, 2년생, 다년생 등 전 세계적으로 70여종이 분포한다고 한다. 잉글랜드양귀비, 아이슬란드양귀비, 쥐눈양귀비 등이 있다.



꽃잎의 검은 점이 매력인 쥐눈이양귀비



보는 즐거움을 주는 아이슬란드양귀비의 혼합. 입위로 줄기가 올라와 그위에 둥근 꽃봉오리를 품어낸다.



주황의 꽃잎이 아름다운 아이슬란드양귀비



Eschscholzia 캘리포니아 뽕뽕(금영화)주황



Eschscholzia 캘리포니아뽕뽕(금영화)하양

꽃양귀비 재배관리

우리꽃이 국내최초로 대단위 재배와 지역축제 등에 적극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제 최고의 대면적 식물로 자리잡고 있다.

재배관리법 : 비옥하고 물빠짐이 좋은 땅이 좋다. 그래야 꽃이 크고 화색이 좋다.

1. 최고의 봄 축제식물로 자리잡고 있어 전문성이 요구된다.
2. 비옥하고 물빠짐이 좋은 것이라야 효과적이다.
3. 물이 차거나 침수되면 세균성곰팡이 등에 의한 피해가 매우 크게 있으므로 배수에 최선을 다한다.
4. 축제를 하기 위한 대면적 재배의 경우 품종과 토양, 자연환경에 따라 생육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5. 품종에 따라 화색, 화기는 물론 재배요점과 성장과정에 따른 비배관리가 다르므로 주의한다.

재배순서

양귀비씨와 톱밥, 모래를 1:1:1로 섞어놓는다. 톱밥이나 모래를 더 넣어도 된다. 톱밥이 없으면 시중에서 파는 퇴비를 두껍게 뿌린다.(너무 착박하다 여기면 복합비료도 뿌려준다.) 파종은 골을 30~40cm로 판 뒤 흩어뿌린다.(10월경) 흙을 따로 덮지 말고 뿌린 씨를 살짝 눌러주면 된다. 4월 중순경에 쭉갓모양의 잎이 나기 시작하면 일정한 간격(30~40cm)을 두고 솎아낸다.(연한 잎은 씹이나 겉절이를 해먹을 수 있다) 중간중간 잡초를 제거해주고 약해지면 비료도 뿌려준다. (비오는 날) **G**

양귀비종자는 우리꽃에서 구할 수 있다. 우리꽃은 한국 최고의 양귀비 전문회사다.

상담문의 031-634-7990



여름철 구근관리

구근식물이 화사한 꽃을 뽐내던 봄이 가고 초여름이 찾아왔다. 6월의 정원을 꾸밀 화초들을 물색하는 것도 좋지만 봄 정원을 꾸며 준 구근식물의 관리에 정성서 들이자. 내년에도 꽃을 볼 수 있다. 이번 달에는 여름철 구근 관리에 대해 알아보자. 글·사진 | 류제



옥살리스 수확한 구근

구근류는 왜 여름에도 관리해야 하는가?

여름이 찾아오면 구근식물은 다른 식물과 달리 별도의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구근식물은 습한 한국의 여름에 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구근식물은 원산지의 건조한 여름을 지내기 위해 구근을 발달시킨 것인데 한국의 여름은 매우 습하고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근식물은 여름 동안 땅 속에서 곧잘 물러 죽는다. 그러므로 내년에 개화할 수 있는 구근을 건졌다면 땅 속에 그대로 묻지 않고 별도의 관리를 해주어야 내년에도 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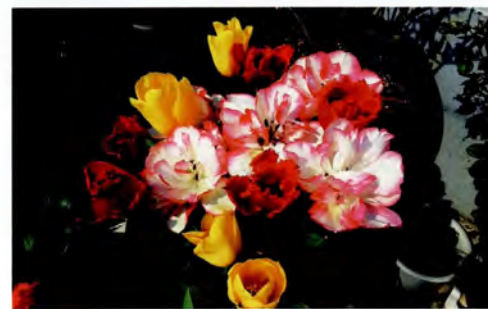
여름철 구근 관리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 구근식물의 구근은 휴면기일 때 습한 기후를 싫어한다. 여름에 일이 완전히 마르면 땅에 남은 구근을 캐내어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구근을 보관한다. 이는 건조한 원산지의

환경을 재현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쉽다. 이 때 양파망에 구근을 넣어 보관하면 좋다. 이런 방법 외에도 휴면에 들어간 구근을 화분에 심어 보관할 수도 있다. 화분에 일반 흙이나 모래를 채우고 그대로 구근을 심어 보관하는 것이다. 매우 간편한 방법이라 필자도 종종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주의할 점은 구근이 보관된 화분이 비에 맞으면 안 되고, 구근을 옮겨 심을 생각이라면 구근에서 뿌리가 나오기 전인 7~8월에 정식할 장소에 옮겨 심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근식물은 뿌리가 자라는 도중 손상되면 생장에 좋지 않다.

구근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야 하는가?

여름철 구근을 캐내어 냉장고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딱히 구근을 냉장고에 보관할 이유는 없다. 왜냐하면 구근을 냉장고에 넣는 것은 구근이 겨울의 저온을 경험하지 못할 거 같을



때나, 구근류의 꽃을 1~2월에 보고 싶을 때 저온처리를 인위적으로 하기 위해 냉장고에 넣는 것이다. (튤립, 히아신스, 무스카리, 크로커스, 백합, 수선화 등등 온대지방 원산 구근식물은 2~4도의 저온을 2~3개월 정도 경험해야 휴면에서 깨어난다). 그리고 여름 동안에도 구근 속의 썩이 미세하게나마 자라고 있으므로 구근을 수확하자마자 냉장고에 넣으면 좋지 않다.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나 목적이 없다면 구근 보관에 냉장고를 이용할 필요는 거의 없다. 그리고 프리지어, 아네모네, 옥살리스류같은 남유럽, 남아프리카 원산 식물의 구근도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는 경우가 있는데, 남아프리카를 포함한 추운 겨울이 없는 지역이 원산지인 식물은 대부분 여름의 고온에서 일정 기간 지내면 휴면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구근 보관에 냉장고를 이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식물도 구근을 수확한 후 양파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장소에 가을까지 보관하면 된다.

여름철 구근 관리의 모든 구근식물에게 해주어야 하는가?

구근식물은 대부분 여름의 습한 기후를 싫어하지만 예외인 종류들도 있다. 살펴보자면

구근을 캐내지 않아야 하는 식물 : 백합, 상사화류

백합이나 상사화류는 구근을 캐어서 공기 중에 1달 이상 보관하면 안 된다. 상사화류는 이식할 때 빼고는 캐낼 일이 없는 식물이다. 이식을 하면 개화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점도 있고, 캐지 않고 심은 채로 두어도 여름 동안 잘 죽지 않아 정원 환경에 심어두면 손이 많이 가지 않아 키우기 좋다. 백합은 여름에 캐내는 구근은 아니지만 구근을 1달 이상 공기 중에 보관하면 말라 죽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이 두 가지 식물은 여름을 정원에서 그대로 보내게 되므로 배수가 좋은 땅에 심는 것이 중요하다.

구근을 캐내도 되고, 캐내지 않아도 되는 식물 : 수선화, 아네모네, 라넨큘리스, 무스카리

수선화는 구근식물 중에서 우리나라의 여름을 잘 버티는 편이다. 원한다면 여름에 구근을 캐지 않고 그대로 두어도 되나 그럴 경우 수선화를 심는 땅이 배수가 좋아야 한다. 배수가 좋지 않은 땅에서는 구근이 썩기 쉬우므로 구근을 캐서 보관한다. 아네모네나 라넨큘리스는 구근을 말려서 보관할 수도 있으나 말린 구근을 다시 불리는 과정에서 죽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화분에 그대로 심어 건조한 듯이 관리해도 좋다. 무스카리는 원체 성질이 강한 구근이라 심은 채로 두어도 여름을 잘 난다.

이 외의 구근식물은 여름에 구근을 캐내어 보관한다. **G**

gardenin
point

여름철 구근관리 한 줄 정리



구근류는 왜 여름에도 관리해야 하는가?

우리나라 여름은 습하기 때문에, 구근은 원래 건조한 곳에서 자랐음.

여름철 구근 관리?

구근은 휴면기일 때 습한 기후를 싫어한다. 여름철엔 구근을 캐내어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양파망을 이용하면 좋다.

구근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

구근은 수확한 후 양파망에 넣어 통풍이 잘 되고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장소에서 가을까지 보관.

여름철 구근 관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구근류들은?

구근을 캐내지 않는 식물: 백합, 상사화류

구근을 캐내도 되고, 캐내지 않아도 되는 식물: 수선화, 아네모네, 라넨큘리스, 무스카리

폐 자전거를 활용한 재활용 DIY

아파트 자전거보관소에 보면 폐 자전거가 즐비한 걸 볼 수 있다. 고장 나면 그냥 방치해놓은 자전거는 결국엔 재활용폐기물로 버리게 되는데, 그 폐 자전거를 활용해 너무나도 예쁜 가든을 들여놓아보자. 당장이라도 타고 달려가고픈 맘이 들 정도로 탐이 난다. 디자이너의 손길이 닿으면 못쓰는 물건도 그 쓰임새가 당당해진다. 6월엔 아이들이 타다버린 자전거를 활용해 가드닝을 해보자. 현관 벽면에 걸어놓거나 베란다에 들어놓으면 근사한 소품이 되고도 남음이다. 아파트 입구에 관리실에 노인정이나 놀이터에 들여놓아도 그만이다.

글 · 사진 전형 |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K-HA 환경아카데미 회장

폐 자전거를 오브제로 활용하여 정적인 정원에 동적인 이미지를 더해 보는 것은 어떨까. 공간의 크기나 정원의 이미지에 따라 유아용, 어린이용, 성인용 모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동도 편리한 아이템이다.



1 폐자전거를 마른 걸레로 닦은 후 스프레이라카를 뿌린다.



2 자전거 앞 바구니에 흙이 새어 나오지 않게 이끼를 깔아 준다



3 제라늄을 포트에서 분리해서 식재한다.



4 빈 공간이 없도록 상토를 채워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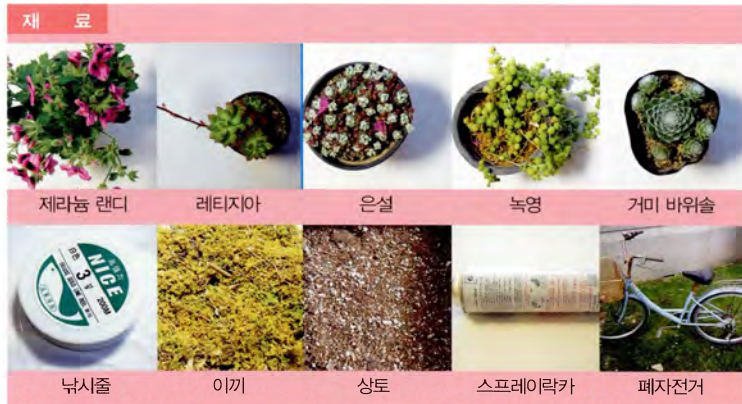
5 안장과 뒤 좌석에 이끼를 두껍게 깐다.



6 이끼를 낚시줄로 여러 번 감아 고정시킨다



7 뒤 좌석 이끼에 구멍을 내고 그 속에 녹영과 레티지아를 식재한다.



8 안장 이끼에 구멍을 내고 그 속에 은설과 거미 바위솔을 식재한다.



관리법

다육식물과 제라늄은 정원에서 빛이 잘 드는 양지를 좋아한다. 빛이 충분히 있어야 꽃을 피우고 색도 더욱 선명해진다. 하지만, 이 두 식물은 비를 맞으면 녹아 내리는 성질이 있어서 비가 올 때는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이나 비닐 같은 것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월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서 관리해야 한다.

실내정원의 기본기술 II



바깥정원이 있는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아파트나 연립 등 실내에서 소박하게 화초를 가꾸며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 실내정원은 실외정원과 달리 가꾸는 사람에 따라 변화의 차이가 크다. 실외정원이야 한번 심어놓으면 자연이 가꿔주고 피워주는 역할이 큰 반면 실내정원은 돌보는 사람에 따라 화초의 색이 달라지고 건강이 달라진다. 실내정원의 기본기술만 알면 화초를 다양하게 배치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오래 식물과 함께 하며 내 집을 화사하게 가꿀 수 있다 한다. 농진청 도시농업연구팀에서 알려주는 실내정원의 기본기술을 5월호에 이어 6월호에도 연재되니 가든인 독자분과 가든인을 접하는 분들에게 알찬 정보가 되리라 본다.

글·사진 | 정순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연구팀

실내정원의 범위로는 하나의 식물을 하나의 용기에 심는 것부터 식물들을 모아 심는 모아 심기로 구분할 수 있고, 실내정원의 규모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내가 직접 나만의 실내정원을 만들 때 미리 알아야 하는 실내정원의 기본 기술 중 2번째 부분으로, 공간, 식물을 선택하는 것부터 실내정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다양한 형태의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
화분에 식물한줄을 심기도
하도 여러 식물을 심기도 한다.



나무로 틀을 만들어
화단을 꾸몄다.
다양한 식물들
보기 좋게 식재했다.

02 식물과 어울리는 용기 선택하기

식물과 용기의 형태 및 크기를 비교하여 어울리는 짝꿍을 찾아주는 것이다. 다양한 크기, 잎 모양, 질감, 색상 등의 조화에 포인트를 두어야 한다. 더불어 배치장소의 배경 이미지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한 결정 요소이다.



드라세나 와네끼



골드크레스트 '월마'



크로톤



시클라멘



원형 높은 화분



원형 표준 화분



원형 낮은 화분



사각 낮은 화분



— 공간의 배경은 벽지의 색깔, 무늬, 질감 등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Tip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실내정원 꾸미기'를 실행해보자~

01 실내 환경 및 관리조건에 알맞은 식물을 선택하기

실내식물들 대부분은 잎을 관상하는 관엽식물로, 아래 그림과 같이 잎의 형태, 질감, 색상 등이 화려하여 관상의 기준이 되는 부분은 잎이다. 이러한 실내식물 중에서 식물마다 좋아하는 온도, 광, 물 조건을 고려하여 배치하고자 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전 호에 연재한 식물의 선택기준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심벤자민



무늬신호수



헤미오티스 '하트핀'



황금마식충



페페로미아 푸테올라타



피토니아 '핑크스타'



브레이니아



필레아 글라우카



프테리스

03 식물의 형태와 모양을 고려한 정원 구성 요소별 식물 선택하기

구성 요소별 식물을 적절히 선택하면 디자인의 표현 방법이 다양해질 수 있다.

•주가 되는 식물

높이감을 주는 큰 키 모양의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중간 키 모양의 식물

정원의 기본적인 골격(framework)을 형성하고, 특히 잎의 색이 다양한 식물을 선택하면 그 효과가 더 강조된다.

•늘어지는 덩굴성 식물

분식물 장식의 흐름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STEP by STEP

자연이끼의 처리 방법

- 잔디밭과 같이 식물이 땅을 덮은 듯한 표현을 할 때 자연이끼를 이용한다.
- 나무줄기나 낙엽 등을 제거한 후, 이끼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물기를 준다.
- 양 손바닥으로 마주 잡은 상태에서 이끼 조각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힘을 주어 뜯는다.
- 이끼를 손바닥에 얹어 놓고, 물기가 있는 배양토를 얹어 볼록한 모양으로 만든 후 배치할 장소에 배치한다.
- 이끼의 가장자리를 안쪽방향으로 감싸면서 깔끔하게 정리한다.



바위틈 사이에서 나온 듯한 식물 연출법

- 자연석 사이에 심어 바위틈에서 나오는 듯한 자연미를 연출한다.
- 화산석이 놓일 위치를 잡고, 기준이 되는 자점에 돌을 배치한다.
- 뿌리 방향을 본래 모습대로 가늠하여 배치한다.
- 기준이 되는 화산석을 약간 들어, 뿌리의 방향을 용기 중심으로 향하게 한 후 배양토를 덮은 후 나머지 화산석으로 식물의 줄기와 잎이 돌에 눌리지 않도록 지국이 고정한다.



식물체 고정 확인

- 뿌리가 심어진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어 보아 배양토가 부족한 부분에 배양토를 충분히 채운다.



통숯의 이용 방법

- 세로로 자를 경우 나무의 결을 따라 가위 집을 넣어 주면 쉽게 갈라진다.
- 통숯 톱을 낮출 경우, 쇠톱으로 자르거나 망치로 한 점을 세게 쳐서 이용한다.
- 전정가위로 숯에 사선으로 가위 집을 주면 반짝반짝한 반사면이 많아 더 매력적이다.
- 세로로 조각을 내어 두껍지 않은 숯의 경우, 전정가위 충격으로 높이를 줄일 수 있다.
- 수경용으로 이용 시, 검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씻어 사용해야 한다.



색모래(color stone)층 만들기

- 색모래를 장식한 유리면에 배양토가 묻지 않도록 깨끗이 닦는다.
- 배양토의 곡선을 자연스럽게 정리한다.
- 손가락을 유리벽 방향으로 하여 벽에 붙여 색모래를 장식하며 유리면 앞쪽에서 색모래의 두께와 모양을 살핀다.
- 배양토에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색모래는 검정색으로 해야 다른 색깔의 색모래가 더욱 더 강조된다.
- 색모래끼리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각 색의 특징, 두께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 색모래층 장식을 고정하기 위해서는 배양토로 한층 덮어 준다.
- 색모래 장식에 치우쳐 색모래층이 식재부위 이상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한다. (식재층의 높이를 결정해 놓고 그 이하에서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색모래층의 처음과 끝은 검정색으로 해야 가운데 색모래가 더욱 강조된다

마사토, 옥자갈 등 표면 장식하기

- 쇠손가락을 이용하여 장식배지로 경사진 길이나 계곡을 만들어준다.
- 포인트가 되는 장식배지를 강조할 때, 배경으로는 자연스러운 색과 질감을 가진 마사토나 맥반석으로 장식한다.
- 비취색의 큰 옥돌은 시원한 느낌을 더해줄 수 있다.
- 장식배지는 그룹으로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돋보이게 하는 포인트!
- 표면 장식 후 용기의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마무리해 준다.



식물체 형태 정리하기

- 키가 큰 식물체의 잎이 다른 식물체의 관상을 방해하는 경우는 단정하게 정리하여 준다.
- 노란 잎이나 시든 잎을 잘라준다.



스프레이 관수

- 투명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배양토에 물기가 있는 정도를 용기바닥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접시정원에는 생각보다 많은 배양토가 사용되므로 시간차를 두어 물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한다.
- 수경장식의 경우 물을 흘러넘치게 하여 깨끗하게 세척하여 완성시킨다.



벌레 잡는 기술이 매우 뛰어난 사냥꾼!

파리지옥 날쌔 파리 길을 잃다

식충식물은 인기가 많다. 특히 사내아이들에게는 더하다. 식물 앞에서 낚 놓고 들여다보는 아이 땀에 어쩔 수 없이 길러보는 사람도 있고, 식물이 곤충을 잡아먹는다는 매력에 키우는 사람도 많다. 부족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곤충을 잡아먹는 쪽으로 진화한 식충식물, 그 중에서 파리지옥을 만나보자.

특징

속명 *Dionaea*는 '비너스(Venus)'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의 'Dione'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리고 비너스의 눈꺼풀과 닮았다고 하여 "비너스의 파리 잡는 덫(Venus Fly Trap)"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일반 명인 Venus Fly Trap의 머리글자만을 써서 'VFT'라는 약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파리지옥은 끈끈이주걱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충식물이다. 파종해서 개화까지는 약 4~5년이 걸리며 약 20~30년 동안 산다. 파리지옥은 성장점을 둘러싸고 있는 잎의 기부 부분이 겹쳐져서 형성된 구근과 같은 구조인 짧고 가지가 없는 근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뿌리

는 두껍고 검정색이며 약 10cm정도 자라고 광범위하게 퍼지지 않는다.

파리지옥은 식충식물 중에서도 벌레 잡는 기술이 매우 뛰어난 식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호기심과 신비감을 준다. 파리지옥은 1속 1종이 있지만 많은 변종이 재배되고 있다. 변종 잎의 색은 전체가 녹색이거나 잎의 안쪽만 붉은 색인 것 그리고 전체가 붉은색 또는 황색인 것 등이 있다. 잎의 모양은 가느다란 직립형, 땅 표면으로 자라는 방사형(rosette형), 중간 형태로 약간 일어서는 형 등이 있다. 그리고 변종은 잎의 크기나 모양 등에 의해서 분류되기도 한다.



잎

잎은 잎자루(petiole)와 덫(trap)의 2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장점을 둘러싸면서 원형을 형성하는 방사형으로 배열되어 있다. 성숙한 파리지옥의 방사형 잎은 직경이 평균 10~20cm정도 되며, 덫은 길이가 평균 2.5~5cm정도 된다.

파리지옥은 여름동안 계속 새로운 잎이 나온다. 몇 주가 지난 오래된 잎은 검정색으로 변해 죽는다. 죽은 잎은 잘라주어야 한다. 가을이 되면 여름에 나온 모든 잎은 초췌해지며 보다 작고 낮게 자라는 덫으로 바뀌게 된다. 늦겨울이나 봄에 보통 지면에 바짝 붙는 넓고 하트 모양의 잎자루(葉柄)를 가진 작은 방사형의 새로운 잎이 출현한다.

꽃

파리지옥은 봄에 개화하며 꽃대는 20~30cm정도로 위로 반듯이 자란다. 하나의 꽃대에는 15개 정도의 꽃이 핀다. 끝에 있는 꽃이 제일 먼저 개화하며 아래를 향해 개화해 간다. 꽃대가 올라오면 종자가 필요하지 않으면 바로 잘라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개화 과정은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개화 후 생육이 불량해지고 심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덫

개화 후 여름이 다가오면 큰 덫이 만들어진다. 덫의 내부 색깔은 햇빛에 의해 착색이 되는 유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덫의 내부 착색은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아름답다. 햇빛이 부족하면 색깔이 없어지거나 식물이 가늘어진다. 덫의 색깔은 진한 빨간색, 연분홍색 그리고 녹색 등이 있다.

파리지옥의 벌레 잡는 덫의 작용은 놀라운 현상이며,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은 세상에서 가장 놀랄만한 식물 중의 하나는 파리지옥이라고 하였다.

덫의 일반적인 작용은 다음과 같다. 덫은 조개껍데기처럼 2개의 열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열편의 외부 가장자리에는 가시가 창살처럼 나란히 나 있다. 덫이 열려있을 때 2개의 열편은 안쪽으로 오목하게 되어있다. 각각의 열편 위에는 중앙 가까이에 방아쇠 역할을 하는 매우 민감한 3개의 감각모(感覺毛)가 있다. 벌레가 덫에 들어가서 방아쇠 역할을 하는 감각모를 건드리면 마치 한입에 덤벼들어 무는 것처럼 순간 덫이 닫힌다. 덫이 닫히는 데는 약 0.5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동작이 빠른 벌레라도 꼼짝없이 잡힌다. 신기한 사실은 덫에 들어간 벌레가 감각모를 한 번 건드리면 덫이 닫히지 않고, 2개의 감각모를 건드리거나 혹은 1개의 감각모를 2번 이상 건드리야만 덫이 닫힌다는 것이다.

파리지옥은 열편의 외부 가장자리의 가시 기부에 있는 선세포(腺細胞)에서 달콤한 즙이 분비된다. 즙에 의해 개미, 파리, 모기 등과 같은 벌레가 유인되어 덫에 들어간다. 덫은 바로 단단히 닫히지 않는다. 다윈은 파리지옥은 작은 벌레를 먹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작은 벌레가 덫에 잡히면 서로 맞붙어 있는 가시를 통해 탈출하도록 했다고 추측하였다. 보다 큰 벌레가 잡히면 탈출하기 위해 몸부림칠수록 열편은 더욱 단단히 죄이고 덫을 밀폐해 버린다. 그리고 덫의 가장자리에 있는 가시들이 벌레가 빠져나가지 못하



도록 지그재그로 겹쳐져 창살 모양을 만든다.

덫에 잡힌 벌레는 서서히 소화되어 흡수된다.

소화와 흡수

열편의 내부 표면 위에는 붉은 빛을 띤 작은 알갱이들이 많이 흩어져 있다. 이 알갱이들은 소화액을 만들어 내보내는 선세포 덩어리다. 덫을 밀폐한 후 압박하여 벌레의 몸으로부터 체액이 나오면 그것이 자극이 되어 선세포에서 벌레를 분해하는 소화액이 왕성하게 분비되어 벌레의 몸을 녹인다.

벌레가 잡힌 덫을 벌려 보면 벌레가 소화액에 뒤범벅이 되어 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소화가 된 벌레의 몸은 선세포의 표면에 있는 선세포에 의해 식물체 내로 흡수되어 주변 환경으로부터 공급 받지 못한 양분을 체내에 공급하여 파리지옥이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하고 개화 후 종자가 잘 맺히도록 한다.

소화액에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벌레의 몸을 재빠르게 분해하는데 이 과정은 4~10일 정도 계속된다. 양분 흡수가 다 끝나면 덫이 다시 열린다. 열려진 덫 안에는 소화되기 힘든 단단한 부분들만 찌꺼기로 남아 있다. 이러한 벌레의 찌꺼기는 비와 바람에 의해 없어진다. 파리지옥은 다시 덫을 열고 먹잇감이 들어오기를 기다린다.

각각의 덫은 1~3회 정도의 포충 활동을 한다. 그 후 덫과 잎자루는 검정색으로 변하고 죽는다. 열편의 끝으로 덫을 자극하여 개폐시킨 것이라면 6~7회 반복할 수 있다. 죽은 덫과 잎자루는 잘라내어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포충현상(덫이 오무라드는 동작)을 보기 위해 덫을 자주 건드리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충격을 받으므로 주의해야하며 심하면 죽을 수도 있다. **G**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육식물(多肉植物)

다육아~~ 넌 어떤 식물이니?

다육은 인기가 많다. 작은 토기화분이나 도자기화분에 앙증맞게 자리하고 있는 다육을 보면 절로 손이 간다. 화려한 꽃을 피우거나 강한 향기를 만들지 않아도 그 독특한 모양에 끌린 것이다. 다육식물은 좋아하지만 수많은 종류의 다육식물에 대한 정보는 없다. 하다못해 이름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에 가든인에서는 다육의 멘토, 다육전문가인 호자원대표 강석정님께 다육이야기와 다육키우기의 비법을 배워보고자 한다. 6월호엔 다육식물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들어보자. 글·사진 | 강석정 호자원 대표



다육식물이란?

다육식물(Succulent, 多肉植物)이란 비교적 강수량이 적은 건조한 지역이나 건조한 고원지역에서 줄기가 잎, 뿌리에 다량의 수분을 저장하는 저수조직이 발달해 건조한 기후에도 생존할 수 있도록 발달된 식물을 말한다. 이와 같이 저장기관에 수분을 저장함으로써 비가 적은 건조기엔 잎의 기공을 닫고 휴면에 들어가기도 하며, 장시간 물이 없어도 체내 저수기관의 수분으로도 생존이 가능하다.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은 게으른 사람이 잘 키른다는 말도 일반 관엽식물처럼 물을 자주주지 않아도 잘 자란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과도한 관주로 의외로 많이 죽는다.

다육식물의 분류

다육식물의 분류는 잎이나 줄기, 뿌리 등 어느 부분이 다육질이 높은지 분류하기도 하며 봄부터 가을까지 잘 자라는 하형인지 아니면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잘 자라는 동형인지 성장하는 계절에 나누기도 한다. 또 소형종인지 대형종인지 자라는 크기로 구분되기도 하며, 다육질의 정도도 고다육인지 아니면 저다육인지로도 구분된다. 또 강한광선을 요구하는 것이 있고 약간 차광된 광선을 좋아하는 것도 있다.

다육질의 분류

다육질	잎이나 줄기, 뿌리 등의 부분에 다육질이 높나?
성장계절	봄부터 가을까지 자라는 하형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자라는 동형
크기	소형종, 대형종
광선	강한광선, 차광된 광선
다육질 정도	고다육, 저다육



다육식물의 생육조건을 알면 다육키우기가 쉬워진다.

1.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햇빛을 좋아한다.
2. 통풍을 좋게 해준다.
3. 한낮의 강한 직사광선은 차광해 준다.
4. 밤과 낮의 기온차가 10~15℃이면 좋다.
5. 겨울철엔 되도록 햇빛을 많이 쬐이게 하고 특히 동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6. 장마철과 무더운 삼복더위의 혹서기의 물은 스프레이 정도만!!
7.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의 베란다는 통풍만 시켜준다면 좋은 장소가 된다

대부분의 다육식물의 잎은 표면이 표피층으로 덮여 물의 증발을 막고 있으며 CAM식물(Crassulacean acid metabolism: Crassulacean 유기산 대사, 낮에는 기공을 닫고 탄산 고정을 하지 않고 야간에 탄산 고정을 하는)이 다육식물에는 많다. 돌나물과(Crassulaceae), 선인장과(Cactaceae), 변행조과(Aizoaceae), 알로에과(Aloaceae) 등은 대부분의 종이 다육화하였고 일부분만 다육화한 경우도 있다.

다육의 진화

용선란이나 리튬스(Lithops), 코노피툼(Conophytum)과 같이 잎이 두꺼운 것이 있고 선인장과 같이 줄기가 구형으로 변했거나 잎이 가시로 퇴화한 경우도 있다. 하워시아(Haworthia)처럼 잎이 다육질이며 윈도우(Window)라 불리는 잎끝의 투명 창만을 지상부에 내밀



녹귀란(Sectum hernandezii)



오십령옥(Fenestraria aurantiaca)



리튬스(Lithops)



축전(Conophytum)



금령(Argyrodema delaetii)



체리튬스 필란시(Cheiridopsis pillansii)



조몽철초(Echeveria "Akinoshimo" CRISTA)



아악무(Portulacaria afra f. variegata)



흥페페(peperomia graveolens)



세지알(Agave victoriae-reginae 'Compact')



캉캉(Echeveria "Party dress")



신동(Crassula 'Sindou')



녹탑(Crassula pyramicalis)



용동자금(Coylexton kadsmithiensis variegata)



염좌(Crassula ovata)



칸테(Echeveria cante)



특염옥점(Echeveria runyonii "Topsy-turvy")



아테니움(Adenium obesum)

생김새도 다르고 색도 다양한 다육식물. 말발굽을 닮은 것, 공발을 닮은 것 등의 희안함도 있고, 탑을 쌓듯 층층이 잎을 포개 다육도 있다. 큰잎, 작은잎, 두꺼운 잎, 뽕죽한 잎 등 종류만큼이나 모양도 제각각이다.

고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있다.

Caudiciform라 불리는 다육식물 부류는 바오밥나무(Baobab : Adansonia)나 사막의 장미로 불리는 Adenium과 같이 줄기하부가 비대해지는데 이 부분을 Caudex라 한다.

이러한 여러 분류의 다육식물은 특징도 다양하고 특성만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키우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취미원에는 요즈음 뜨고 있는 원예치료의 소재로서 아직 우리에게 낯설지만 분케 용이나 디스플레이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세덤(Sedum)과 같이 옥상정원에 이용되기도 한다. 다육식물은 여러 나라에서 취미로 재배되며 하나의 취미생활 장르로 성립하고 있다.

다육식물의 분포

다육식물의 원산지는 온대에서 열대까지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 바위썬(Sempervivum)이나 세덤(Sedum) 등은 추위에 강하여 우리나라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다. 건조한 시기에 휴면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에 휴면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다육식물은 특성이 다양하여 재배환경도 쉬운 것부터 비교적 까다로운 것까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환경에서 잘 자라므로 잘 기억해 두면 재배에 용이하다.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햇빛을 좋아한다. 하지만 창마 뒤의 고온 다습한 시기나 한낮의 강한 직사광선에 타서 죽거나 화상을 입어 관상 가치가 없어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통풍을 좋게 하고 한 낮엔 약하게 차광을 해주어야 한다. 밤과 낮의 기온차가 10~15℃ 이면 좋다. 한낮의 온도는 18~25℃가 적당한데 우리나라의 기나긴 장마철과 무더운 삼복더위의 혹서기엔 물은 스프레이 정도 만으로 촉촉하며 통풍에 신경을 써 주어야 한다. 겨울철엔 되도록 햇빛을 많이 쬐이게 하고 특히 동상에 주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다육식물은 건조에 적응했다면 어느 정도의 추위엔 견딜 수 있지만 영하의 날씨에 동사하면 끝이다. 가정의 취미원에서는 8℃ 이상은 유지해 주는 것이 좋은데, 종에 따라 12℃ 이상 되어야 하는 것도 많다.

봄과 가을엔 거의 모든 다육식물이 잘 자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특히 실내에서 장기간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햇빛이 잘 드는 아파트의 베란다 같은 곳은 통풍만 시켜준다면 좋은 장소가 될 수 있다. (7월호에 이어서 연재) **G**

다음 회 기사는?

다육식물 재배준비물
다육식물의 용도와 물주기
다육식물 구입요령

STEP by STEP

국민다육 정아번식하기

많은 사랑을 받는 정아는 키우기도 어렵지 않고 번식도 남다른 노하우 없이도 잘 자라는 다육식물이다. 가격이 저렴해 다육에 입문하면 먼저 도전하게 되는 식물이다.

잎꽃이를 해도 되고 전체 형태의 뿌리를 잘라 다시 꽃아 번식 시켜도 된다.

물은 잎이 쭈그러드는 게 보이면 준다라는 생각으로 주면 된다.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을 많이 볼 수 있는 곳이면 좋다. 정아는 동그랗게 키워야 예쁘다.



1. 정아를 자른다.



2. 전체형태로 번식할 경우, 뿌리는 적당한 길이로 잘라준다.



3. 정아의 다양한 번식형태. 전체모양으로, 잎으로, 자루가 나온 형태로 번식한다.



4. 정아를 파놓은 상태-반나절 정도 그늘에 말려 약간 수분을 날려주면 좋다.



5. 뿌리내리기. 잎을 따서 화분에 올려놓으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린다



6. 뿌리를 내려 색이 올라와 정아형태가 보인다.

세계시장에서 각광 받는

우리꽃 코레우리

우리드림 시리즈

세계최초로 흰색, 분홍, 빨강, 노랑, 주황까지 분화용은 물론 정원용의 최고의 상품입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다양한 화색으로 한번 식재로 일년이 행복합니다.

품종	화기(월)	화색	초장(cm)	내한성(℃)	생상규격(cm)	판매단가(원)	비고
우리드림	5~11	백, 적, 황, 주, 분	50내외	-10(Zone6)	12 비닐 20자용급수화분 30자용급수화분	1,500 12,000 20,000	



담당전화 : 010-3288-2844, 010-5018-9063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uriseed.com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가든조아 매장 OPEN

드디어 4/14일 가든조아가 오픈한 매장입니다. 기존 온라인과 함께 병행하여 이전 우리꽃농장내에 가든센터가 생겼습니다. 야외 정원을 위한 정원용품, 가든도구, 텃밭용품 등과 가정에서 즐길 수 있는 새색재배기, 화분과 아쟁화, 세소종자 등 원예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재가 있습니다. 아끼지키한 소품, 엔틱 가구, 향초, 선물용 상품들도 함께 가든조아에서 만나보세요. 또한, 계절 시기에 따라 다양한 식물 모종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이 원드사다면 가든조아 온라인 쇼핑몰로도 구매가능합니다.

연락처 : 031-634-7990 소풍물 : www.gardenjoa.com

국화 500일간 사랑에 빠지다.

우리꽃 국화분재 교실

함평나비축재의 신화, 이순영소장님이 이끄는 감동의 패밀리, 그들 강의 2주에 한번, 국화에 빠진다. 국화 분재는 일반적인 나무 분재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1년으로 일생을 경험하는 국화분재의 사랑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모집안내

- 모집인원 : 약 30명
- 수강비 : 50만원
- 교육일정 : 5~11월(매주 목요일)
- 교육시간 : 3시~5시(각주 2시간)
- 교육장소 :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87
- 담당전화 : 010-3117-2262, 010-8636-2664
Tel. 031-634-7990
Fax. 031-634-7991 www.uriseed.com

국비지원 수강생 모집

아름다운 우리꽃 정원에서 펼쳐지는 화훼원에 특강!!!
전문가들이 지도하는 강의·실습으로
정원조성 기본완성



- 종자의 파종, 육묘, 정원소재 식물의 재배와 육성에 필요한 기초원예학의 이론학습과 실습 위주 교육
- 생활원예의 지식과 경험을 학습하는 과정으로 실내정원, 베란다정원, 채소가꾸기 등 실습교육 (이천시 모가면 1만3천평 우리꽃농원 현장강의)

그린아카데미 5기 생활 원예 특강반 모집

등록상담 : 031-634-7990, 010-3117-2262

본과정은 국비지원 과정으로 자부담이 적어 조기마감되오니 반드시 사전예약을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품종을 자랑하는

원추리 *Hemerocallis*



꽃나리(백합)를 닮았다. 다섯잎, 여섯잎의 꽃잎이 화려하면서도 익숙하다.

원추리시카고, 원추리탕, 원추리크리스마스, 원추리체리는 붉은 꽃잎이 세련되고, 원추리날크레인은 자주색의 꽃잎이 고급스럽다. 원추리캔디, 원추리, 원추리스텔라, 원추리진주는 노랑이 사랑스럽고, 원추리버피, 원추리썸머와인의 분홍이 우아하다.

꽃송이가 크고 힘이 느껴지는 원추리는 영명으로 Daylily라 부른다. 하루 동안만 꽃을 피운다는 뜻에서 유래됐다. 한국과 중국, 일본이 원산지로 현재,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개량된 품종이 3만여 종의 재배변종이 있다. 사랑을 받는 종이라 계속해서 변종이 진화발전하고 있다. 원추리 순은 나물로 한약제로 쓰임새가 다양하다.



자주와 분홍의 경계인듯
매혹적인 원추리썸머와인



익숙한 왕원추리



자주빛이 고급스런
원추리날크레인



노랑과 주황의 어울림이
멋진 원추리 퍼플워터

원추리 재배관리

상상을 초월하는 다양한 품종을 자랑하는 원추리는 우리땅에서 오랜 시간 같이했다. 반음지의 아파트나 고급정원에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재배관리법

1. 약간의 습기가 있는 장소에 적용하면 좋다.
2. 아파트 혹은 낙엽수림의 반음지에 식재하면 좋다.
3. 화색이 다양해 고급정원의 연출에도 그만이다.
4. 생육이 대체로 강건해 어떤 지역에서도 잘 적응한다.
5. 진딧물이 많이 끼는 단점이 있다. 품종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품종선택시 고려할 사항이다.

재배중점

습기가 있는 비옥한 토양을 좋아한다. 하지만 배수가 안좋아 물이 고이는 곳은 좋지 않다. 너무 음지는 잎의 생육은 괜찮으나 꽃의 개화수가 현격히 줄어든다. 반나절 해가 드는 정도의 반음지 이상에 심으면 좋다.

원추리는 보통 야행성 개화를 하는데, 늦은 오후에 피었다가 다음날 오전 햇빛이 강해지면 점차 오므라드는 특성이 있다. 가로등 밑에 심으면 유용하다. 최근품종은 16시간 이상 피는 종이 개발되고 있어 습기장자리나 혹은 오후 직사광선이 없는 정원, 아파트화단 등에 심으면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스텔라 품종은 5월부터 사리가 내릴 때까지 계속해서 꽃을 피우는 특성이 있어 도로용에 좋다. **G**

원추리종자는 우리꽃에서 구할 수 있다.

상담문의 031-634-7990

건강에 최고, 다이어트에 최고

토마토

Lycopersicon esculentum

울퉁불퉁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토마토를 생각하니 갑자기 애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떠오른다. 빨간 토마토가 익어가는 철이다. 텃밭에 4월정도 심었다면 알알이 열린 토마토가 탐스럽게 열리고, 잘 관리하면 여름내내 따 먹을 수 있다. 토마토는 생으로 요리로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특유의 냄새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토마토는 건강함을 표현하는 과일로, 채소로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토마토가 익어 가면 의사 얼굴이 파래진다는 서양속담이 있듯 토마토가 많이 나는 계절엔 아무래도 더 섭취하게 되어 건강에 파란불이 들어옴은 당연하다.

먹으면 건강 up 다이어트 up~~

빨간 토마토가 제철이다. 어디든 쉽게 구할 수 있다. 방울토마토, 대추방울토마토, 일반 큰 토마토 등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토마토다. 가지과에 속하는 일년생 반덩굴성 식물열매이며 남미 페루가 원산지다. 흔히 토마토를 두고 과일인지 채소인지 궁금해 한다. 자료를 찾아보니 미국 대법원에서 채소라 판결내린 판례가 있다. 아무튼 채소든 과일이든 토마토는 두 가지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어 생으로 섭취해도 좋고 채소처럼 요리를 해서 섭취해도 좋다. 편할 대로 매일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이고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암예방, 노화방지에 좋다.식이섬유가 풍부해 배변에 좋고, 다이어트 식품, 뇌졸중, 심근경색 예방, 혈당저하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효과만점인 채소다.

내 몸이 좋아지는 건강한 토마토

내 몸이 좋아지는 건강한 식재료 중 단연 으뜸이다. 먹기도 간편하고 여러 요리법이 나와 있어 활용도도 높다. 음료, 요리 등 부궁부궁하다. 우리나라는 생으로 먹거나 주스, 파스타 소스, 샐러드 등이 전부일 정도로 협소하지만 토마토가 주재료나 양념으로 사용해진 나라의 요리방법은 너무나 다양하다. 비닐하우스에서 일년 내내 재배해 늘 만나볼 수 있지만, 5월부터가 사먹기에 부담이 덜하다. 아무래도 겨울엔 좀 비싸 망설이게 된다. 토마토 특유의 냄새를 싫어하면 대추방울토마토를 권한다. 껍질도 얇고 차지고 달달해 애들도 잘 먹는다. 하루에 주먹만한 토마토 두 개만 먹으면 우리가 섭취해야 할 양의 영양소를 대부분 섭취할 수 있다 한다.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식이섬유, 단백질, 당질, 회분, 칼슘, 철, 인,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아미노산, 루틴, 등이다. 빨갱게 익은 토마토에 영양성분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겨울이라면 몰라도 제철엔 빨간 토마토를 선택해서 먹는 게 훨씬 좋다. 빨간색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 때문인데,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등 항산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

다. 최고의 흡수율은 익히 알다시피 그냥 먹는 것보다 가열해서 먹는 게 좋다. 라이코펜이 토마토 세포벽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에 흡수가 잘된다. 토마토소스에 들어 있는 라이코펜의 흡수율은 생토마토의 5배에 달한다 하니, 필히 익혀서 먹길 바란다. 하지만 수시로 손가는 대로 먹을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요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부담이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택하면 좋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과 요리하면 흡수율이 더 좋으므로 기름을 이용하는 요리를 하면 좋다. 토마토를 익히면 여러 요리가 간편하게 연결된다. 끓는 물에 껍질이 벗겨질 정도로 담갔다가 찬물에서 씻기면 잘 벗겨지는데, 이를 으깨면 토마토퓨레, 양념을 하면 토마토소스, 갈아먹으면 주스가 된다. 우선은 퓨레나 소스를 만들어놓으면 생선요리나 면요리에 다양하게, 또는 소스로 활용할 수 있다.

토마토의 효능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토마토는 그 이유가 있다. 바로 여러 질환을 예방할뿐더러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한다.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효능이 많다. 항암효과(유방암예방, 전립선암예방, 소화기계통의 암예방), 고혈압 예방, 뇌졸중·심근경색 예방, 골다공증예방 노인성치매예방, 피부미용(기미예방, 잔주름예방), 다이어트효과, 소화촉진, 신진대사촉진효과, 혈당저하, 임태해결, 변비예방, 당뇨예방, 부종예방, 방광염증상완화, 스트레스해소 효과, 기력회복, 등 우리 몸 구성구석에 영향을 미친다. 좋아하지 않는 분야라면 우선은 좋아하고 즐겨 먹을 일이다. 왜 의사의 얼굴이 파래지는지 그 이유를 알고도 남음이다.

토마토 활용도 높이기

토마토의 활용도를 높이보자. 우리의 토마토 요리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소스를 만들어놓으면 그 활용도가 높아진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도 만들기 쉽고, 파스타 요리도 쉬워진다. 토마토소스에 밥을 쓱쓱 비벼먹어도 좋고, 고기나 생선을 찍어먹어도 그만이다. 여기에 매운맛을 첨가하면 맛갈나게 게운하게 먹을 수 있다. 아직은 판매하는 소스를 대부분 사용하는데, 건강한

요리를 생각한다면 직접 도전해도 좋다. 판매하는 것은 아무래도 첨가제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 폭 익힌 토마토를 으개 채에 내려 졸인 것 토마토퍼레
- 토마토퍼레에 조미(소금, 향신료)한 것-토마토소스
- 토마토소스를 강하게 조미하고 단맛을 낸 것 토마토키칩

이 세 가지만 만들어놓으면 도깨비방망이 마냥 넣기만 하면 요리가 똑딱 나오리라 본다. 간단하게 슈퍼푸드인 토마토의 정보를 알아봤다.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정보지만, 가든인 독자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정리해 봤다. 토마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은 토마토탐행본을 권한다.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 '난 토마토 절대 안 먹어'는 재밌고 재미 있는 책이다. 초등저학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길 권한다. 토마토를 잘 먹을 수 있는 아이가 될 것이다. **G**



텃밭 잎줄기채소 언제 심어서 언제 먹을 수 있나? 상추

누구나 좋아하는 상추. 상추는 맛도 좋고 활용도도 좋아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잎채소다. 기르기도 어렵지 않고, 계속해서 잎을 따먹을 수 있어 베란다의 상자텃밭이나 빈 화분, 공터나 분양받은 텃밭에 조금만 심어도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채소다. 가든인에서 몇 번 다루기도 했지만 6월호에는 이재욱 텃밭 박사님을 따라 상추 파종, 시기, 수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사진 | 이재욱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연구팀 농학박사



Lactuca sativa
garden Lettuce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은 50여종이 넘지만, 그중에서도 손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쌈 채소를 중심으로 한 잎줄기채소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파종(또는 모종 정식)이 가능하며, 수확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언제까지 수확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다. 따라서 도시의 초보 농사꾼에게 잎줄기채소 중 대표적인 작물 14종에 대해 실제로 재배가 가능한 시기를 제시하여 작물과 재배시기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대부분의 잎줄기채소 모종은 4월 상순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는 대형 마트나 재래시장, 농협 등의 특판장,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구입

할 수 있기 때문에, 봄철에는 씨를 뿌리든지, 모종을 심든지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지만, 가을에는 8월 중순부터 9월 상순경까지 배추 모종과 상추 모종 일부만 공급이 되고 있으므로 그 밖의 채소는 씨를 뿌려서 재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봄철에는 씨앗과 모종, 가을철에는 씨앗을 중심으로, 언제 씨앗을 뿌리거나 모종을 심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확이 가능한지를 순별로 제시하여 초보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재배의 기본이 되는 종자의 보관 방법과 발아 테스트, 재배 포장에서의 실제적인 파종 깊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텃밭의 가장 대표적인 채소인 상추의 작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채소 종자의 보관 및 간편한 발아 테스트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 종자의 수명은 대개 냉암소에서 보관할 경우에 2년을 보증하고 있는데, 보관을 잘하면 이보다 훨씬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종자는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관 중에도 미미하나마 호흡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장 양분을 소모하게 된다. 호흡은 온도와 습도가 높을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하는 것보다는 가정용 냉장고의 냉장실(4~5℃)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냉장실보다는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냉장실은 습도가 80% 이상이 되므로 종자의 호흡이 증가하여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냉장고에 저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건조가 잘 된 종자를 냉동실(-20℃ 정도)에 넣어두면 훨씬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종자의 수분 함량이 높으면 얼어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잘 말린 종자를 제습제와 함께 밀봉해서 보관해야 한다.

구매한지 2년 이상 경과된 종자, 사용하다 남은 종자, 이웃으로부터 얻은 종자는 간단한 발아시험을 거친 후 파종하는 것이 좋다. 발아시험은 집이나 반찬 보관용기 등을 활용하여, 티슈 또는 키친타월을 깔고 그 위에 종자를 10립 정도 뿌리고 나서 분무기로 물을 흠뻑 적셔서 실온에 두면, 상추 종자는 24시간, 배추 종자는 48시간 이내에 뿌리가 발생한다. 3일 이내에 뿌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발아율이 30%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새 종자를 구입하도록 한다.

텃밭에서의 실제적인 종자 파종 깊이

종자는 광발아종자와 암발아종자가 있는데, 광발아종자는 깊게 묻히면 발아가 되기 어려우며, 파종 깊이는 종자 두께의 2~3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럴 경우, 상추 종자는 1~1.5mm, 배추 종자는 3~5mm, 무 종자는 5~7mm 두께로 흙을 덮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이론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실험 조건에서는 가능하지만, 변화무쌍한 포장 조건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종자를 이론대로 알게 파종할 경우에는 물을 주거나 비가 올 때 덮어 준 흙이 씻겨 내려가 종자가 햇빛에 노출되기 때문에 발아가 되기 전에 말라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실제로 상추 종자를 종자 두께의 60배인 3cm 깊이로 파종하여도 발아가 하루 이를 지연될 뿐 싹이 올라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파종 깊이보다는 종자가 수분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간직하느냐에 따라 발아율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소 종자는 너무 얇게 흙을 덮는 것보다 1~2cm로 다소 두껍게 덮어 주는 것이 안전하다. **G**

상추 lettuce

상추 품종 및 생육 특성

텃밭 재배 추천 품종 :

- 잎 상추: 치마상추(청치마), 적치마, 포기상추(청쪽면, 적쪽면, 생체), 로메인상추(청로메인, 적로메인), 오크상추(청오크, 적오크), 치커리상추, 적삼각추 등
- 결구 상추: 앙상추, 미니케프로메인 등

- 상추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생장이 잘 되는 호냉성 작물로서 더위에 약하다.
-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는 파종 후 적산온도(積算溫度: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열량을 나타내기 위하여 생육 일수 동안의 일일 평균 기온을 합산한 것)가 1,700℃에 달하면 꽃눈이 형성되고, 해가 길어지면 추대가 촉진된다.
- 상추 종자는 채소 중에서 수명이 가장 짧은 편에 속하는데, 실온에서 2~3년 보관하면 발아력이 떨어지므로 밀봉하여 온·습도가 낮은 냉동실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여름철 기온이 25℃가 넘으면 발아가 극히 불량해지므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노지에서 재배하기가 어렵다.

파종 및 모종 정식 방법

적정 파종 밀도(재식 거리)

- 직파 : 줄 간격 20cm로 줄뿌림한 후, 파종 15~20일 후부터 솥내내기 시작하여 30일경부터는 최종적으로 20×20cm 간격으로 키운다.
- 모종 정식: 10×10cm 간격으로 정식한 후, 20일 정도 키운 후에 포기 채 솥내내어 최종적으로 20×20cm로 재배한다.

- 6월 상순~7월 상순 파종 시에는 고온으로 인해 생장 속도가 느리므로 40일 정도 재배하여 어린잎채소로 일시에 수확하여 이용하는 것이 좋다.

수확하기

〈잎 상추〉

수확 방법: 포기 수확(일시 수확), 갈임 수확(지속 수확)

수확소요기간

- 포기 수확 : 파종 후 30~40일, 정식 후 20~25일
- 갈임 수확: 파종 후 40~45일, 정식 후 25일경

완전히 전개된 잎 3~4매를 남기고 아래로부터 잎 따기 수확을 하면 2개월 정도 계속해서 수확할 수 있다.

- 4~5월 파종(정식): 파종 후 40(30)일 전후부터
- 6~7월 파종(정식): 30~35(30)일 전후(어린잎채소로 일시 수확)
- 8~9월 파종(정식): 파종 후 40(35)일 전후부터

- 수확은 주 1~2회, 하엽부터 순차적으로 하는데, 줄기 부분에 붙어 수확하는 것이 좋다.
- 수확 시에는 엽장이 20cm 이상 되는 잎만 수확하고, 전개된 잎 3~4매를 남겨야 광합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품질이 좋아지고 수량이 증대한다(사친 참조).
- 추대가 늦은 만추대생 품종(적산온도 2,500℃ 정도에서 추대를 재배하면 1개월 정도 더 수확이 가능하다).
- 장마철에는 폭우와 고온으로 인해 생육이 저조하고 품질이 떨어지므로 7월 중순 이전에 수확을 끝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구 상추〉

- 봄철 : 직파 시에는 파종 후 50~60일 정도, 모종 정식 시에는 40~50일 정도 후에 구가 단단해 지면 수확한다.
- 가을철 : 직파 시에는 파종 후 45~50일 정도, 모종 정식 시에는 35~40일 정도가 소요된다.

텃밭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추 품종



적축면상추



적치마상추



청치마상추



청로메인



적로메인



미니컵로메인



적오크상추



양상추



청오크상추

〈잎 상추 텃밭 작형〉 파종



〈잎 상추 텃밭 작형〉 모종 정식



〈결구 상추 텃밭 작형〉 파종



〈결구 상추 텃밭 작형〉 모종 정식



상추의 적정 수확 크기



적정 수확 크기



입을 알맞게 남김



입을 너무 적게 남김

gardenin
point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발아테스트

대상: 구매한지 2년 이상 경과된 종자, 사용하다 남은 종자, 이웃으로부터 얻은 종자

테스트: 발아시험은 컵이나 반찬 보관용기 등을 활용하여, 티슈, 또는 키친 타월을 깔고 그 위에 종자를 10립 정도 뿌리고 나서 분무기로 물을 흠뻑 적서 실온에 둔다. 상추 종자는 24시간, 배추 종자는 48시간 이내에 뿌리가 나오면, 3일 이내에 뿌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발아율이 30%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새 종자를 구입하도록 한다.

종자 파종 깊이

종자종류: 광발아종자와 암발아종자

외부환경의 영향이 없을 시: 종자 두께의 2~3배 정도가 적당

상추 종지는 1~1.5mm, 배추 종지는 3~5mm, 무 종지는 5~7mm 두께로
흙을 덮음

외부환경의 영향이 있을 시: 종자를 이론대로 알기 파종하면 물을 주거나 비가 올 때에만 손 훑어 씻겨 내려가 종자가 햇빛에 노출되어 발아되지 전에 말라버리는 경우 발생. 실제로 상추 종자를 파종 시 두께의 60배인 3cm 길이로 파종하여도 발아가 하루 이를 지낸될 뿐 싹이 올라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발아율을 높이려면: 파종 깊이보다는 종자가 수분을 얼마나 잘 흡수하고 간직하느냐에 따라 발아율이 크게 달라진다. 채소 종자는 너무 얇게 흙을 덮는 것보다 1~2cm로 다소 두껍게 덮어 주는 것이 안전



차병원 수목진단센터장의 으뜸교육 먹음직스러운 딱병

먹음직스러운 병이라니? 사진을 보니 정말로 불그스름한 덩어리가 딱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름이 붙었다니... 참 재밌는 이름이다. 귀에 쏙 들어오는 수목진단센터장님의 해석을 읽고나면 식물에 해를 입히는 병원균이지만 참 기억에 남는다. 이는 만큼 보인다고 했다. 식물을 키우는 가드너는 식물정보뿐만 아니라 병원균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식물을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다. 글 · 사진 | 충북대학교 수목진단센터장 차병원



해마다 이 무렵, 문득 고개를 들어 올려보았을 때, 가지마다 흰 쌀밥을 한 그릇씩 퍼 담고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햇살 밝은 날엔 더욱 그렇게 보이지요. 바로 이팝나무입니다(사진1). 다른 꽃들보다 앞서 피어 못사람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벚꽃이 잊혀질 즈음이면 소리 없이 피어 우리를 넉넉하게 해주는 꽃입니다. 벚꽃 같이 화사하지는 않지만, 소박하면서도 오히려 풍성해 보이는 꽃입니다. 저는 이 꽃을 보면 개인적으로 감탄과 연민을 느낍니다. 이름 참 잘 지었다는 감탄과, 보릿고개를 지나며 얼마나 배를 곯았으면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하는 연민을 말입니다. 정말 정이 넘치도록 한 그릇 가득 퍼 담아 놓은 이팝 같은 꽃입니다(사진2). 열른 달려들어 한 순가락 퍼먹고 싶게 만드는 꽃입니다. 그런데 식물에 나타나는 병 중에도 이와 비슷하게 먹음직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달래의 '딱병'입니다(사진3). 저는 이 이름도 이팝나무 못지않게 잘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먹음직스럽거든요. 딱병은 진달래와 철쭉, 영산홍 등에 잘 생기는 병인데, 때로는 동백

이나 마취목 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병든 부분이 부풀어 오르고 하얀 가루 같은 것으로 뒤덮여 마치 찹떡같이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팝나무 꽃만큼이나 먹음직스러운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린다고 하여 나무가 죽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든 부분이 기형이 되기 때문에 꽃의 수가 줄어들고 부분적으로 말라죽기도 하는 등, 나무의 생육을 위협한다기보다는 미관을 해치는 병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병에 걸린 진달래 잎을 벌미로 즐겨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먹는다는 말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딱병은 잎, 새순, 꽃망울 등 가지 끝부분의 연한 조직에는 모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로 잎에 많이 나타나는데, 5월 초순경부터 잎이나 새순의 일부 또는 전체가 두툼하게 부풀어 오르면서 연녹색의 부드러운 다육질 혹덩어리를 만듭니다. 부풀어 오르는 표면은 초기에는 반질반질하게 윤이 나기도 하며(사진4), 후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납작하지만, 일정치는 않고 불규칙적입니다. 후이 만들어진 잎은 대개 뒤틀리며 기형을 보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후이 아직도 연



녹색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사진5). 이 시기까지는 이것을 왜 '딱병'이라고 하는지 아직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후이 어느 정도 커지면, 부풀어 오른 표면이 흰가루로 뒤덮이며 먹음직스러운 찹떡의 모양을 합니다(사진3).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병 이름의 유래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딱을 만든 흰가루는 이 병을 일으킨 곰팡이의 포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얀 찹떡은 표면에 약간 붉은 빛이 돌기도 합니다(사진6). 그리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포자들이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포자들이 거의 날아가고 나면 후에 있는 병원균들의 기력이 떨어지며, 그 자리를 다른 잠균들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얗거나 분홍빛으로 먹음직스러웠던 후이 검고 어두운 색으로 변합니다(사진7). 하얗던 찹떡이 검은 딱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미라처럼 딱딱하게 말라 떨어집니다. 병원균은 병들어 떨어진 낙엽에서 월동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이리고 연한 부분들을 감염합니다. 봄비가 잦은 해에는 이 병이 많이 나타납니다. 올해 초에는 비가 적어 봄가뭄이 있는 듯했으나 후반에 비가 자주 내린 편이기 때문에 올해도 진달래와 영산홍에 딱병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로 통풍이 잘 안 되거나 해가 잘 들지 않는 곳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반면, 봄가뭄이 심하면 병 발생이 거의 없을 수도 있으며, 햇빛이 아주 잘 드는 곳 역시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병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병은 주로 봄에 나타나지만, 간혹 9월이나 10월에 가을비가 많이 오면 가을눈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철쭉류 딱병의 병원균은 딱병균(*Exobasidium* spp.)으로서 여러 종이 알려져 있으며, 철쭉류 식물을 죽이지는 않아도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조경용 식물인 철쭉류에는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obasidium*은 전에 말씀드렸던 바람둥이 '녹병균', 버섯류 등과 같이 담자균에 속합니다. G



1. 영산홍의 딱병. 2. 시간이 흐르면서 후의 표면에 붉은 빛이 돌기 시작함. 3. 후 표면의 병원균 포자들이 날아가고 나면 후는 어두운 색으로 변하며 딱딱하게 마름. 4. 이팝나무의 먹음직스러운 꽃송이. 5. 쌀알 같은 이팝나무 꽃잎들.

gardenin point 딱병의 방제는?



- 병든 잎과 줄기는 후 표면에 흰가루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제거하여 태우거나 땅 속에 묻는다.
- 철쭉류가 자라는 곳이 과습하지 않도록 물빠짐을 좋게 한다.
- 나무는 벌이 잘 드는 곳에 심으며, 너무 밀식하지 않도록 한다.
- 가지가 너무 많을 때는 적당히 솎아내어 통풍이 잘되도록 한다.
- 딱병이 자주, 그리고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잎눈이 트기 직전부터 바리톤 수화제, 만코지 수화제 등을 10일 간격으로 3~4회 뿌린다.

아이들이 만든 작은 정원

꽃이 있어 더 예쁜 여름철 초화류로 작은 정원을 만들자

6월은 여름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아닌 초여름인 6월은 식물이 생장하기에 좋다. 적당한 시기에 물만 주면 별탈없이 자란다.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 특히 아이들도 무난하게 키울 수 있다. 식물을 심어볼 기회가 없는 아이들에게 식물을 만지고 탐색하고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 식물사랑하는 맘과 함께, 직접 심어보면서 나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찾아가는 종자교실'을 만나보자. 이번에 진행한 프로그램은 여름철 초화류 심기다.

그 발걸음을 따라 가든인 독자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예쁜 꽃이 피는 초화류를 모아서 심어보자. 재활용용기도 좋고, 향아리뚜껑도 좋고, 빈화분도 좋다.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과 배수에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훌륭한 미니화분에 아이들의 정성을 더하면 키우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글 · 사진 | 서창남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국립종자원(원장 신현관)에서는 식물기르기에 좋은 본격적인 계절을 맞이하여 안양 별말초등학교와 익산 용성초등학교, 남산초등학교에서 여름초화 모아심기, 토마토기르기, 무궁화 꺾꽂이라는 주제로 기르기 체험행사를 가졌다.

여름초화 모아심기

여름철의 대표적인 초화류인 페튜니아, 꽃베고니아, 임파티엔스, 좁은잎백일초와 함께 일보기식물을 심어서 학생들의 개성이 듬뿍 담긴 자신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고 가꾸면서, 꽃기르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토마토기르기

여름철 과일채소의 대표적인 방울토마토의 학교 체험학습원에 학생 1인별로 한그루씩 심어서 7월부터 수확하여 시식하면서, 채소기르기의 즐거움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1 4월말 모종을 구입하고 알맞은 크기의 화분을 준비한다. 토양은 비옥한 원예용토와 일반 발효를 반으로 섞어 만든다.
- 2 흙을 반정도 화분에 채우고 비료를 흩어뿌린 후 흙으로 살짝 덮어준다.
- 3 줄기가 어느 정도 자라면 줄기와 잎 사이에서 결노이 나오므로 제거해준다.
- 4 지주를 세워 튼튼하게 기른다.



무궁화 꺾꽂이

올해 가지에서 꽃눈을 만들어 꽃이 피는 나라꽃 무궁화를 학교현장에서 직접 학생들 스스로 번식시켜서 개인의 화분에서 꽃을 피워, 식물기르기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1 4월 중순 잎이 아직 나오기 전에 가지를 7-8cm 정도 크기로 자른다.
- 2 모래가 담긴 화분에 1/3 정도 꺾꽂이 꽂는다.
- 3 필요에 따라 발근촉진제를 절단면에 묻혀 뿌리내림을 촉진한다.
- 4 한달 정도 지나면 잎이 나오기 시작한다.
- 5 가지 끝에서 새로운 잎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뿌리가 나왔으므로 비옥한 토양이 담긴 화분에 한 개씩 옮겨 심는다.
- 6 7월이 되면 가지 끝이 자라면서 꽃봉오리가 맺히기 시작한다.



gardenin
information

아이들이 심은 초화류와 관목, 덩굴식물 등의 정보를 모아봤다. 예뻐서 사오거나 심어온 식물들의 이름과 재배방법만 간략하게 알아도 초보 가드너가 되리라 본다.

임파티엔스-아프리카봉선화 임파티엔스는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다. 가지가 많고 봉선화처럼 수분이 많다. 우리나라의 봉선화와 비슷 한 점이 많다. 봉선화는 잎이 길고 겹꽃인 반면 아프 리카 봉선화는 잎이 짧고 동글며 홀꽃이다. 임파텐 스, 임파천스로 불린다. 학명: Impatiens walleriana Hook.f 영명: Busy Lizzie 분류: 봉선화과 원산지: 아프리카의 진지버르 서식장소: 온실 크기: 가지 높이 60cm 꽃말: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다. 사랑의 행복 재배방법 일맞은 발아온도는 20도 정도로 파종하면 10내지 15일이 이 지나면 작은 싹이 올라온다. 파종을 할 경우엔 12월 중 순에서부터 5월중순 중에 하면 된다. 밤이 시면 반드시 햇 빛이 필요하다. 복토는 하지 않거나 피트모스로 알게 하는 것이 좋다. 옮겨심거나 손지르기를 해주면 통상하게 피지 나간다. 한여름엔 쇠약해지고 꽃이 적게 핀다. 직사광선을 직접 받는 곳보다는 바람이 잘 통하는 반그늘의 시원한 곳 에 화분으로 놓거나 장식하는 것이 좋다.	페튜니아 페튜니아는 화단이나 가로변 등을 장식하는데 대표적 인 꽃으로 팬지와 함께 널리 쓰인다. 남아메리카 원산지 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지에서 월동이 불가능하다. 시기 를 잘 조절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오래도록 꽃이 피어올 라 아름다운을 선사한다. 건조에는 강하나 과습, 오염 에도 매우 민감하다. 학명: Petunia hybrida 영명: Common Garden Petunia 이름: 페튜니아, 페쉴니아, 페투니아, 피투니아 분류: 가지과(Solanaceae) 페튜니아속의 한해 또는 여러해 살이들 원산지: 남아메리카 서식장소: 물이 잘 빠지고 햇빛이 잘 드는 곳 크기: 20~60cm 꽃말: 당신과 함께 있으면 편안해집니다. 재배방법 11월에 파종하면 3월중순~4월초에, 10월에 파종에 파종하 면 4월중순~5월초 사이, 3월중 · 하순에 파종 5~6월에 파 종한다. 파종 후 7~10일이면 싹이 올라온다. 잎이 2~3개 가 되면 이식하고 꽃이 필 정도가 되면 20~25cm 간격으 로 화단에 심는다.
--	---

아이비 흔히 보는 식물로 광채가 있는 진초록의 삼각형 잎 이 있는 덩굴식물이다. 공기정화효과가 있다. 가지에서 기근이 나와 다른 물체에 붙어 자란다. 게으른 가 드너도 잘 키울 수 있을 정도로 생명력이 짙다. 음 지에서 기르면 초록 잎을, 양지에서 기르면 잎이 붉 어진다. 많은 종류가 있다. 학명: Hedera helix 영명: English Ivy 국명: 사탕송악, 아이비 분류: 두릅나무과원산지: 유럽, 스칸디나비아반식 방법: 삽목, 기근식물 크기: 30m 꽃말: 행운이 함께하는 사랑 재배방법 겨울에도 월동이 되는 식물이다.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기 른다. 통풍이 안되고 습이 많으면 병충해가 생긴다. 물은 분홍이 완전히 마른 후에 준다. 번식은 4~10월에 꺾꽂이 로 한다. 줄기를 10cm정도 잘라 아랫잎 2~3장을 따내고 모래에 꽂아놓으면 뿌리가 내린다. 줄기나 잎에 독이 있으므로 줄기나 잎을 자를 때는 장갑을 끼거나 적어도 손을 깨끗하게 씻는다.	꽃베고니아 가든인 독자라면 베고니아 화분 한두개정도는 키워왔 을 것이다. 일년 내내 꽃이 피는 베고니아는 꽃색또한 다양한 사탕방은 식물이다. 학명: Begonia semperflorens 영명: Wax begonia 국명: 사철꽃 분류: 베고니아과 원산지: 브라질반식 방법: 꺾꽂이, 씨앗 크기: 15~30cm 꽃말: 짝사랑, 친절, 정중 재배방법 성장이 왕성한 베고니아는 물기를 좋아하지 않아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선택하면 좋다. 하지만 흙은 가리지 않고 잘 자라 는 편이다. 해중에 대한 저항력이 좋다. 잎이 다육질이라 물을 너무 많 이 주면 안된다. 햇빛은 많이 볼수록 좋다. 통풍은 잘되는 곳 에서 키워야 한다.
---	--



두툽한 녹두 빈대떡과
막걸리 한잔을 생각나게 하는

녹두

예부터 식재료로 사용해 많은 요리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녹두빈대떡은 비오 는 날 큰 사랑을 받는다. 고소한 기름냄 새에 끌려 바삭한 녹두빈대떡을 먹어본 사람은 마음 어딘가 있을 추억을 엮어 내고 있으려나? 안완식박사님의 먹거리 이야기는 우리네 이야기와 역사, 재료법 까지 소상히 알려줘 알뜰함을 채겨준다. 6월호는 녹두다. 정마와 맞물려 있는 시 기다. 녹두를 구해 가족과 함께 빈대떡 을 만들어보자. 녹두이야기로 수다도 떨 어보자.

글· 사진 | 안완식 토종씨앗 대표



‘**녹두**’ 발은 웃머리다’라는 전북지방의 농사 속담이 있다. 녹두는 초세가 강하고 토질을 가리지 않고 잘 되기 때문에 같은 밭에서도 제일 위 쪽에 있는 척박한 곳에 심는다는 말 이다. 또 팔보다 만파에 견디는 힘이 더욱 강해 귀한 식품으로서 지 금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요즘은 중국에서 싸게 수 입이 되어 녹두를 팔아서 돈으로 만들려고 농사짓는 사람은 거의 없 다. 다른 곡식도 그렇겠지만 녹두는 더욱이 우리 민속음식과는 떼려 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청포묵이 그렇고 녹두빈대떡이 그렇다. 전남 나주군 다시면 가운데 우남 부락에서 50년을 넘게 살아온 김 정남(72세) 할머니는 이웃마을에서 시집은 이후로 시어머니가 불러 준 녹두를 지금까지 줄곧 심어오고 있다. 매년 있는 연중행사에 청 포묵이든 숙주나물을 갈려 쓰고, 속 아를 때 썰어먹는 녹두죽은 약 으로도 꼭 필요했다. 녹두는 예부터 심어 내려온 전설적인 작물로 팔이나 콩과 같이 전 국적으로 심어왔다. 대체적으로 경기, 충남, 전북 등 서부지방에 많

이 심었다. 팔은 경북지방에서 가장 많이 재배해왔던 것 같다. 녹두 는 원산지가 인도와 히말라야의 일부 지역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도에는 녹두의 야생종도 분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역사도 3,000년이나 된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도 재배역사가 꽤 오래 되었을 것으로 보이니 언제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었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가 없다. 토종녹두는 대부분 신품종에 비하여 크기가 작고, 녹색이지만 검은 녹색, 더러는 노랑 빛의 녹두도 있다. 토종 인 조선녹두는 54%가 탄수화물이며 단백질이 28%, 지방이 0.7%이 다. 그 외 비타민과 미량의 영양소가 들어 있다. 고려시대의 의학서 인 <향약구급방(1236년)>과 조선시대의 <동의보감(1611년)>에 ‘녹 두는 그 성질이 냉하고 맛은 달며 무독한 식품으로 기력을 보태 주 고 열독을 제거하며 중기를 다스리고 습독을 제거 한다’고 적혀 있 다. 또 ‘녹두는 몸을 차게 하는 성질이 강해 지혈임이나 냉증이 있는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녹두가 함유하고 있는 단백 질과 전분은 보습력, 유효 능력과 기포 형성력 및 겔 형성력이 크며





1. 곡성군 죽곡면의 한순덕 할머니가 시집을 때 가져와 심기 시작하였다.
2. 녹두 고투리가 익어가는 모습
3. 곡성군 옥과면의 오옥순 할머니가 시집와서부터 대물림하여 심었다.
4. 녹두의 고투리는 익어가는대로 수확한다.

투명성과 매끄러운 질감때문에 녹두빈대떡, 청포묵과 같이 맛있는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

처음으로 발견한 야생종 ‘돌녹두’

‘돌녹두’는 내가 우선 불인 이름이다. 우리나라에는 콩을 비롯하여 팥, 동부 등 재배종 이외의 야생종이 상당히 분포하고 있다. 그런데 녹두의 야생종을 발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 이창복 교수가 쓴 <대한식물도감>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돌녹두’란 결국 ‘야생녹두’라는 뜻으로 이름붙인 것이다. 야생콩을 돌콩, 야생동부를 돌동부, 또 야생배를 돌배라고 부르듯이 말이다. 잎이나 꼬투리 등의 외형이 모두 녹두와 비슷하고 녹두의 난알 모양과 특히 난알을 확대하여 보았을 때의 주름잡힌 그물모양의 무늬들이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종자의 색깔이 검은 녹색이고 꼬투리가 가늘고 종자가 훨씬 작고 덩굴성이라는 특성은 녹두가 녹색이고 종자가 작은 팔알만 하며 줄기가 곧게 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재배하지 않음에도 저절로 낫다가 저절로 죽어가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남아 있는 것이다. 녹두의 야생종이 깊숙한 우리 농촌의 논밭두렁에 자생되고 있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앞으로 좋은 연구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녹두빈대떡

김치, 불고기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3대 기호음식 중의 하나로 꼽히는 빈대떡의 어원은 빈자떡. 본래는 제사상이나 교자상에 기름에 지진 고기를 피는 음식으로 쓰였다.

재료 | 녹두 2컵, 맷쌀 ½컵, 돼지고기 200g, 소금 2작은술, 후춧가루 ¼작은술, 다진마늘 2작은술, 숙주 100g, 고사리 50g, 도라지 50g, 김치 100g, 소금 ½작은술, 굵은파 1뿌리, 식물성 기름

1. 먹이에 겹칠을 벗긴 녹두와 불린 쌀을 넣고 갈아질 정도로만 물을 부어 곱게 간다. 물이 너무 많아 질척하면 부칠 때 반죽이 퍼져 모양이 흐트러진다.
2. 납작납작 썬 돼지고기에 소금, 후춧가루, 다진마늘을 넣고 고루 양념한다.
3. 도라지, 고사리, 숙주를 삶아 소금, 참기름,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다.
4. 녹두와 맷쌀 간 것에 나물 무친 것과 김치를 섞어 골고루 저은 다음 소금으로 간을 맞춘다.
5.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뜨거워지면 반죽한 것을 한 국자씩 떠 놓아 둥글게 모양을 잡은 후, 밀간한 돼지고기와 얇게 어슷 썬 파를 얹고, 그 위에 다시 반죽을 얇게 덮어 준다. 가장자리가 바삭해지는데 맛있게 들춰보아 밑면이 익으면 뒤집어서 노릇노릇하게 지져낸다. 녹두부침은 약간 두툼하게 부치는 것이 맛있다. **G**

※ 녹두는 미지근한 물에 3~4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 손으로 비벼가며 겹칠을 말끔히 벗긴다.



1. 여러가지 녹두. 윗줄,울녹두, 조선녹두, 야생녹두(잡초형), 아래, 그루녹두, 질금녹두
2. 녹두 꽃은 노랑색으로 팥꽃과 비슷한 모양이다.
3. 녹두의 잎은 3매의 작은 잎으로된 겹잎인데 작은 잎은 계란형, 심장형이다.



생활 속의 민간요법

녹두는 몸 안에 생긴 열독을 없애 주며, 염증성 질환을 소염시키고 숙취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강한 해독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물중독을 쉽게 풀어준다. 약물중독에는 녹두를 갈아 생즙을 마시는 것이 좋으며 약물중독으로 만성 발진이 생긴 경우에는 녹두죽을 꾸준히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녹두는 피부질환에도 효험이 있다. 땀띠에는 녹두가루를 뿌리고 수포나 농포가 생겼을 때는 녹두죽을 먹는 것이 좋다. 또 녹두는 여름철 무더위에 많이 나는 어드름과 종기를 고치기도 한다. <식료본초>에도 피부를 아름답게 하려면 녹두를 꾸준히 먹는 것이 좋다고 써어 있을 만큼 피부질환에 효과가 좋다. 또 녹두는 열을 내리고 독과 종기를 풀어주는 해독작용과 해열작용이 크다. 이밖에도 갈증과 위장의 열 때문에 생기는 입냄새를 없애주며, 설사를 그치게 하고 소변을 원활하게 배설시키는 작용도 한다. 그렇지만 저혈압이나 맹장이 있는 사람이 피로할 때 먹으면 오히려 원기가 떨어지며, 설질이 차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

첫번째 이야기

정원 디자인 준비 작업하기

정원은 왜 디자인을 해야 할까? 정원꾸미기에 관심은 많지만 디자인은 고민한다. 그저 예뻐서 심고 가졌던 정원보다 디자이너의 손길을 탐한 정원이 더 편안하고 안정적이며 멋스럽기까지 함을 느낀다. 정원디자인에 관심 많은 가든인 독자께 한국정원문화협회 부회장 임춘화와 함께하는 '내 손으로 직접 주택정원 디자인하기'를 6월 부터 5회에 걸쳐 기고할 예정이다. 첫 번째는 '정원디자인 준비 작업하기'다. 글·사진 | 임춘화 한국정원문화협회 부회장



1회차

정원 디자인하기 위한 준비
작업하기

2회차

정원의 레이아웃과 공간
디자인 하기

3회차

정원에 어울리는 꽃과
나무 고르기

4회차

정원에 어울리는 식재
디자인하기

5회차

정원에 어울리는
정원장식품 배치하기



1. 정원 디자인이 왜 필요한가?

정원 디자인은 한 마디로 사람들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해 부지 및 그 지상물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예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정원 디자인은 사람과 자연을 매개해 주는 것으로서 원예의 바탕에 예술과 공학을 엮어 건물과 같은 기능적 건축물과 그 주변을 둘러싼 자연적 형태와 질서를 조화시킨다. 공간적 이용을 주된 요소로 하므로 도시 외곽의 대규모 정원에서도 도심의 소규모 주변 공간, 개인 정원에 이르기까지 식물이 살 수 있는 토양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대상으로 한다. 가든은 자연과 더불어 그 안에서,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디자인에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매우 철학적인 주제가 늘 녹아 있어야 한다.

자기 집을 나름대로 예쁘고 기능성 있게 꾸미는 데는 꼭 실내 인테리어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마찬가지로 자기 집의 마당에 수목과 초화를 배치하고 적당한 오브제를 설치하는데 무슨 거창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은 필요없다. 생동하는 기쁨과 과감한 도전정신보다 중요한 요소는 없다. 그러나 가구를 배치하고 벽지를 바르며 적당하게 공간을 분할하는 실제 작업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마음에 안들면 다음 날이라도 뜯고 철거하여 새로 하면 되고 금방 다시 뿔아 올길 수 없다. 자라서 확인할 때까지 시간도 필요하고, 재배치하고 싶을 때는 이미 적당한 계절을 넘긴 터라 고치기 위해서는 다음 해를 기억하기 일쑤이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다. 예술, 과학 및 자연은 디자인된 가든과 경관을 통해 표현되는 원에 속에 가장 잘 섞여 있다는 말은 가든과 가든 디자인의 속성을 가장 잘 대변해 준다. 풍성하게 개발된 초화 화단과 수목의 식재는 시야의 미를 가장 극대화해 주지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식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재구성에 원에 생물학적 경험이 녹아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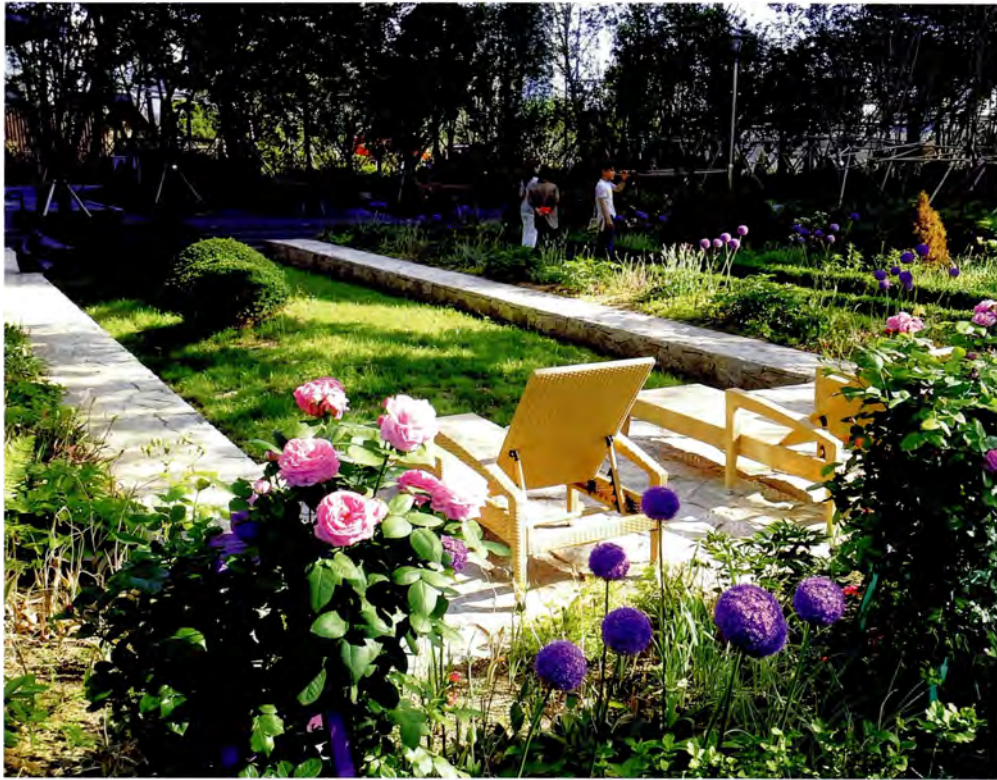
완용성(utility)과 미(beauty)의 적절한 균형 추구는 디자인에서 나온다. 같은 식물이라도 토양과 기후에 따라 달리 취급해야 하기 때문에 가든 디자이너는 어느 분야에서보다도 경험이 중시되는 직업이다.

가든이 디자인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소재들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객체이면서 한편으로 시간과 계절에 따라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주체이다. 따라서 이들을 배려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말이 없는 손님이자 주인인 이들은 꽤 순응적이고 인내심도 많은 편이지만 뜻밖에 연약한 점도 있어, 그 특성을 잘 헤아려 배치하고 격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디자인에는 스토리가 있다. 재미있기 위해서는 의미가 있어야 한다. 그 의미는 스토리의 옷을 입었을 때 가장 재미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더라도 디자인된 정원에서는 구성구석 갖춰진 나름의 의미를 찾는 작업이 감성을 풍성하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정원은 아무리 크더라도 감흥 없이 스치고 마는 밋밋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2. 정원 디자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정원 디자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디자인들은 즉시성을 띄고 있다. 디자이너의 머리 속을 채우고 있던 그 멋진 상상들이 계획에 따라 실물로 제작되거나 공정을 거치면 그 의도된 심미성은 일단 우리의 눈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정원 디자인에 의해 투영된 작업들은 식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성미를 맛보기 위해서는 몇 주, 몇 달, 몇 계절, 심지어 몇 해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다. 이것은 가든 디자인의 심미성에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이라는 독특한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가든 디자인의 심미성을 좌우하는 요소들로는 공간(space), 선(line), 색깔(colour), 빛과 그림자(light and shade), 질감(texture), 향기(scent), 시간(time), 계절(season) 및 기후(climate)가 있다. 이러한 각 요소는 2장 이하의 해당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설명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간단하게 언급하기로 한다. 공간(space)은 주어진 곳이기도 하지만 디자이너가 만들어 내기도 한다. 가든에서는 공간이 열리거나 닫히거나 모두 그 자체로서 심미적 구성요소이다. 선(line)은 가든의 각 부분의 경계이면서, 길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스토리가 가장 친근하게 들어갈 수 있기도 하다. 가든에서의 색깔(colour)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어떤 예술에서도 볼 수 없는 장점이 다. 끊임없는 변화를 주면서 매 순간이 가장



현실적인 삶(real life)의 일부로서 최종적으로 반영된다는데 가든 만의 매력이다. 그래서 가든 디자인에는 초봄의 꽃들의 향연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대지 속에 숨겨져 쉬고 있는 한 겨울의 그 향량함도 의도될 수 있는 것이다. 빛(light)은 가든의 생명이면서 가든의 데코레이터이다. 빛의 반대인 그림자(shade) 역시 디자인의 한 요소로 고려되어 명량한 날 뿐 아니라 흐리고 비 오거나 석양이 지는 시간대엔 그 나름대로 사물이 재해석되도록 해야 한다. 질감(texture)은 그 자체로 변화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가든의 배경 색깔인데, 때론 화려함을 단정함으로 중화하기도 한다. 향기(scent)는 경관 경험(landscape experience)에서의 가장 미묘하고 독특한 요소로서 다른 예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치유의 실용적 기능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어떤 입체적 예술도 갖

추지 못한 오감의 마지막 완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시간과 계절 그리고 기후는 가든의 완성도를 위한 최종 결정권자다. 이 외에 정원 디자인의 물리적 구성요소로는 크게 자연적 요소와 인공적 요소로 나눌 수 있고, 후자는 다시 부지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 지상에 부착된 정도에 따라 인공 구조물과 그렇지 않은 장식품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요소로서 정원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는 토양(earth), 암석(rock), 물(water), 식물(plants) 등이고, 인공구조물에는 포장재, 테라스, 파티오, 벽, 계단, 램프, 다리 등과 같은 지반관련 구조물(earth-related structures), 담과 같은 폐쇄 구조물(enclosure structures), 가계보, 정자, 가든벤치, 그늘막, 오두막 등과 같은 파양 구조물(shelter structures), 밸브, 통기관, 배수관, 암거, 댐 등과 같은 기술 구조물(engineering structures) 온실, 목욕장, 공구창고, 샤워장, 오락실 등과 같은 특수 건축물(special buildings) 등이 있다. 장식품은 대지의 활용을 보완하기 위한 시설물이나 그 지상 구조물이 아니고 정원자체의 장식적 기능을 담당하는데, 각종 조각이나 소품, 조명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3. 희망사항 파악하기

정원을 디자인하는 것도 집안을 꾸밀 때와 마찬가지로 나만의 개성과 생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공간으로 디자인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람들은 각기 취향과 생각이 달라 저마다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그만이 가진 개성이 표정, 옷차림 및 생활 방식에도 나타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원도 주인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각기 다른 느낌의 정원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정원을 디자인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은 내가 원하는 정원이 어떤 것인지, 또는 의뢰인이 바라는 분위기의 정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만들고자 하는 정원에 필요한 내용들을 일목요연하게 메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목요연하다고 하여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머리 속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 둔다. 일종의 브레인 스토밍인 셈이다. 나중에 정리할 것이므로 예산이나 여건을 고려하지 말고 그대로 기록한다.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해도 효율적이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항목들을 분류하는 일이다. 항목을 분류함에 있어 기준은 필요의 정도이다. 보통 세 가지로 그 필요의 정도를 나눈데, 이 가든에 없으면 안 될 필수사항(essential factors), 꼭 만들고 싶은 중요사항(important factors), 있으면 좋지만 예산이 부족하면 하지 않아도 되는 기대사항(desirable factors)이 그것이다. 이렇게 분류해 두면 나중에 예산의 문제로 조정해야 할 경우에 선택이 용이하다. 여기서 필수사항이란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항목으로서 예컨대, 집이나 창고로 드나드는 길, 주차공간, 어린이가 있는 경우의 안전 장치 등 가족들의 일상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말한다. 중요사항은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갖기 원하는 사항들로 여기에는 화려한 꽃밭, 정자, 채소밭, 온실, 연못, 그들을 위한 피크닉 등과 같은 시설이나 가구, 장소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기대사항에는 가든의 스타일이나 분위기를 북돋우어 줄 조각품 내지 장식물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리스트 작성 예

A 씨택 정원 디자인 브리프

필수사항	중요사항	기대사항
데크공간	정자	벤치
정원도구창고	초화 화단	퍼골라
출입로(디딤돌)	락 가든	이치
잔디밭	물담	유기농 거름 만드는 공간
텃밭	장미트릴리스	조각상
큰나무(백일홍,검벚꽃)	작은 분수가 있는 연못	장식화분
놀이공간(모래밭)	장미가든	
바비큐시설	허브가든	
그늘공간	유리온실	
쓰레기장		

2. 디자인 이미지 보드 만들기

내가 디자인하는 정원을 표현하는 다양한 이미지를 모아 디자인의 영감의 원천을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정원을 디자인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럴 때마다 아이디어를 얻은 사물의 사진, 공간의 선을 표현해 주는 사진, 칼라 테마를 나타내는 천, 정원을 장식할 장식품 이미지 등 디자인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스케치 북이나 보드에 모아 붙여둔다. 그 중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디자인의 컨셉을 표현해 주는 자료만을 모아서 디자인 이미지 보드를 만든다. 반드시 사진이 아니어도 좋다.

3. 현장의 조사와 분석하기(The Survey and Analysis)

정원디자인에 있어서는 현재 정원의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도구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특히 자신의 가든을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든 디자이너로서 의뢰를 받아 하는 것이라면, 이중의 수고를 덜기 위해서라도 꼼꼼한 도구 준비는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준비해야 할 도구로는 카메라, 토양 조사세트, 줄자, 전지가위, 모종삽, 메모 노트, 펜 등을 들 수 있다. 현장 조사는 전체적인 주변 경관과 토지의 형상, 출입구에 관한 개관부터 시작하여 이를 부분적으로 나눠 꼼꼼히 해야 하고 메모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특별한 분위기나 영감이 떠오르면 이들도 적어 두도록 하여 나중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사진을 찍을 때는 어느 부분의 사진인지 표시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일정한 순서를 정하여 차례로 찍으면 기억하거나 정리할 때 도움이 된다. 현장 조사에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제거해야 할 나무, 없애야 할 돌맹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모두 기록하도록 한다.

정원의 흙은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
흙의 종류는?(사질토, 진흙 등)
정원의 어느 곳이 해가 잘 들는지?
그늘진 곳인지?
연중 기온은 어떤지? 최저 기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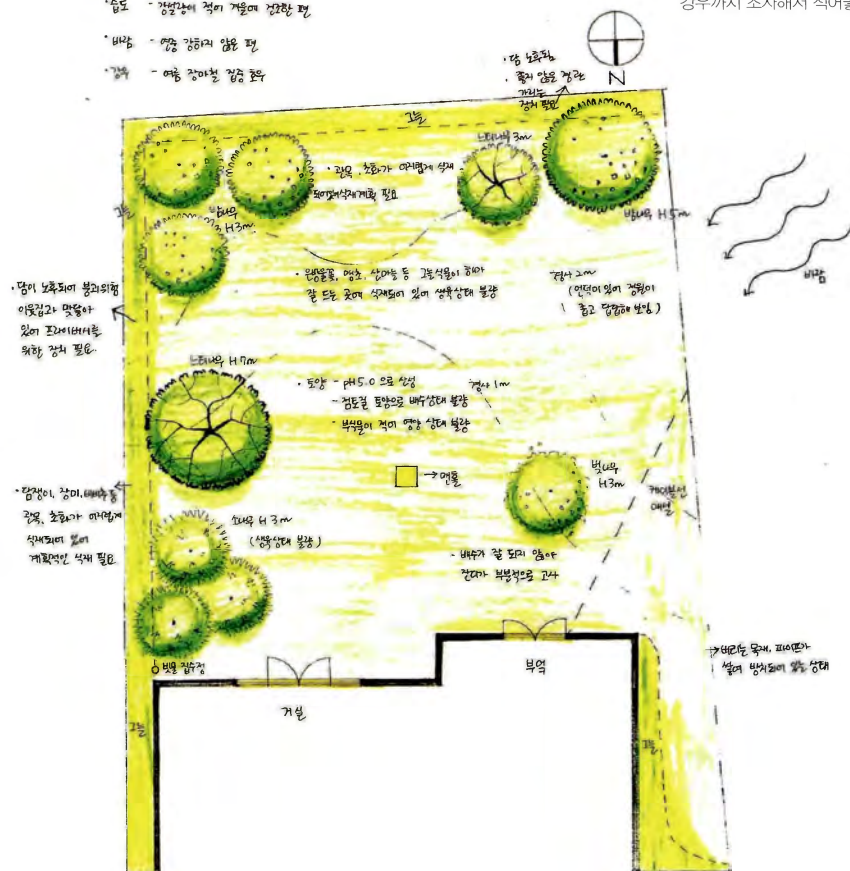
서리가 오는 시기(서리 시작과 마지막 날)
여름에 집중호우 시에 문제는 없는지?
정월에 배수는 잘 되는지?
토양의 영양상태? 바람의 세기는 어떤지?
주변의 풍경이 좋은지?
부지의 경사도는 어떤지?
지하에 매설된 것은 없는지?
법률적으로 용도의 제한은 없는지?

현장조사가 끝났으면 그 다음 단계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새로 떠오르는 아이디어 등이 있으면 간단히 덧붙여 기록한다. 청원의 부지를 대략적으로 그린 다음 현장의 상태나 간단한 의견을 적어 넣은 분석도를 만들면 한 눈에 볼 수 있어 편리하다. 정원 인프라에도 손을 댈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담장을 신축해야 하는지, 원하는 초화를 식재하기 위해 토질을 개선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든 중간 중간에 센 바람을 차단할 장치의 여부 등을 따진 후 생각을 적어 놓는다. 여기에 기존의 정원을 새로 꾸미는 것이라면 현재 있는 나무나 시설물을 계속 사용하든지 여부도 들어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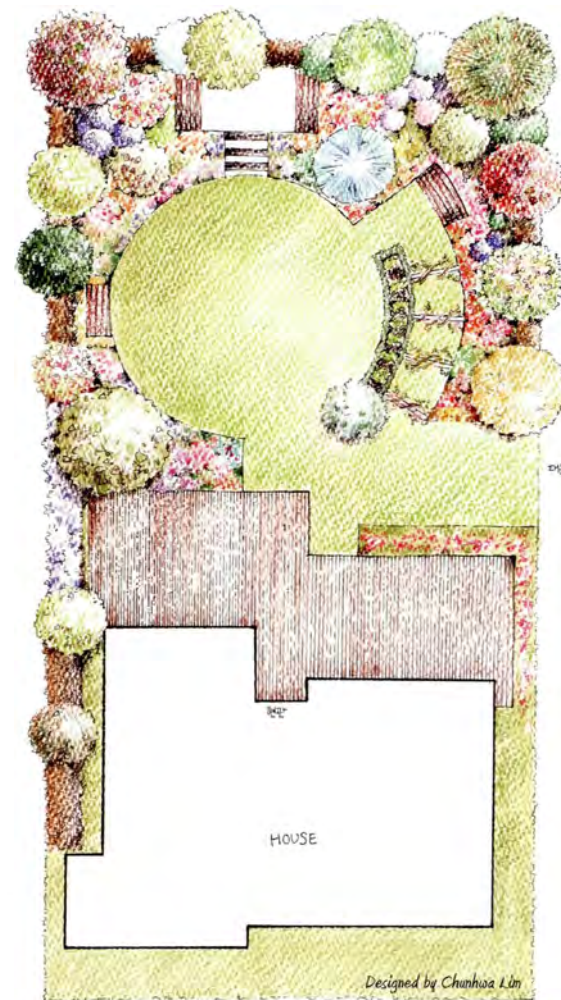
정원디자인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현장분석도

- * 겨울 - 겨울 최저 온도: -22°C (양양읍: 4월 20일 경)
- 여름 최고 온도: 32°C
- * 습도 - 강릉시에 적미 겨울에 강대한 편
- * 바람 - 겨울 강바람 많은 편
- * 강수량 - 여름 강수량 많음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꼼꼼하게
체크하고 조목조목 자세하게 메모했다.
바람은 어디서 불어오는 지,
토양은 어떤지, 주가 되는 나무는
어디에 식재할 건지, 기온·습도·
강우까지 조사해서 적어놓았다.



퇴촌 전원주택 Master plan



4. 맺음말

정원을 디자인하는 일은 세밀한 정리 작업이 필요한 일이다.

많은 분들이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은 사전 준비 단계를 소홀히 하고 먼저 식물을 심는 것을 서두르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나서야 많은 시행착오와 비용을 들인 후에 다시 정원을 디자인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다.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은 바로 단계별로 꼼꼼하게 정원 디자인 작업을 하여 그 후에 시공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제 그 방법에 대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원디자인에 대한 단계별 디자인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고자 한다. **G**



자연과 어우러진 자연친화적인 골프장 렉스필드컨트리클럽

자연과 함께 한 대단위 조경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광여로에 자리한 렉스필드컨트리클럽은 천연의 요새처럼 들어가는 입구부터 남달랐다. 메타세콰이어 아래 영산홍이, 빗나무 아래 조팝나무가 가로수로 심어져 안내역할을 하는 듯 신록을 자랑하고 있었고, 도도한 형세로 곳곳에 심어진 소나무는 그 멋스러움만큼이나 지조(志操)가 높아보였다. 산세(山勢)가 어느 정도 있어 '왕의 정원'이란 뜻에 걸맞게 조용하면서도 품격있고, 장중하면서도 자연스러웠다. 가든인 독자는 정원에 관심이 많다. 실내정원, 실외정원, 식물원 등 많은 정원의 조경을 들여다봤다. 이번엔 좀처럼 가까이 하기 어려운 골프장의 조경을 만나보자. 조경을 담당한 친절한 직원(이동훈 대리: 코스관리팀)분의 안내로 구석구석 식재된 수종과 초화류를 만나봤다. 관리자의 노고도 들어봤다. 취재 | 가든인 사진 | 이동훈

자연속에서 치유와 건강을 행기다

수도권에서 한손가락 안에 드는 렉스필드는 46만평의 대단위 면적에 자리한 골프장이다. 총 27홀로 구성된 코스는 레이크, 마운틴, 밸리의 이름으로 코스뿐만 아니라 조경에도 차별화를 뒀다.

'신이 선사한 자연에 예술혼을 더했다'는 '필드 위에 펼쳐진 궁전' 렉스필드'란 슬로건아래 계곡과 폭포, 유실수와 소나무, 연못과 수생식물, 단풍나무와 초화류, 기타관목과 암석 등이 차별화를 담당했고, 야생화와 장미, 철쭉 등이 계절을 맞이하며 화색을 올린다. 본관 주변으로 자리한 조각상은 렉스필드의 품격을 말해주듯 이야기를 걸어오는 표정이 있다.

백조와 사슴이 노닐고 원앙과 오리, 다람쥐가 제집인 듯 오며가며 정을 쌓는 렉스필드는 깊은 산속에 위치하고 있어서인지 시원하고 상쾌했다. 산과 바위, 나무가 조화로워 자연의 생명력과 변화를 그대로 느끼고 받을 수 있는 이곳은 자연이 주는 혜택으로 건강과 함께 과하지 않게 조경된 정원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자연의 품안에서 지친 심신을 위로받고 활력을 채겨갈 수 있는 치유의 공간이라면 과할까?

방대한 량의 소나무와 유실수, 화목류, 관목류로 정원의 중심을 잡다

곳곳에 자리한 강릉소나무 2000주(계류주변 조형소나무도 계류의 돌단풍, 아스틸베 등과 조화를 이루고 영산홍과 어우러져 있다)는 주목역할을 하고 스트로브잣나무는 거리측정용이지만 자태가 우아하다. 조형소나무는 관리자의 손을 타 남다른 뿔났다. 치폐성이 좋아 홀과 홀 사이의 가림막역할도 담당한 소나무는 멋과 실용을 겸비한 훌륭한 조경소재다.

골프장조경에 이렇게 많은 유실수가 쓰임에 적잖이 놀랐다. 유실수 15종 500주(살구, 양살구, 감, 자엽자두, 매실, 돌배, 밤, 모과, 자두, 복숭아, 꽃복숭아, 블루베리 등)는 조정적인 역할도 있지만, 익숙한 과실이 기분을 좋게 하는 이점도 있다. 매실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니 역시나 기분이 좋아진다.

화목류는 23종 약 3000주 이상(왕벚, 산벚, 홍단풍, 청단풍, 산딸, 백작약, 산수유, 메타세콰이어, 화해당, 낙살홍 등)이 자리한단다. 봄부터 꽃을 피어올려 보는 이의 시선을 압도할 만큼 화려하게, 또는 분위기 있게 연출해 방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음에 틀림없이 보인다.

또 관목류는 17종 약 30만주(산철쭉, 영산홍, 조팝, 홍조팝, 공조팝, 화살나무, 개쉬땅, 아로니아, 진달래, 옥매화, 황매화, 쪼레, 눈붉은 쪼레, 좁쌀장, 장미류 등)로 주목역할을 하는 소나무와 어울려 정원을 좀더 풍성하게 살려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야생화로 계절의 특성과 포인트 역할을

철따라 꽃이 피고 정원의 화사함을 올리는 야생화는 정원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매일 보는 그 나무의 변화를 이끌고, 계절성을 살리고 초점역할을 한다.

초화류는 총 20종 20만 포트(꽃잔디, 별개미취, 원추리종류, 왜성아스타, 패랭이류, 돌단풍, 후룩스, 가우라, 아스틸베, 평의비름, 비비추, 국화, 비올라팬지, 루트베키아, 톱풀류, 사스타데이지 등)가 각



관리자의 중점관리와 관리노고

제조작업이나 전정은 봄, 여름, 가을 동안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더불어 병충해는 예상 후 관리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자연현상에 따라 특별관리 대책도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월별 중점관리

- 5월 적심과 전정을 통해 소나무 수형을 잡아주는 작업
- 6월 영산홍 전정을 통해 새로운 화이를 유도, 후년 개화 시 꽃의 밀도 높이는 작업
- 5월말~6월 영산홍, 철쭉, 화살나무, 조팝나무, 눈주목 등의 관목전정 집중작업시기

계절별 집중관리

- 봄 제조작업, 야생화심기, 전정, 초점식물심기
- 여름 소나무 태핑피해 예방-지주목설치, 적심(순지리기), 야생화-무름병 발생에 신경, 장미관리, 과성장 억제, 전정, 제조작업
- 가을 유실수 사비, 소나무 전정, 제조작업
- 겨울 월동작업-짚으로 멀칭하기

- 병충해: 흰가루병, 무름병 • 병충해 관리: 관리자의 철저한 예찰
- 소나무적심: 5월 초에서 중순이 적다. 소나무 수형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전정의 엉성한 부분을 치밀하게 교정하는 작업이다. 적심을 한 소나무와 인한 소나무는 차이는 금방 알 수 있다.



조형소나무 전정: 전정을 하면 소나무의 관상가치가 높다

코스마다 달린 정원에 자리했다. 본관 앞에 비올라랜드가 소담스럽게 무리지어 피어있고, 하려한 금잔화, 데모로세카가 초점식물로 돌담과 어울려 시선을 끈다. 지피식물로는 꽃잔디, 패랭이 종류가 관목과 어울려 화사함을 뽐낸다.

연못엔 수생식물과 날아온 새들이...

곳곳에 자리한 연못은 골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멋스러운을 자아낸다. 연못 주변엔 수생식물 10여종(부들, 꽃창포, 붓꽃, 달뿌리풀, 물억새, 타래붓꽃, 제비붓꽃, 어리연, 연꽃, 무늬그라스류 등)이 암석과 어울려 자리하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원앙과 오리도 손님을 맞는다. 방문했을 때는 노란붓꽃과 보라붓꽃이 피어 바람에 하늘거리며 손짓하고 있었다. 연못은 가을이 갑자기 오르면 녹조가 생기거나 지난해 수생식물의 묵은대를 잘라줘야 하는 관리가 따른다.

잔디관리는 숙명

골프장의 잔디관리는 첫 번째 항목이다. 초록의 잔디는 골프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관리자는 늘 예민하게 체크하고 관리에 신경을 쓴다한다. 불이 잘 굴러가게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 벤투그라스는 매일 신경을 쓰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깎아주는 지역인 캔터키블루그래스, 대부분을 차지하는 페이웨이는 한국형 잔디로 한다. 요즘은 잔디의 종족보존이 제대로 발휘되는 시기

라 그린잔디 위에 까맣게 씨가 올라와 있는 게 보인다. 식물과 인간의 싸움이다. 관리자는 씨를 수시로 깎아줘야 하고 잔디는 부지런히 씨를 올려야하고...

관리자의 힘든 점과 바람

골프장은 면적이 넓어 자연의 변화와 맞서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가뭄, 장마, 더위,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실내정원이나 실외정원에 비해 신경써서 관리해야 하는 부분의 폭이 넓다. 잘 관리했어도 자연재해로 인해 하루아침에 망가져버릴 수도 있고, 태풍에 낙락장송이 쓰러지기도 한다.

“자연스럽게 관리하는데 중점을 둔다. 자연과 맞서지 말고 자연과 인간이 같이 어우러져 경관을 창출하는 게 최고의 조경비즈니스가 아닌가 싶습니다.”라고 이동훈 조경관리자의 관리 비법에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 한다. 자연에 순응하며 계절별 핵심사항을 늘 체크하며 그 넓은 공간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세심 대단하다는 생각이 든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담당자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되나 운영적인 의도에 따라 변화가 생기거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 현장 관리자로서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최고의 코스로 고객께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이동훈 코스관리자는 마무리 지었다. **G**



조경연간계획표

조경관리자의 연간계획표에는 1년 12달 작업내역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

작업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발아전 제초제												
월동철수												
초화식재												
야생화지역제초												
추비작업(장미, 야생화 등)												
적심, 전정작업(소나무)												
소나무병충해(응애, 솔잎혹파리)												
소나무 종벌레												
파종작업(야생화)												
수세화복작업												
전정작업(관목류)												
고사목제거												
제초작업												
병해충방제(유실수, 활엽수)												
카트로가치지기												
잡목제거												
철냉굴제거												
수초정리(계류)												
월동작업												
가비작업(유실수), 장미												
야생화 파종												
낙엽갈기(열침)												
석화유합제(꼭지벌레)												
자연림 정리												
C/관리												



적심 전



적심 후

STEP by STEP

소나무 적심(순지르기)

봄 되면 쑥쑥 자라는 소나무순을 안 자르면 제멋대로 자라 조형소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다. 순을 자르면 잎이 조밀하게 나 더 풍성해지고 관상적인 가치도 높다.



1. 4~5월경에 5~10cm 정도의 한치레 나 오는 여러 개의 새순을 2~3개만 남기고 나머지 새순을 밑에서부터 모두 따버림



2. 그 다음 남겨둔 2~3개의 순을 1/2~2/3 정도의 길이에서 손으로 꺾어 잘라 버림



3. 이 시기의 순은 모두 자란 상태여서 그대로 굳어져 짙은 갈색이 됨



4. 이 작업을 해마다 반복하면 마디 사이가 짧아지고 자연방치 때보다 훨씬 짧은 기간 내에 노목의 생김새를 가지게 됨



정원은 문화에서 시작된다

정원은 거실의

정원을 즐기는 방법

연장선에 있다

땅을 품지 못하는 아파트촌 사람들은 정원을 그리워한다. 그리움에 하나 둘 마련한 화분만 늘어난다. 베란다는 화분의 숲이 돼버리고 식물은 생각없이 자란다. 거실의 연장선에 정원이 있다고 하지만 아파트는 너무나 제한적이다. 생각을 바꾸면 좁은 베란다도 정원으로 변할 수 있다 한다. 정신없이 늘어난 화분을 정리하고, 나만의 고민으로 탄생한 작은 정원으로 6월의 초여름을 활짝 열어보자. 더불어 영국의 정원을 들여다보며 아이디어를 얻어보자. 글·사진 | 서수현 가든디자이너



6월부터는 날씨만 조금 좋다 싶으면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푸르름을 한껏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 더욱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애를 쓴다. 하지만 어디를 가면 좋을지, 사람이 너무 많이 가는 곳이라 힘들진 않을지 걱정이고 막상 나갔다가 오면 돌아오는 길에선 늘 마음 속으로 외치는 말이 있다. '역시 집이 최고야~!' 집은 늘 휴식의 기능을 담당해 오던 장소다. 정원 또한 집이란 장소 안에 울타리를 쳐 놓고 그 안에 자연을 담아 놓은 공간이다. 예전엔 정원과 집에 경계가 뚜렷했지만 근래에 들어 그러한 경계도 모호해 지고 있다. 정원으로 휴식과 활동을 하는 장소라는 점에서 거실과 다르지 않다.

Outdoor Living을 잘 보여주는 예로 햄튼코트 플라워쇼에 나왔던 작품. 정원에 식물만 심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 마치 거실을 그대로 정원 안에 가져다 놓은 것 같은 풍경이다.



가족이 모여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중심으로 정원을 만들었다. 마치 집 안에 있는 것처럼 거실소파와 사이드조명을 계단식 정원에 만들었다. 실외라기 보다 집 안을 식물로 꾸며놓은 듯 하다

'난 땅이 없어서 정원을 못 만드는데...' 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베란다 공간이라도 혹은 베란다가 없는 거실이 트인 공간이라도 조금씩 정원을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

영국 왕립원예학회 RHS에서 주관하는 여러 플라워쇼에서는 가든 디자이너가 보여주는 정원, 즉 쇼가든을 선보이는데 이는 일반사람들이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를 알아보기 쉽게 제안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디자인 중 하나가 정원을 거실과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아웃도어 리빙이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웰시 플라워쇼의 경우, 정원디자인을 선보이는 분야도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어 넓은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아파트에 살아서 좁은 테라스 공간만 있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자신에게 맞는 정원 아이디어를 얻어갈 수 있다. 우리나라도 현재 순천정원박람회나 고양시에서 열리는 가든쇼 등과 같은 정원디자인을 보여주는 자리가 하나 둘 생겨나고 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에 만들어진 디자인보다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주택정원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원 스타일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거 형태에 맞게 테마를 잡고 디자인을 공모하여 보여주는 것이 좋을 듯 하다. 그래야 일반인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공간에 정원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과 가져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난 땅이 없어서 정원을 못 만드는데...' 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베란다 공간이라도 혹은 베란다가 없는 거실이 트인 공간이라도 조금씩 정원을 꾸며보는 것은 어떨까? 각양각색의 화분들로만 채워두는 베란다가 아니라 집의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정원을 디자인해보자. **G**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생각하며
애도와 위로의 상징, 6월의 꽃

양귀비

아름답고 푸르른 날들이지만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현충일이 있고, 6·25사변이 있는 등 호국 선열의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또한 지난 4월에 겪은 깊은 슬픔도 함께 달래며, 치유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뜻을 기리고 애도의 꽃으로 국화를 많이 사용합니다. 서양은 양귀비라고 합니다. 안면과 평화, 다산과 풍년, 죽음과 부활의 뜻이 담긴 양귀비꽃의 의미를 새기며 한송이 양귀비꽃을 받쳐 봅니다. 글·사진 | 양지선기자



관상용, 약용으로 오래전부터 재배된 양귀비는 곧고 길게 올라온 꽃대에 매혹적인 꽃이 피어나 우아하고 아름다운 6월의 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마약성분이 있는 송니페럼(Papaver somniferum)과 세티게럼(Papaver setigerum)을 제외하면 다양하게 개량된 양귀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절화로 사용하는 꽃양귀비와 정원용으로 사용하는 개양귀비, 캘리포니아 양귀비, 오리엔탈 양귀비 등 꽃의 색깔과 키 그리고 피어나는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를 활용할 수 있죠.

서양에서의 양귀비 문화

양귀비라는 식물이 마약성분 때문에 감춰지고 금지된, 신비로운 이미지가 강하지만 서양에서는 그리스 신화이야기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문화와 애도, 농사와 요리 등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신화이야기는 먼저 편히 잠 드는 '안면'과 '평화'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로마신화의 잠의 신인 소누스(Somnus)는 곡물의 여신 케레스에게 그녀를 잠들게 하기 위해 양귀비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는 양귀비의 열매에서 정제한 아편이 최면성, 마취성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아편 성분이 있는 양귀비의 학명 Papaver somniferum의 somniferum은 '잠을 불러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애도와 위로의 상징

여기에 제1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역사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캐나다군 중령으로 전쟁에 참가한 군악관 존 맥크래(John MacCra)가 쓴 '개양귀비 들판에서(In Flanders Fields)'는 가장 많이 인용된 영어로 지어진 시로 그의 친구 알렉시스 헬머 중위가 전사한 후 지은 시입니다.



In Flanders fields

In Flanders fields the poppies blow
Between the crosses, row on row,
That mark our place; and in the sky
The larks, still bravely singing, fly
Scarce heard amid the guns below.

We are the dead, Short days ago
We lived, felt dawn, saw sunset glow,
Loved, and were loved, and now we lie
In Flanders fields.

Take up our quarrel with the foe:
To you from failing hands we throw
The torch; be yours to hold it high,
If ye break faith with us who die
We shall not sleep, though poppies grow
In Flanders fields.

Lt.-Col. John McCrae

개양귀비 들판에서

플랜더즈 들판에 양귀비꽃 피었네,
줄줄이 서있는 십자가들 사이에,
그 십자가는 우리가 누운 곳 알려주기 위한,
그리고 하늘에는 종달새 힘차게 노래하며 날아오르건만
저 밑에 요란한 총소리 있어 그 노래 잘 들리지는 않네.

우리는 이제 운명을 달린한 자들,
며칠 전만 해도 산아서 새벽을 느꼈고 석양을 바라보았네,
사랑하기도 하고 밟기도 하였건만
지금 우리는 플랜더즈 들판에 이렇게 누워 있네.

원수들과 우리들의 싸움 포기하려는데
힘이 빠져가는 내 손으로 그대 향해 던지지는 이 횃불
그대 붙잡고 높이 들게나,
우리와의 신뢰를 그대 저버린다면
We shall not sleep, though poppies grow
In Flanders fields.

존 맥크래(1872~1918)

제 1차 세계대전 중에 쓰인 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시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개양귀비 꽃씨는 주로 땅 속에 있다가 땅이 파헤쳐지면 싹을 틔워 꽃을 피우는데, 주로 전장에서 많이 피었습니다. 시에 나타난 플랑드르 지방은 작가의 동료가 전사한 지방으로 벨기에, 네덜란드, 프랑스 지방에 걸쳐 있습니다. 매년 종전 기념일(11월 11일, 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연방국인들의 현충일)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달고 다니는 개양귀비 꽃은 이 시에서 아주 많이 인용됩니다.

참가 자료

캐나다, 호주, 영국에서는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개양귀비 조화를 가슴에 달.
뉴질랜드와 호주 군인은 ANZAC day(4월 25일)(호주의 현충일)을 기념할 때도 개양귀비 조화 사용함
개양귀비를 가슴에 다는 것은 1924년 미국에서부터 시작함



두 번째로는 '다산'과 '풍년'의 상징입니다. 로마시대에 곡물의 신인 케레스의 신상을 보리와 개양귀비 화관으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이는 유럽의 보리밭에는 잡초로 새빨간 개양귀비가 자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양귀비가 잡초처럼 흔하게 보이는 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곡물을 경작할 때 주변에 양귀비를 심었다고 합니다. 잡초 중에서 특별하게도 양귀비의 일년의 생육 사이클이 곡류와 잘 맞는다고 하네요. 세 번째로는 '죽음'과 '부활'입니다. 케레스는 소누스가 준 양귀비의 향기에 잠에 빠져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에 활기차게 눈을 뜹니다. 이는 한번 뿌린 곡물의 종자가 자신은 죽어도 반드시 싹을 내어서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밝은 빨강의 양귀비 색깔이 죽음 후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네요.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의미로 묘비에 양귀비를 새기거나 주변에 심어두기도 합니다.

우아한 포인트 디자인

서양에서는 장식용으로의 양귀비도 다양하게 활용합니다.

'Common Garden Poppy'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친근한 양귀비는 모종이나 종자로 미국과 유럽에서의 수요가 많습니다. 주로 정원을 꾸밀 때 강렬한 색깔을 활용한 디자인과 꽃의 높이에서 오는 포인트 요소로 양귀비를 식재합니다. 식물원과 박물관, 수많은 개인정원에서 아름다운 디스플레이를 뽑내는 양귀비정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활짝 핀 양귀비의 꽃을 충분히 즐기신 후에 지기 전에 말려주면 아름다운 색깔을 오래도록 감상할 수 있습니다.

위로와 치유정원

올해 4월, 봄이 물들어 갈즈음 수많은 젊은 청소년들과 귀한 생명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영원한 이별의 시간을 맞이하는 애석하고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많은 분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로 남았고, 또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양귀비의 붉은 꽃처럼 우리의 가슴에 남은 붉은 상처 자국들, 너무 깊은 상처로 몸과 마음이 아파옵니다. 상처로 일룩진 전 쟁터와도 같은 전국적 애도의 기간입니다.

늘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자연과 정원 안을 거닐며 위로의 마음을 나누길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부모님, 배우자, 친구, 가족 분들의 아픔의 상처를 함께 나누며, 양귀비꽃의 깊은 유래를 찾아보며 이 글을 정리합니다.

이제 바람결에 흩날리는 양귀비의 꽃잎이 진후, 씨앗을 품으며 다음해에 다시 기억하도록 우리와 함께 정원에서 만나는 양귀비, 어디서든 알이보듯 붉은 양귀비꽃이 휘날리는 봄날이 오면, 2014년 4월 먼저 가신 남들을 기억하듯 양귀비꽃을 나누며 서로서로의 마음을 다독이고 남아 있는 우리들의 몫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정원에서 치유와 회복의 시간을 나누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G**

정원사친구들
(gardening friends)?

정원사친구들은 (주)그람디자인(gramdesign), (주)조경디자인Jireh, 문화예술단체Lala,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조혜령으로 구성된 정원문화 프로젝트 그룹이다. 최근 정원사친구들은 두 장소에서 정원 작품을 전시하였다.

별개의 작품이지만 두 작품 모두 일반인들에게 정원문화에 대한 보다 친근감을 가지도록 하고자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짧게나마 두 작품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문화역서울284기획전시 '여가의 기술-언젠가 느긋하게'
3등 대합실 '늦은 오후 정원에서' (2014.03.21~05.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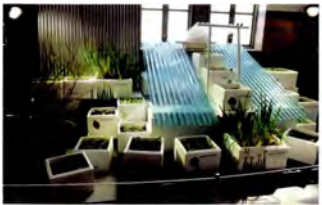


우리의 일상을 구성한 베란다 정원/ 옥상 텃밭 등을 모티브로 하는 재배작물 중심의 일상적 공간과 현실을 벗어나 여유를 즐기는 숨겨진 정원과도 같은 심미적 공간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재활용정원(Up-cycling garden), 버내쿨러 디자인(Vernacular design), 자연에서의 채집과 다도(Gathering & Tea ceremony in nature)를 모티브로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하고 느낄 수 있는 'Easy garden'을 선보였다.



정원사친구들이 의도하는 메시지는 3가지이다.

첫째, 정원문화라는 것이 최근 갑자기 나타나고 유행하는 신개척분야가 아니라 어찌 보면 정원은 늘 우리 곁에 있어왔던 것임을 이야기한다. 골목길, 옥상, 동네 뒷산 등 어느 곳이든 친근한 정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정원은 고비용이 수반되는 부유한 사람들의 호사라는 일부 고정된 편견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식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재가 쓰던 물건, 싸구려의 물건, 재활용된 물건을 사용하여 정원을 꾸몄다.



셋째, 정원의 매력은 정성과 시간의 문제라고 이야기한다. 처음 모습이 투박할지라도 담을 들여 정성을 기울인 정원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매력을 더욱 발산한다. 그래서 전시 초기의 모습은 다소 화려하지 않지만 이제 갖 짝을 띄우고 꽃봉오리를 맺는 과정에 있는 순간의 모습을 보는 것도 기대감과 설렘의 감동을 느낄 수 있기를 의도하였다.



2014 국제고양꽃박람회 제1회 코리아가든쇼

‘건조한일상에 작은 사건 Happy Happening’ (2014.04.25~05.11)



‘힐링가든-도시민들의 상처받은 몸과 마음에 휴식을 정원이라는 공동주제로 일산 호수변을 따라 17명의 정원디자이너들이 참가하였다. 힐링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정원들이 전시되었는데 정원사친구들의 작품은 ‘정원은 땅을 가진 혹은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인가?’하는 물음으로 시작한다.

이 세상엔 다양한 나눔을 위한 서비스 카들이 존재한다. 나눔을 함께 하는 이들이 따뜻한 마음을 한 공간에서 느끼는 것으로 본질적인 힐링의 장소라고 보고 정원사가 그만의 방법으로 이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두 대의 트럭으로 구성된 이 정원은 오랜 시간 가꾸어진 정원이기보다 빠른 시간 설치하고 해체가 되는 정원이다. '100분의 시간, 100개의 컨테이너'로 완성되는 이 정원은 바뀌가 다닐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 회색빛 도시민의 지친 일상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작은 깜짝 선물 같은 것이다. 이런 공간을 갑자기 마주친 이들이 웃음 짓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런 해프닝을 벌이는 정원사에게도 또 다른 힐링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다.

암도적인 녹색의 공간에 빨강과 흰색의 포인트로 웃음, 파티, 깜짝 선물의 이미지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정원의 분위기를 고려해 가볍고 친근한 소재들로 구성되어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정원을 의도하였다. G



(주)그람디자인(gramdesign) / 정원사친구들(gardening friends)
정원 디자인 및 설계/시공 조경컨설팅

Tel, 032-652-4726 Fax, 032-656-4726

E-mail, gramdesign@naver.com

Facebook, www.facebook.com/gramdesign1

Homepage, www.gardeningfriends.co.kr

Address,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25(중동) 2F

정원사 친구들
Gardening Friends

정원 초화류의 질감에 따른 시각적 효과

글·사진 | 손관화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디자인계열
(가드닝 전공+플로리스트리 전공)

정원 디자인시 초화류의 시각적 요소 중 질감(texture)은 화색과 개화기 그리고 초장을 우선으로 고려하다 보면 뒤로 밀리게 되어 고려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개화기에만 보이는 초화류의 화색을 연중 유지하기는 어려우므로 비개화기에는 형태나 질감으로 시각적 효과를 유지해야 한다.

질감은 물체를 손으로 만져 느껴지는 촉각의 느낌과 직접 만지지 않고도 경험에 의해 느껴지는 시각적 질감을 동시에 말한다. 그래서 질감을 '거칠다', '매끈하다', '반짝거리다', '투박하다', '부드럽다', '푹푹하다'와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대체로 '거칠다'와 '부드럽다'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식물의 잎이 크고 두꺼우면 질감이 거칠게 느껴지고 잎이 작고 얇으면 부드럽게 느껴지며 전체 형태를 만드는 줄기와 배열에 따라서도 질감은 달라진다. 또 여러 식물이 동시에 배열되어 있을 때는 개개 식물의 형태에 따라 질감이 달라진다. 시각적 질감은 거리에 따라 달라져 가까에서 볼 때 거칠게 느껴진 질감이 멀리서 보면 부드럽게 느껴질 수 있다.

정원 디자인에서 질감, 특히 초화류의 질감은 크기나 색만큼 뚜렷해 보이지 않지만 섬세한 차이를 보이며 정원에 다양성과 변화감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원 디자인시 질감을 고려할 때는 식물의 질감과 식물 외 재료의 질감을 동시에 고려하는데 전체 디자인의 질감을 비슷하게 만들지만 구성 내에서 질감을 조절할 때는 서로 반대의 질감을 적절한 비율로 섞어 대조적인 느낌을 주는 방법으로 질감을 구성한다.

꽃밭에서 안개초나 땀샘리, 로벨리아와 같이 질감이 고운 것끼리만 모으면 단조롭고, 머위나 병풍쌈과 같이 잎이 커서 질감이 거칠어 보이는 것끼리만 배열해도 너무 위압감을 느낄 수 있으니 서로 섞어 주면서 개개 식물의 느낌이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질감은 식물 전체의 형태나 잎의 형태와 연관되어 있어 식물을 고를 때 형태와 동시에 고려해 볼 수 있다.

영국에서는 2000년 이후 자연을 대상으로 환경과 관련된 예술의 구현을 희망하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플라워쇼의 가든 디자인에 참여하였고 자연스러움을 나타내는 식재에 관심을 보이면서 자연스러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화류를 많이 사용하면서 색상 중심에서 질감 중심의 디자인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한다.

아직 국내에는 초화류를 식재할 때 화색을 고려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질감을 고려한다는 것은 미래의 얘기 같지만 거친 질감을 보여주는 큰 잎을 가진 다년초 몇 종류만 정원에 배치해도 비개화기에 볼거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작년에 일년간 지속적으로 한백식물원을 다니면서 정원에 도입하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 질감이 거친 다년초 몇 가지를 체크하였다. 그 중 병풍쌈, 우산나물, 박새, 나도송마, 도깨비부채, 갯취, 큰천남성 등을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 영국에는 이국적이고 독특한 느낌을 주기 위해 군네라(Gunnera)를 이용하는데 병풍쌈은 군네라만큼 독특한 느낌을 만들면서 꽃도 피고 연중 지속적으로 형태를 유지하는 멋진 식물인 것으로 보인다. 잎이 크기 때문에 작은 정원에는 한두 포기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다.

관중과 청나래고사리, 고비와 같은 고사리류(ferns)도 정원에서 독특한 질감을 주지만 습하지 않은 곳에서는 썩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그래스류(grasses)의 줄기와 잎의 질감은 정원에서 다른 초화류와 전혀 다른 질감을 만들어내므로 식재계획에 포함하면 좋을 것 같다. 아직 국내에는 정원에서 꽃이 중심인 다년초와 그래스류를 혼식해서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는데, 꽃만으로 가득 찬 정원보다는 그래스류가 혼식된 꽃밭은 색과 형태 뿐 아니라 멋진 질감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그래스류는 씨가 흩날려 그 다음 해 씨가 돌아나면서 잔디밭이나 정원을 망쳐버리기도 하니 주의해야 한다. **G**



병풍쌈



부드러운 질감의 안개초



거친 질감의 병풍쌈



큰천남성



아름다운 질감의 그래스



그래스류의 질감



꽃배가 올라오는 여름 병풍쌈의 거친 질감



백합 줄기의 선에 의한 질감



박새

시계의 태엽처럼 돌돌 말려서 피는 꽃마리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보아야 사랑스럽다’란 말처럼 꽃마리도 그리 보아야 예쁘다. 그냥 스쳐지나가듯이 보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자세를 낮추고 한참을 기다려야 꽃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다. 침침한 눈으로 아무리 들여다보아야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작은 꽃이다. 예쁜 우리말이 있는데, 유럽에서 들어온 원예종 이름을 대면 금방 알까? 바로 물망초다. ‘나를 잊지 말아요’란 노랫말에서 만났던 바로 그 이름. 잡초처럼 길가에 흔하게 핀다는데, 도통 찾아볼 수 없다. 몰라서일 게다. 물망초 이름은 알아도 꽃은 모른다. 꽃마리란 이름을 기억해보자. 얼마나 예쁜 이름인가. 6월호에는 작지만 사랑스러운 꽃, 꽃마리를 만나보자.

글 · 사진 |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꽃마리의 어원

꽃마리라는 식물은 꽃송이가 태엽처럼 돌돌 말려서 피어난다고 해서 ‘꽃말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가 점차 ‘꽃마리’로 변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다. 꽃이 필 때 꽃봉오리가 태엽처럼 돌돌 말려 있다가 꽃들이 피지면서 밑에서부터 1송이씩 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흔하게 보이는 꽃이긴 하지만, 정말 신기하고 볼수록 정이 가는 우리 꽃이다.

서있는 사람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꽃

꽃의 지름이 2mm 안팎에 불과하니, 서있는 사람은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꽃이다. 이 꽃을 예쁘게 촬영하려면, 접사렌즈를 장착하고 옆

드러서 바람이 불지 않는 순간을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 한참을 옆드려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지기도 하는데, 이런 인내심을 발휘해야 비로소 예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꽃이다. 키는 10~30cm 정도이며, 줄기 밑에서부터 가지가 갈라져 한군데에서 많은 개체들이 모여 난 것처럼 보이고, 식물 전체에 짧은 털이 잔뜩 나 있다. 잎은 어긋나고 잎 가장자리는 밋밋한 편이다.

봄부터 여름까지 볼 수 있는 꽃

꽃은 봄부터 여름까지 연한 하늘색으로 피고, 줄기 끝에 총상꽃차례를 이루며 달리는데, 꽃 속에 노란 동그라미가 있어서 더 예쁘다. 꽃마리는 통화식물목 지치과의 두해살이풀로 ‘젓냉이’라고 불리기도



꽃마리(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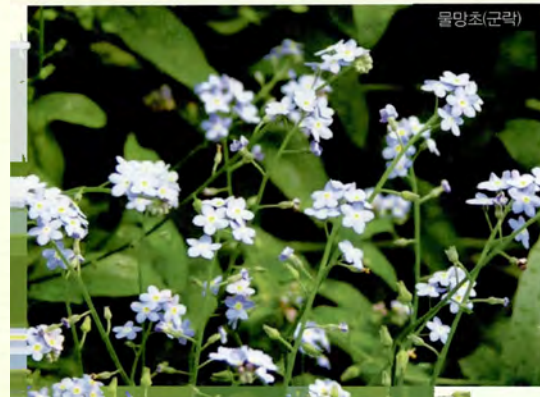
덩굴꽃마리(근접)



덩굴꽃마리(근접)



꽃마리(접사)



물망초(군락)

한다. 꽃마리는 시골의 들녘뿐만 아니라 도시의 개천가 또는 아파트 화단의 빈터 등 어디서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아파트 화단 가장자리에서 술한 꽃마리들이 피고 지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본종이라 할 수 있는 꽃마리는 4~6월에 꽃이 피지만, 이보다 꽃이 크고 화려한 참꽃마리와 덩굴꽃마리는 5~7월에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다. 북부지방에서 자라는 왜지치는 7~8월에 꽃이 피며, 유럽에서 들어와 원예종으로 기르는 물망초도 왜지치와 특징이 비슷하며 같은 시기에 꽃이 핀다.

꽃마리 종류들의 분류

아무 데서나 잘 자라는 꽃마리는 크기가 워낙 작아서 자세를 낮춰야만 잘 볼 수가 있다. 꽃은 4~6월에 연한 하늘색으로 피는데 지름이 2mm 정도로 아주 작다. 해가 잘 비치는 양지에서 몇 개체씩 모여서 핀다. 꽃마리와 비슷하나 이보다 약간 꽃이 늦게 피면서 크고 화려한 것으로 참꽃마리와 덩굴꽃마리가 있다. 참꽃마리는 비교적 큰 꽃이 일제드러기마다 1송이씩 피는 점이 다르고, 꽃과 잎이 줄기에 반복하여 달리는 특징이 있다. 덩굴꽃마리는 몸이 곧추서지 않고 옆으로 기면서 길게 자라고, 잎이 없는 줄기 끝에 꽃만 달리는 것이 참꽃마리와 다른 특징이다. 꽃마리는 꽃마리와 견주면 줄기와 잎에 누운 털이 많고, 잎은 찡글찡글하며 끝이 뾰족하다. 꽃은 일제드러기에서 한 송이씩 피고, 꽃 속에 노란 동그라미가 없는 점도 꽃마리와 다르다. 백두산 주변의 북부지방에서 자라는 왜지치는 물망초와 비슷하게 생겼다. 음습한 산지의 풀밭에서 무리지어 자라는 꽃이다. 물망초는 유럽이 원산지로 많은 원예품종들이 만들어져 관상용으로 심는데, 물망초라는 이름은 영어의 ‘Forget-me-not’를 그대로 한자로 옮긴 것으로, 여기에는 발을 헛디뎈 물에 빠져 죽어가면서 ‘나를 잊지 말아줘라’고 했다는 전설이 담겨 있는 꽃이다.

꽃마리의 용도

꽃마리는 한방에서 지상부 전체를 부지채라고 하여 약으로 쓰기도 하였다. 꽃이 피었을 때 식물체를 채취하여 즙을 내어 먹거나 햇볕에 말린 것을 달여서 복용하면 수축의 근육마비, 야뇨증, 대장염, 이질에도 좋고, 풍을 없애주는 효능도 있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는 종기의 독을 풀어준다고 하여 풀을 찢어서 붙이거나 말린 약재를 가루로 만들어 종기에 바르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른 봄에는 금방 올라온 잎을 나물로 해먹거나 죽을 쑀어 먹기도 했다. 약간 맵고 쓴맛이 있기 때문에 데쳐서 서너 시간 찬물로 우려내서 조리를 하면 색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작지만 소중한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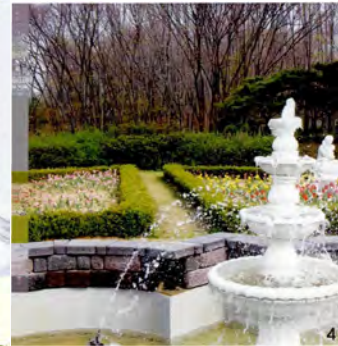
꽃마리를 잡초처럼 여기면서도 쉽게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소중함이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은 꽃을 관찰할 때에도 항상 겸손하게 몸을 낮춰야 자세히 볼 수가 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관찰하고 꽃을 찾아 나서도록 했으면 좋겠다. **G**

정정합니다.

5월호 양지꽃의 시작하는 글에서 뱀딸기는 양지꽃과 관련이 없음을 바로 잡습니다.



근사한 식사가 차려진 기든식탁. 어떤 음식이든 맛있을 거 같다.



맛있는 정원 자연이 만든 명작 플랜테이션

근사한 정원에서 식사를 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만은 아니겠지요. 여기 가족과 함께 연인과 함께 정원을 감상하면서 식사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있어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꽃피는 5월도 좋고, 초록이 우거진 6월이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곳에서 추억을 만들어 시간을 여여해보면 어떨까요!

글·사진 | 우정아 기든 코디네이터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플랜테이션은 방대한 정원과 글램핑장, 한식당, 양식당을 갖춘 복합 휴식 문화 공간이다. 힐링캠프, 남자의 자격, 맘마미아, 무한도전, 우리 결혼했어요, 인간의 조건 등 방송협찬 장소로 이미 알려진 이곳은 주말이면 개인 연주회를 신청 받아 공연하고, 갤러리에 그림이나 사진 등을 전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계절 아름다운 정원이 있어서 자연을 통해 힐링할 수 있는 곳이다.



플랜테이션 입구

입구에 들어서면 유럽식 화단과 벽천이 어우러진 정원이 발 길을 잡고, 수로를 따라 걷다 보면 다리들이 제각각 개성으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울창한 뱃나무 사이로 오솔길을 따라 화려한 색의 초화류들과 다양한 오브제, 조형물들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고, 그 곳을 지나면 넓은 잔디정원 가장자리로 가드닝 샵과 함께 두 곳의 음식점을 작은 연못이 감싸고 있다.

플랜테이션의 정원은 숲을 테마로 한 참나무 숲길, 뱃나무 숲길과 외곽으로 오솔길을 따라 넓게 조성되어 있는 생태연못, 그 사이로 형형색색의 화단이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는 동안 모든 공간이 새롭게 느껴지는 특색이 있다. 화단에는 크로커스, 복수초, 하얀신스, 튤립, 유채, 패랭이, 해당화, 코스모스, 사루비아, 영경귀, 오리엔탈포피, 다양한 나리류와, 풍점초, 장미, 국화 등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어 있고, 생태연못 주변으로 수변식물이 새들의 휴식처가 되고 있다.

뱃나무 숲 끝자락에 위치한 자운제는 다양한 전시를 하는 갤러리를 겸하고 있는 이탈리아 식당이다. 실내, 외에 테이블이 있어 원하는 장소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특히 야외테이블에서의 식사는 숲을 등 뒤로 하고 정원을 바라보며 분수의 청아한 물소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오감을 만족시킨다. 메뉴 중, 이탈리아 가정식 파스타와 피자는 맛이 단백하고 깔끔하며 영양까지 생각한 어머니의 정성이 느껴지는 듯 하다. 시금치, 토마토, 할라피뇨와 새우, 관자를 주 재료로 하는 해산물 파스타인 파스타 드 플랜테이션은 해산물의 깊은 맛과 크림치즈의 조화가 돋보인다. 특히 할라피뇨가 약간의 매운 맛으로 느끼함을 잡아 주어 우리나라의 음식을 대하는 듯 자연스럽다. 또 각종 허브와 시금치, 올리브 등을 토핑한 적당한 두께의 지중해 피자는 이국적이면서 부드럽고, 자극적이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거부

1. 유럽식 정원
2. 벽천과 계절 초화 화단
3. 가드닝 샵
4. 유럽식 정원 분수대
5. 뱃나무 숲
6. 글램핑장

감 없이 즐길 수 있는 맛이다. 보코치니셀러드는 주로 유기농 베이비 채소와 올리브, 망울토마토, 치즈와 레몬, 크랜베리 드레싱으로 신선함에 은은한 향이 묻어나 식욕을 자극한다. **G**

가격은 버거류 9000원 커피 5~6000원 셀러드 9000원, 파스타 13~17000원, 피자 레귤러 13000원, 라지 17000원 등으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플랜테이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313-2 전화번호 02-381-2600



여름에 키우면 더 시원해서 좋은 수생식물 우리 집에 맞는 수생식물은?



물과 함께 할 수 있어 더욱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수생식물은 여름에 키우면 좋다. 우리집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수생식물을 골라 쓰지 않는 유리그릇이나 독배기, 향아리뚜껑에 담아 키워보자. 흠에서 자라는 식물과는 색다른 멋으로 다가올 것이라 여긴다. '물의요정 연꽃과 수련' 대표인 박범중님의 안내로 만나보자.

글 · 사진 | 박범중 물의요정 연꽃과수련 대표 <http://www.waterglass.co.kr>

수생식물과의 인연

아버님께서 평소 너무나 좋아하시던 연꽃과 수련 등의 수생식물 농장을 크게 경영하셨는데, 농장이 확장되던 시기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님을 돕기 위해 수생식물 사업을 하게 되었다. 점점 수생식물의 매력에 빠졌고, 아름다운 수생식물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이 안타까웠다. 앞으로의 기사들을 통해 사람들이 더욱 수생식물과 친근해지고, 집안에서 수생식물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수생식물이란?

수생식물도 흠에서 자라는 다른 식물들과 다르지 않다. 다만 물을 좋아하여 가까이하거나,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사람도 누군가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고, 함께하고 싶어 하듯 수생식물도 마찬가지다. 여름에 가까이 하면 더 매력적인 수생식물에 대해 알아보자.

수생식물 분류

1) 정수식물 : 부들, 줄, 갈대, 골풀, 창포류 등

하천이나 호수가의 얕은 수심에서 살아가는 다년생의 번식력과 생명력이 아주 강한 품종들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아니지만 식물 자체가 특이하고 꽃도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평범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식물들이다.

2) 부엽식물 : 연, 수련 등이 대표적이며, 마름, 자라물, 어리연 등

수심 50cm 미만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연못 바닥에 있는 흠에 뿌리를 내리고, 잎과 꽃은 수면 위로 올라오는 다년생 품종으로 정수식물에 비해서 번식력은 약하지만, 생명력은 강하다. 또한 대부분 아름다운 꽃을 봄부터 가을까지 피우기 때문에 수생식물을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품종이기도 하다.

3) 침수식물 : 말류(검정말, 나사말 등)가 대표적

부엽식물보다 깊은 곳에서도 생활이 가능하며, 잎과 꽃에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 물고기를 키우기 위한 수초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품종이다. 최근에는 학교나 과학 실험교실 등에서 실험용 재료로 자주 활용되고 있는 품종이기도 하다.

4) 부유성 수생식물 : 부레옥잠, 물배추, 자라밥, 개구리밥 등

수면에 떠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람 부는 데로 물 흐르는 데로 움직이는 가장 자유로운 식물들이다. 집안에서 키울 경우 화분에 흠 없이 물만 담으면 되기 때문에 손쉽게 접할 수 있다는 매력이 있어 수생식물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이 선택한다. 하지만, 겨울에 월동을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매년 구입해야 한다.

어느 장소에서 키울 것인가?

1) 채광 일조량(햇빛은 하루 중 몇 시간이나 언제 들어오나?)

수생식물을 키우는데 있어 햇빛은 없어서는 안 될 요인이다. 하루 중에 몇 시간이나 채광이 가능한지? 또한 오전과 오후 중 언제 햇빛이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한다. 식물을 키우는 데 가장 좋은 해는 오후이다. 물론 오전부터 오후까지 해를 비춘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전보다는 오후가 더 낫다

2시간미만 : 시페루스, 속세, 물배추, 생이가래 등

2시간~4시간 : 워터코인, 물봉선, 물양귀비, 백로사초, 부레옥잠 등

4시간~6시간 : 수련, 물수선화, 타일리아, 물칸나 등

6시간 이상 : 연꽃을 비롯한 대부분의 수생식물 가능

2) 통풍은 잘 되는지?

이파트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부분이 통풍에 대한 부분인 듯하다. 창문의 한쪽만 열어 놓으면 충분할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바람이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내부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식물들에게는 좋은 환경이 될 수 없다.



gardenin
tip

수련 · 睡蓮!

수련은 물에 살고 있다고 해서 수련이 아니다. 수련의 수는 한자로 '잠잘 수'자를 쓴다. 낮에는 꽃이 활짝 피었다가 저녁시간이 되면 봉오리를 오므려 꼭 자는 것 같다고 해서 수련이라 이름 지어진 것이다.





특히나 수생식물의 경우 물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부온도가 상승하면 수온도 함께 상승하여 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 생장에 좋지 않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다. 따라서 통풍이 잘 되면 더욱 좋다.

‘화분’은 어떤 것이 좋을까?

1) **선택, 냉면기, 유리볼 등** : 필자가 운영하고 있는 매장에서도 수생식물을 키울 수 있는 화분을 취급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집에 있는 빈 용기를 활용하라고 하고 싶다. 흔히들 집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사용하지 않는 용기와 같이 구멍이 뚫리지 않은 용기 등은 훌륭한 화분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냉면기나 유리볼과 같이 지름에 비해 높이가 낮은 작은 화분이라면 연꽃을 제외한 수련과 수생식물을 식재할 수 있다.

2) **항아리** : 항아리와 같이 지름에 비해 높이가 큰 화분이라면 수생식물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 가장 예쁘고 마음에 드는 식물을 선택해서 키울 수 있다. 연꽃, 수련 등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부터, 부들, 갈대, 억새, 창포 등 특이한 꽃을 피우는 식물까지 어떤 식물을 선택해도 무리가 없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주의할 점은 항아리의 경우에는 염분이 포함된 음식을 담았던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 이는 염분이 항아리에 스며들어있어 식물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 용기**

지름 20cm 미만 : 어리연, 물양귀비, 워터코인, 물안개, 자라밥 등 작은 식물
지름 20cm ~ 40cm : 수련, 창포류, 타일리아, 물칸나 등과 같은 중간 크기 식물
지름 25cm 이상 : 중소형종의 연꽃 등
지름 40cm 이상 : 연꽃, 수련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수생식물 등 가능

수생식물을 키우는데 화분의 높이는 크게 고려해야 할 대상은 아니지만, 최소 5cm 이상은 되어야 한다(워터코인, 물안개, 물봉선 등과 같이 작은 식물은 제외). 물고기와 함께 식물을 키울 생각이라면 15cm 이상은 되어야 한다.

식물 선택 방법

‘식물은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자주 보고, 관심을 가져주면 식물도 키우는 사람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자신이 아름다움을 마음껏 뽐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내용 중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키우는 식물이 내 마음에 들어야 한다. 내가 좋아하고 아름답다 생각해야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가 식물에게 애정을 주고, 관심을 갖는다. ‘어떤 식물을 키울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추천을 부탁하기보다는 본인 주변에서 아름답다고 느꼈던 식물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그래도 혹시 추천을 바란다면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확인한 후 자신이 원하는 식물의 모양이나 꽃의 특징 등을 전문가에게 문의해서 가장 아

Garden Knowledge

연꽃과 수련 이것만은 알자

잎 | 연은 트임이 없이 동그런 모양에 뜬 잎을 제외하면 수면에서 10cm 이상 솟아있지만, 수련은 한쪽에 트임이 있고 수면에 떠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꽃 향 | 연은 향이 은은하고 맑게 느껴지는 반면에 수련은 향이 짙어 꼭 향수를 뿌려 놓은 듯하다.

뿌리 | 연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근으로 식용이 가능하지만 수련은 그렇지 않다.

병해충 | 두 가지 모두 병해충에 강해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간혹 진딧물이 끼는 경우가 있다. 방제는 분화용과 같다.

연 | 단아하고 소담한 꽃을 피우는 수생식물의 대표종이다. 각 부위는 식재료로 활용도가 높으며, 특히 뿌리인 연근은 시중에서도 쉽게 구입하여 조림 등의 요리로 활용할 수 있다. 관상용으로 가치가 높은 화련, 뿌리를 주로 활용하는 우련, 씨앗이 많이 열리는 자련이 있으며, 넓은 연못에서 키우는 대형종과 화분에서 키울 수 있는 중형종, 소형종 품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수련 | 화려하고 향이 좋으며, 흰색, 분홍색, 노랑색, 파랑색, 보라색, 빨간색 계열로 나눌 수 있으며, 보라색과 파란색 계열은 사계수련으로 겨울에는 온도에 특히 유의하여 관리를 해주어야 한다.

노랑 어리연, 황금 어리연, 흰 어리연 | 연못이나 화분에서 가장 손쉽게 키울 수 있는 품종으로, 수면 위로 잔잔하면서도 많은 수의 꽃을 피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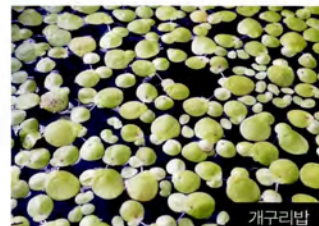
연잎



사계수련



수련잎



개구리밥



부레옥잠

부레옥잠 | 과학 실험에 실습용 재료로 사용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품종으로, 여름에 큰 보라색의 꽃을 피워 시원한 느낌을 준다.

물배추 | 하얀색의 하트 모양의 꽃을 피우지만, 너무 작아서 자세히 살펴볼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

개구리밥 | 부평초라고 하여서 물이 있는 곳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는 식물로 가장 흔하지만 작년부터 인기가 상승하여 최근에 많이 찾고 있는 식물이다.

물옥잠 | 부레옥잠과 헛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다른 품종으로, 얼핏보면 비슷해보이지만 부레옥잠과 다른 점은 꽃이 더 작고, 진한 보라색이며, 흠에 뿌리를 내려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자란다는 점이다.

물카라 | 분화용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품종으로, 가정에서 많이 키우지만 여름 다위에 약하여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환기에 유의해야 한다.



물옥잠

과실의 수확을 늘리고, 건강함을 위한 접목

안정적인 접목묘를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은행나무의 접목은 널리 이용된다. 긴긴세월동안 사랑받아온 은행나무는 유실수로, 가로수로 이용됨은 물론 요즘엔 관상수로서도 멋진 수형을 자랑한다. 5월호에 접목의 과정을 다뤘다. 6월호엔 접목한 묘목을 심어보자. 접목이 잘된 나무는 안정적인 형태로 자리를 잡은 반면, 잘 안된 나무는 싹도 못 올리고 있다. 글·사진 | 이광범 연구원 / 우리꽃연구소



접목의 목적

삼목이 곤란한 식물이나 꽃이나 열매가 퇴화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접목의 장점

- 개화와 결실을 촉진하고 수세를 조절한다.
- 병충해에 저항성을 증대시킵니다.
- 분재인 경우에는 단시간 안에 수세를 왕성하게 한다.
- 저항성을 증대시켜 나쁜 흙이나 환경에 잘 적응한다.
- 결실이 안되는 식물에 결실을 맺게 한다.

접목의 유의점

- 접목 친화성이 있는 같은 속의 나무끼리 접목이 가능하다
- 접수의 눈은 하나만 남겨 놓는 것이 좋다. 물관부에서 물올림이 눈이 두 개보다 하나가 좋기 때문이다
- 형성층을 잘 맞추어야 밀착 되게 접합이 잘 된다
- 사전에 접수를 잘라 저장해두어야 활착률이 높다

접목묘 식재

- 접목된 나무의 뿌리를 덮을 정도 흙을 채워준다. 그 후 뿌리에 공기가 없도록 물을 많이 채워 나무를 흔들어서 주어 뿌리에 공기층을 없애준 후 나무주위를 밟아준다.
- 멀칭을 해주어 수분의 증발과 잡초의 생육을 억제 시켜준다.

접목묘의 관리

- 접목 부위의 비닐은 대개 6개월에서 1년 후에 풀러주어야 생육이 왕성하다.
- 접수가 자라게 되면 비바람에 접목 부위가 꺾여지기 쉬워, 쓰러지지 않게 지주목을 세워주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 대목의 대야를 제거해 주어 양분이 접가지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

접목묘의 고사

- 접목 부위의 수분 침투
- 형성층 부결합
- 접목 시기 미 고려
- 접목전 삽수의 조제 실패

저접과 고접의 차이

저접묘: 실생 2~3년생의 대목의 하단에 접을 하는 방법을 저접묘라 한다. 주로 대량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고접묘: 성체 묘목의 형태를 바꿀 때 사용된다. 지하고 위의 나뭇가지를 잘라 접목한다. **G**

STEP by STEP

접목묘의 식재



1. 접목묘의 식재할 경우 물을 충분히 준 후 밟아준다.



2. 대목의 새순 제거를 해준다.



3. 새순이 나온 접목

접목이 잘 안된 경우

식탁이 즐거워지는 초록나물

6월엔 푸성귀가 풍성~

상추 외에도 먹을 수 있는 푸성귀가 많다. 4월에 심었다면 지금쯤 한창 식탁이 즐겁다. 아욱으로 된장국을 끓이고, 시금치에 참기름을 넣고 무쳐내고, 쑥갓, 미나리 향이 미각을 자극한다. 열갈이, 열무로는 김치를 담가 김장 김치가 물리는 지금 알맞게 먹을 수 있다. 또 오이로는 소박이김치를 담그고, 1년 먹을 장아찌를 만드는 등 할 일이 많다.

작은 텃밭에서 수확하는 즐거움과 함께 제철채소로 장아찌까지 담가 1석2조의 알찬식탁을 차려보자.



씨를 파종해 심은 상추는 어느정도 먹을 수 있는 크기가 되면 속이 쓴다.

집앞 텃밭에서 자라는 귀한 푸성귀

먹을 수 있는 온갖 나물인 푸성귀는 내가 가꿔먹는 그 맛이 최고이지 않을까?. 작고 못나도 내가 가꿨다면 맛은 배가되고, 키우는 재미와 이야깃거리가 늘 한가득이기 때문이리라.

마당이 있는 텃밭은 구석구석에 작은 텃밭을 마련해서 갖가지 푸성귀를 심을 수 있다.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부추를 기본으로 찰파라 먹는 채소와 산에서 자라는 산나물, 약초까지도 텃밭에 들여놓을 수 있다. 상추, 쑥갓, 아욱, 시금치, 깻잎, 부추, 파, 미나리, 참취나물, 당귀, 겨자, 감자, 고구마, 가지, 호박, 오이, 토마토, 마늘, 양파 등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참 많기도 하다. 보통 봄에서 가을까지 푸성귀를 기를 수 있는데, 계획을 세워 좋아하는 채소위주로 심어 맛 있는 초록식탁을 만들어보자.

분양받은 텃밭에선

한평이든 두평이든 분양 받아 이미 농사를 짓고 있는 초보농사꾼이라면 6월은 잡초제거, 추비 등에 신경을 써야한다. 가뭄이 들거나 비료를 안주면 뻗뻗해지고 쓴맛이 올라와 먹기에 부당스런 작물이 되는 경험도 할 수 있다. 주변에 또는 텃밭지기 주인장에게 수시로 물어보며 신경을 써보자. 신경 쓴 만큼 탐스러운 채소가 된다. 가지나 토마토, 고추, 오이 등은 지지대를 세워 묶어주고 겉가지 등을 따내주자. 열매도 튼실하고 관리도 편하다.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탐스러운 오이나 토마토, 가지, 고추 등의 열매채소 따는 재미도 있고, 열매가 자라는 모습 또한 소중한 추억이 될 것이다. 처음으로 농사를 짓는다면 열매채소보다는 수확의 기쁨이 빠르고 재배하기도 쉬운 잎채소위주로 하면 좋다. 하지만 열매채소 한 두그루면 두고두고 먹고도 남으니 텃밭가운데나 한쪽에 공간을 만들어 도전해보자.

자연이 선물해준 온갖 나물

자연에서 자라는 온갖 나물이 푸성귀라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지금 들에 산에는 먹을 수 있는 나물이 풍성하다. 쑥, 씀바귀, 민들레, 돌미나리, 돌나물, 달래, 원추리 등 우리네 부모가 굶주리던 시절에 끼니를 때우던 나물들이다. 지금은 활용도도 높고, 여러 요리법이 나와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단지 독초인지 아닌지는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산에 나는 나물 또한 얼마나 많은가? 두릅, 엄나무순, 가죽나무순, 취나물류, 고사리류, 다래순, 으름순 등 널널 게 나물이다. 자연산은 짧은 시기에 나오므로 때를 잘 맞춰야 할 수 있고, 구할 수 있다. 하지만 몰라서 도시에 살아서 쉽게 다가갈 수 없고, 시장이나 마트에서 제철에 맞게 나오는 것을 마련해 이용하면 된다.

쌈싸름하고 달큰한 나물은 몸에 좋고 입맛도 돋워 지친 우리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준다. 우리 몸에 쌓인 독소도 빼주고 몸을 청화시키는 작용도 하므로 제철에 나는 나물류를 싹껏 먹어 볼 일이다.

푸성귀로 만드는 장아찌

지금 제철푸성귀로 너무 약이 차기 전에 담그는 장아찌는 아삭하니 연해서 먹기에도 좋다. 마늘은 너무 단단해지기 전에 미리 깨내거나 외피가 마르기전에 담그는 게 좋고, 양파는 너무 크지 않은 것을 골라 수분이 달아나기 전에 담그자. 오이는 한 봉지(장아찌용) 담그면 1년 내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다. 연한 깻잎이나 콩잎, 곰취, 취나물은 담가두면, 깻잎은 연한 맛으로 향을 느끼고, 콩잎이나 곰취, 취나물은 식감이 씹혀서 두고 먹기에 그만이다. 이런 장아찌는 밑반찬으로도 일품반찬으로도 손색이 없다.

알맞게 맛이 든 장아찌는 냉장고에 보관하면 곰팡이가 끼지 않고 잘 먹을 수 있다.

오이장아찌는 바로 먹을 수 있는 것과 1년 내내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장아찌가 있다. 곰치장아찌, 마늘장아찌(마늘종장아찌), 양파장아찌 등도 이 계절에 담가먹을 수 있다. **G**



쉽게 만들어지는 샐러드-어린상추, 메추리알, 방울토마토에 오리엔탈소스를 얹었다.



gardenin point

텃밭 작물관리 요령

1. 몇 그루 안되면 지주목을 세워주고 묶어준다.
2. 몇 그랑에 고추나 토마토, 가지 등을 심었다면 중간중간 지지대를 세우고 줄을 쳐서 자라는 속도에 맞춰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의 줄을 쳐줘야 한다.
3.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겉가지를 따주거나 훑어준다.(고추는 두세 개로 갈라지는 가지의 아랫부분) 작물도 튼실해지고, 열매도 많이 열린다.
4. 비닐멀칭을 했더라도 고추나 토마토, 가지 등은 거름을 주자. 추비 주는 시기는 뿌리가 내린 뒤에 한다. 작물사이 구멍을 뚫어주면 된다. 비오기전에 하면 더 좋다.
5. 상추는 씨를 뿌렸다면 속이내준다. 너무 쇠지 않도록 관리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6. 끊임없이 올라오는 잡초는 부지런히 제거해줘야 한다.

Q&A Your questions



유봉수 소장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

6월은 활발하게 작물이 자라고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일찍 심은 잎채소는 한잎한잎 뜯어먹기에 좋고, 열매채소는 열매가 열려 따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하지만 작물의 활발한 생육만큼이나 나타날 수 있는 증세 또한 여러 가지라 여깁니다. 궁금하면 가든인에 물어보세요.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장으로 계시는 유봉수 소장님이 친절히 답해드립니다.

Q1. 속노랑 고구마를 심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심어야 수량이 많을까요? 또 5월에 심으면 병도 많고 수확량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A 고구마는 알칼리성 식품으로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및 양질의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 요즘 웰빙식품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작물입니다. 원산지가 중앙아메리카로 온도가 높은 시기에 심어야 수량이 많아지게 되죠. 특히 유색고구마는 밤고구마보다 온도가 더 높아야 자람도 좋고 병해도 덜 발생하게 됩니다. 심는 적기는 중부지방에서는 5월 하순에서 6월 중순경입니다.

고구마는 이용하는 부위가 뿌리부위와 다른 작물에 비해 칼리비로의 흡수가 상당히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출장을 다니다 보면 잡초발생 억제를 위해 검은 비닐로 피복하여 고구마를 심는 농가들이 종종 있는데, 이는 아주 잘못된 농사방법입니다. 반드시 흰색 비닐로 멀칭해서 심어야 수량이 많습니다.

심는 방법은 수평꽃이, 개량수평꽃이, 직접꽃이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두둑을 만들어 포기 사이를 25~30cm 간격으로 약 30℃로 기울여 사선으로 구멍을 뚫어 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고구마를 심을 때 온도가 낮아 뿌리가 냉해를 받으면 뿌리형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 수량이 무척 많이 떨어진답니다.



Q2. 다음 주에 고추묘를 본밭에 내다 심으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묘상을 관리해야 하나요.

A 좋은 질문입니다. 출장을 다니다 보면 많은 곳에서 고추묘를 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고추묘란 줄기가 등글고 잎이 일정한 간격으로 붙어있어야 하며 줄기가 녹색을 띠고 있어야 하며, 반드시 첫꽃이 달려있어야 합니다. 이런 묘가 약 60~80일정도 키운 정상적인 묘입니다.

줄기가 타원형이거나 마디가 긴 것은 도장된 것이며, 줄기가 자색을 띤 것은 저온에서 키워 기형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아주 나쁜 불량묘입니다. 또 첫꽃이 달리지 아니한 것은 아직 정식하기가 안된 아린묘입니다. 고추를 본포장에 정식하려면 약 1주일 전부터 반드시 묘상에서 모곤함을 해야 합니다. 햇볕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해주고,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주어야 하며 물주는 횟수를 줄여 줄기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정식 후 뿌리내림을 좋게 하기 위해 제4종복비를 염전시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곤함은?

햇볕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하고 온도는 서서히 낮추고 물주는 횟수는 줄여 줄기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Q3. 마늘잎이 노랗게 말라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A 봄에 마늘잎이 노랗게 말라가는 것은 3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뭄을 심하게 타는 밭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석회를 사용한 포장에서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면 칼리 비료의 흡수가 억제되어 잎 끝이 안게 됩니다.

둘째는 부숙이 덜된 유기물을 마늘밭에 과다 사용했을 시 봄에 토양온도가 높아지면 암모니아 가스가 발생되어 잎이 진한녹색을 띠면서 잎 끝이 누렇게 변색하게 됩니다.

셋째, 부숙이 덜된 유기물을 사용했을 시 암모니아 가스에 의해 고자리파리가 다 발생되어 뿌리를 가해하면 잎이 말라가면서 마늘이 자라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 않게 됩니다.

가뭄이 심한 포장은 수시로 물을 관수해 주거나 피복으로 수분증발을 억제해야 하며, 고자리파리가 발생된 포장은 마늘밭에 물을 한두번 관주(灌水)했다가 빼주 시면 아마도 고자리파리를 방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Q4. 토마토를 하우스에 심었는데,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데, 어떻게 순을 질러야 하나요.

A 토마토는 원줄기에서 수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토마토는 잎이 나오는 마디에서 반드시 겹가지(측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원줄기가 굵거나 누워있을 경우, 질소비료가 과다하게 사용하여 생육이 왕성하게 되면 측지 발생이 많아지게 됩니다.

정식 후 원줄기를 곧바로 세워 재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지주대를 세워 원가지를 곧게 세워주고 측지를 모두 제거해 주기 바랍니다. 아마도 6~8번 마디 사이에 첫화방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튼튼한 완숙토마토 묘를 심었다면 한 화방에 꽃이 5~6개 달려있을 것이고, 도장된 묘를 심거나 2~3개 줄기가 자색을 띤 묘를 심었다면 아마도 8개 이상의 꽃망울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토마토는 수분이 너무 많거나 건조가 심하면 배꼽이 썩는 병이 많이 발생되므로 토양수분이 늘 일정하도록 짚이나 검은 비닐 또는 풀을 베어 포기 근처에 깔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Q5. 복숭아 잎이 오글오글해지고 어떤 것은 기름에 튀겨놓은 것처럼 부풀어 올라있는데, 왜 그런가요?

A 복숭아나무에 일반적으로 잘 발생되는 오갈병(축열병)입니다. 생육초기에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낮은 해에 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잎에 발생되며 피해 잎은 담록색 또는 황색으로 부풀어 올라 병든 잎이 커지면서 병든 부위에 흰가루가 생기다가 나중에는 갈색이나 검게 변해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병은 온도가 높아지면 발생이 멈추게 되는데, 병든 가지나 잎을 일찍 따서 태워주시고 나무 주변이 과습하지 않게 관리해주거나 나무가 동해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발아기에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하거나 잎이 나오기 직전에 전용약제를 줄기나 가지에 약액이 골고루 묻도록 충분히 살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Q6. 배나무에 붉은 반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지난해에도 나타났더니 올해 또 같은 증상이 생겼네요. 토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A 아마도 붉은별무늬병(적상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토양과는 상관이 없는 병입니다. 사과나 배나무에 발생하는 병으로 잎이나 새순 과실에 피해를 주는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피해 잎은 등황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나고, 잎이 커지면서 잎의 표면은 다소 오목하게 들어가나 뒷면은 볼록하게 나와 그곳에 병반이 왕관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이 병반이 성숙되는 6월경에 포자가 바람에 날려 인근에 있는 향나무에 붙어 있다가 다시 배나무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향나무를 우리는 중간숙주라고 합니다. 나무 주변 1km의 범위에 중간숙주인 향나무가 없거나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병은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약제를 살포할 때는 4~5월경 비 오기 직전에 과실나무가 주변 향나무를 찾아 충분히 약을 뿌려주어 포자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7. 호박잎이 처음엔 안그랬는데, 자라면서 자꾸 우산처럼 둥근모양이 나오네요. 잎 끝은 붉은 갈색으로 변해져 가구요. 왜 그런가요?

A 아마도 칼슘결핍증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심은 곳이 토양에 수분이 너무 차거나 석회 비료를 과도하게 살포했거나 아니면 시멘트가 놓여있었던 장소일 것입니다. 칼슘비료는 식물체 안에서 이동이 힘든 성분으로 늙은 잎에서 새 잎으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이 불량하거나 부족하거나 과도하면 토양산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흡수가 잘 안 되어 생장이 가장 왕성한 잎이 불량해지거나 우산모양처럼 가장자리가 퍼지지 못하게 됩니다. 고추는 끝이 불에 덴 것처럼 물러지고 토마토는 배꼽이 썩으며, 무나 배추는 줄기가 검게 변하게 됩니다. 칼슘비료는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아도 흡수가 안 되고 수분이 너무 많거나 적어도 흡수가 잘 안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산칼슘 0.5%액이나 제1인산칼슘을 염면시비해주거나 칼슘이 들어있는 제4종복합비료를 주라고 하지만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근본대책은 토양속에 각종 양분들이 골고루 섞이도록 시비를 한 후 토양의 물리성을 개량하여 흡수를 방해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빠짐을 좋게 하거나 토양을 피복하여 토양수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질소비료나 인산, 마그네슘(고토)과는 서로 흡수를 방해하므로 같이 주지 않아야 합니다.

Q8. 커다란 오이 잎이 얼룩덜룩하고 어떻게 변해가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A 아마도 노균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균병은 생육중기 및 후기에 잎에 발생하며, 앞면에 퇴색된 작은 부정형 반점이 많은 황색을 띠고, 잎 뒷면의 병반은 각을 지어 병반이 부정형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아래 잎이 먼저 발생되고 심하면 위로 번져 가는데, 염색에 둘러싸인 병반들이 합쳐지면서 나중에는 잎이 말라죽게 됩니다. 병든 잎은 잘 찢어지고 황갈색을 띠며 해가 뜰 무렵 잎 뒷면에 이슬처럼 보이는 곰팡이가 다량 형성되어 회백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노균병이라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개울이나 논, 호수 근처이거나 기류가 이동이 안되는 곳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Q9. 여주 종자를 파종했는데, 싹이 트질 않아요. 왜 그런가요?

A 아마도 여주종자를 다른 종자와 같은 방법으로 파종했나 봅니다. 여주는 종피에 상처를 낸 후 미지근한 물에 2~3시간 정도 담갔다 파종해야 고르게 발아가 됩니다. 발아적온은 28~30℃로 발아시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종피가 잘 이탈되지 않게 되거든요.

떡잎이 전개된 후에는 다른 박과채소처럼 관리를 합니다. 물에 담긴 종자를 젖은 수건에 싸서 따뜻한 곳에 보관하면 수분과 온도가 유지되어 싹이 트는데, 트는 것을 골라 파종하면 됩니다. 파종상자에 물을 충분히 준 후 종자를 넣고 1cm정도 덮은 후 신문지나 흰부직포를 덮어 관리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육묘 시 특별히 주의할 점은 물을 반드시 하루에 두 번씩 주어서 파종상이 마르지 않게 해주어야 합니다.

가든인이 추천하는 book flowerpot

6월의 정원은 눈부시다. 싹은 꽃보다 아름답고, 꽃은 그 자체로도 빛이 난다. 정원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상쾌해진다. 굳이 정원이 아니더라도 싹은 우리에게 주는 게 많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복원시켜 주고,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준다. 6월호에는 그 치유에 신경을 써서 책을 선정해봤다. 가든인 독자들들도 마음이 심란하거나 한 번 만나보지,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리라 여겨본다.

flowerpot



베란다 채소, 과일 재배백 원통형 대형사이즈

10,500원/가든조아 www.gardenjoa.com
옥상정원이나 베란다에서 채소재배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플랜팅 백으로 어디서나 간편하고 사용할 수 있다. 텃밭을 구하지 못한 분은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하므로 사용해보길 권한다.

특징

가볍게 백을 편 후 흙을 채우고 작물을 심을 수 있다. 단단한 PC소재로 사용해 실용적이다. 바닥에 배수구멍이 있어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작은 그로잉백하나로 정원의 향기를 느낄 수 있다. 양쪽에 손잡이가 있기 잡고 나르기 편리하다. 재질: 천재질 색상: 베이지색 규격: 38×30×27cm 원통 대형

플라스틱 릴리프화분 370/550

5000원/가든조아 판매
하얀색 화분으로 둥근형이 아닌 직사각형이다. 좁은 공간에 활용하면 좋다.



특징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 배수판이 있다. 화분에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구멍을 뚫어 2중 배수가 가능하게 했다. 플라스틱 화분이라 살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 절약적이다. 릴리프 370: 37cm×19.6cm×15cm 릴리프 550: 55.4cm×24.1cm×18cm

book



생각의 정원

정원이란 말이 있지만 정원관련책은 아니다. 자기계발 책이다. 지금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 힐링이 필요하다. 큰 사고 후 연이어 접한 뉴스를 보고 상처받고 슬픔이 빠졌다. 마음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개한다.

양장 / Dodinsky 저 / 김주연, 김성현, 이상진 공역 / 월드림(WD) / 원재: In the Garden of Thoughts / 2013년 6월 출간 / 100쪽 / 170×171 / 12,000원

책소개: 내적 강인함의 근원에 대해 얘기하는 미국의 파워블로거 도넬스키가 전하는 힐링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이미지와 시적 표현으로 독자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며, 그들로 하여금 깊은 생각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긍정의 힘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출업을 앞둔 학생들이나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사람들이 막연한 두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터: 부처트가든의 한국인 정원사 이야기

아름다운 정원은 보는 것만으로도 치유 효과가 크다. 세계적인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부처트가든의 단 한 명의 한국인 정원사 이야기와 아름다운 정원이 담백 담긴 이 책은 만나는 순간 힐링이 되리라 본다. 보는 이의 사선이 아니라 가구는 이의 정성으로 말이다.

박상현 저/샐터/2012년 5월 출간/304쪽/130×183cm/13,800원

책소개: 최근 대한항공의 TV 광고에도 등장해 주목받았던 캐나다의 부처트가든은 한 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이다. 원래 석회암 채굴장이었던 곳을 일구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상의 거의 모든 꽃들이 만개한 환상적이고도 광활한 정원으로 가꾸어진 이곳은 캐나다의 국립사적지이기도 하다. 이곳이 개척마다 다른 모습을 뽐내며 숨이 멎을 것 같은 아름다운 경치로 전 세계인의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정원을 조성한 부처트가든의 의지와 새벽부터 구슬땀을 흘리며 정원을 가꾸는 노련한 60여 명의 정원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 중 단 한 명의 한국인이 바로 책의 저자 박상현 마흔의 나이를 맞으면서 새로운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보고 싶었던 그는 미국땅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자연 속에서 일하고 싶어 부처트가든을 선택했고 '질실한 눈발' 하나로 결국 이곳의 정원사로 채용되었다. 한국인에게만은 아름다운 관광지이기도 했던 부처트가든이 그에게는 일터가 된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관광객이 아닌 정원사의 시선으로, 어떤 가이드북에서도 볼 수 없는 부처트가든의 생생한 풍경과 그 안에 숨은 이야기를 전해준다. 한국인민의 구수한 이야기들과 함께

GARDENIN NEWS



'에버랜드에 장미의 계절이 돌아온다'

놀다보면 꽃이 될까야 에버랜드 장미 축제 2014.5.9 ~ 6.15

- 장미원에 676종 100만 송이 장미 붉은 자태 뽐내
- 하트 토피어리, 장미화분 등 조형물들로 이색 분위기 조성
- 가정의 달을 맞아 애니메이션 영화제 선보여...아외에서 인기작 상영
- 글램핑 체험 상품도 첫 산...온 가족과 함께 영화보며 힐링을 체험하다.
- 특히 이번 축제에는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가든파티', '존F케네디', '문세도우', '미스터링컨', '카사노바' 등의 희귀 장미종을 만나 볼수 있다.



만지고 먹이주고...가족의 즐거운 하루 나들이

-힐링 체험목장

안성팜랜드, 6월8일까지 개최

직접 만지고 먹이주며, 들꽃 한포기의 가치를 배우는 즐거운 체험목장. 안성팜랜드 허소에서부터 황소, 당나귀, 면양, 거위 등, 우리에게 소중한 가축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탁 트인 초원에서 귀여운 가축들과 함께 뛰놀며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소중함을 몸과 마음으로 만끽할 수 있다. 안성팜랜드 6개의 테마로 이루어져 있다. ▲다양한 가축들과 함께 농축산체험을 할수 있는 '무우빌 놀이목장' ▲국내최대규모의 실내 농축산전시행 행사장 '아그리움 행사장' ▲국내 우수농축산물 구입하고 맛을 볼 수 있는 '푸드빌 외식타운' ▲대한민국 승마시업을 활성화 할 '호스빌 승마센터' ▲30만평의 광활한 초원의 경관단지 '미루힐 초원' ▲독일풍 양식의 복합문화공간인 '도이치 빌' 등이 바로 그것이다.



색다른 토마토와의 추억을 만드세요~ 퇴촌 토마토축제

2014년 6월 20일부터

2014년 6월 22일까지

'퇴촌 토마토 한마당'은 청정 토마토를 생산하는 농업인과 시민 모두가 만들어 가는 축제로 퇴촌 토마토를 찾아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토마토 할인판매, 다양한 공개행사, 환경사랑 글짓기, 사생대회와 체험행사, 토마토 가요제 등이 열린다. 청정토마토의고장 퇴촌으로 오셔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색다른 토마토와의 축제를 만들고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함께 즐거운 에너지로 하루를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요?

축제와 함께 즐기는 강화약쑈축제

2014년 6월 6일부터 2014년 6월 8일까지

강화약쑈축제는 강화특화작목 약쑈를 테마로 건강과 미를 전하는 지역농업축제이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 약쑈좌훈 체험, * 약쑈베기 체험, * 약쑈천연염색 체험, * 클레이 공예 체험, * 쑈가래떡 시식 체험, 한방채질 진단, * 약쑈마사지 체험, * 약쑈다도 체험 등 다양하며 부대행사로 농촌사랑 어린이 그림잔치, 청소년 백일장도 참여할 수 있다.

가든조아 정원문화체험 방문

Seed the Dream, Unroll it.

가든조아 정원



정원문화 프로그램



씨앗친구 만나기 / 공룡알DIY / 가족화분 / 소망화분 / 채소 박스

- * 가든조아의 정원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개인/단체에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 * 어린이 / 청소년 / 청년 / 중장년 / 노인 / 가족 등 연령대별로 가능
- * 1회 진행하는 단기 프로그램과 치유 중심의 장기 프로그램
- * 계절과 날씨에 맞추어 진행(행사 / 이벤트 출장 가능)
- * 사용하는 식물과 기타 재료에 따라 가격 변동(우리꽃 농장에서 직접 재배)
- * 1만여평의 야생화 공원과 식물 구입 가능한 가든센터도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 * 체험안내 및 문의는 전화 또는 블로그 및 직접 방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꽃 가든조아: 인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번지 / TEL: 031-634-7990 / FAX: 031-634-7991
* www.gardenjoa.com * blog.naver.com/gardenjoa777 * 정원문화체험 담당자

가든조아
Seed the Dream, Unroll it.

우리씨드그룹

2014 초화, 야생화, 채소종자 TOP 11



**꽃이 저도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에키나세아**
솔방울 이삭이 아름다워 절화로 좋습니다.
다년생으로 매년 만나볼 수 있는
분홍 에키나세아
■ 초장 : 60~70cm, 파종 : 3~4월,
개화 : 6~8월, 5g : 3,000 원



**바람에 날아가는 나비 같은
풍접초**
꽃 피기전 실타래모양으로 꽃송이를 꽃잎에 싸고
개화하면서 풀어놓는 모습이 아름답다.
■ 초장 : 60~70cm, 파종 : 3~7월, 개화 :
6~10월, 5g : 1,500 원



**매우 화려하여 축제에 많이 이용되는
양귀비!**
귀하의 집앞에 축제를 재현해보세요.
추파용 종자로 가을에 씨앗을 뿌려야 다음해에
크고 건강한 양귀비꽃이 개화됩니다.
■ 초장 : 70~100cm, 파종 : 10~11월초,
개화 : 5~6월, 5g : 3,000 원



**빠르게 꽃을 피워내는
코스모스 빅스타가게!**
파종 후 60일후에 개화되어 작고 귀여운 코스
모스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초장 : 60~80cm, 파종 : 3~7월초
개화 : 6~10월, 5g : 3,000 원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에 좋은
브로콜리!**
식이섬유 뿐만 아니라 비타민C도 풍부하여 피
부관리에 탁월합니다.
실내보다는 실외 재배가 좋습니다.
■ 파종 : 3월 또는 7월, 15~20℃로 관리, 장
마침 주의, 10립 : 1,000 원



**눈 건강에 가장 좋은 채소
근대!**
뿐만아니라 골다공증예방 및 항암효과에 탁
월합니다. 초보자가 기르기
쉽습니다.
■ 파종 : 3월, 이식 : 4월, 수확 : 6~11월,
1g : 2,000 원



**금연 도움을 주는
케일**
니코틴 제거 효과가 뛰어나 금연 계획을 세
우신 분에게 매우 좋습니다.
호남성 채소로 추위를 잘 견뎌 겨울까지 실
외 재배가 가능합니다.
■ 20립 : 1,000원



**산후 조리에 좋은
노란 호박!**
이뇨작용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
산후 붓기 빠지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발아율이 매우 좋습니다.
■ 3립 : 3,000원



**노화를 예방해주는 고마운
빨간무(비트)**
파종 후 20일 만에 수확 가능합니다.
실내외 어디든 잘 자랍니다.
■ 1g : 2,000원



**흙 없이 기르는
새싹채소!**
씨앗을 하루정도 물에 불렸다가
물 적신 솜위에 뿌린 뒤 5~7일이면
바로 수확하여 먹을 수 있습니다.
■ 1g : 1,000원



**봄~가을까지 계절따라 다르게 연출되는
26종의 야생화**
26종의 종자가 혼합되어 개화시기에
따라 다양한 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년생 종자로 이루어져 매년
관상이 가능합니다.
■ 파종 : 연중가능 | 50g : 15,000원

Cooling Mist
전기로 걱정없이 수돗물로 시원하고 즐거운 여름을!!
Must have ITEM "쿨링 미스트"
수돗물을 이용한 무전력 냉방 시스템!
수돗만 있으면 어디든지 이동 설치가 가능!
육상정원, 베란다, 발코니, 회랑, 서향쪽 창가, 야외체육시설, 공장
야외작업장, 팬션, 식당, 카페, 파라솔, 학교, 유치원, 놀이시설 등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로 관수하는 **점적관수키트**



정원 관수를 위한 **Sprinkler 스프링클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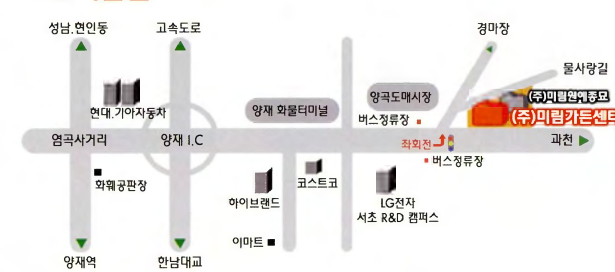
June Recommended Products

가정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좋은
친환경 배지 **코코칩**

그린커튼용 (Green Cartain)
가든네트

해충잡는 포충기
트랩피어3

오시는길



가드닝/원예자재 전문
미림가든센터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주암동)
구 주소: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47-8
Tel. (02)585-5346, 503-7080
Fax. (02)588-9593

우리꽃 로열티 신품종 안내



코레우리 노랑



코레우리 분홍



코레우리 빨강



코레우리 주황



코레우리 하양



가우라 골든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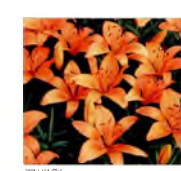
가우라 베이비



가우라 용비



가우라 베이비레드



꽃백합



하늘국화 블루



하늘국화 핑크



하늘국화 화이트



금강애기리린초



속근해바라기



코레우리 레몬사탕



코레우리 미리



코레우리 미스제이



코레우리 파피야



예기나 노랑



눈붉은질레



부처꽃탑



상록산디패랭이



초롱꽃 킨트벨



톱풀 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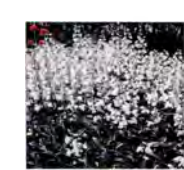
조팝 골든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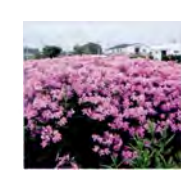
예기나 레인보우



왜성수크령



팬스테몬 상록홍엽



후룩스 풀밋이

월간 <가든인> 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50%할인권을 제공
- 꽃씨증정

문의전화

Tel. 031-645-200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월간 <가든인> 전국 서점 및 주요인터넷 서점 그리고 전국 판매센터에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판매센터 : 유니스 정원 031-437-2045

미림가든 02-585-5346

Gardenin

정식장 방법 어떤 꽃 (가든인) 씨앗에 들어있나요?
기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꽃잎 기사 등 무엇인지 모르거나
문의 판매처로 보내주세요. (가든인)은 여러가지 함께 만들어갈
것입니다.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your voice!

Gardenin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권

정기구독

16.6% OFF

정사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입금 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문의 : 031-712-7009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 본문의 신청방법을 위해 신청한 주소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355-0030-2359-03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40% 할인권

[기간] 2014. 6. 1 ~ 2014. 6. 30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 본 이용권은 비매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AK레저(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월간 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리로 924번길 87가
문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리로 924번길 87가
문인 Tel.031-712-7009

4 6 7 - 8 7 2

편집후기

활기찬 생명의 에너지와는 다르게 점점 쇠약해지는 기
락에 몰기라도 씩씩 잡아두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매
달 즐거움 반 염려 반으로 채워진 내용과 웃고 걱정했던
시간들이 또 모여 책이 됐다. 도움주신 많은 분들에게
무한한 감사말씀을 드리고 싶다. 또 특별히 챙겨주신 필
진분께 큰 감사드립니다.

두 계절이 지나갔다. 긴 여정처럼 느껴진 건 기력 때문
이리라. 여름은 더 지치거지만 정원은 그만큼 더 아름다
워질 것이다. 나면 드는 법, 새로움이 채워지면 신선함은
배기된다. 변화에 비수를 보낸다. 짧은 도전이었다. 제 2
의 도전을 위해 긴 휴전이 필요하다. 재발 충전되길 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마친다.

발행 우라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라씨드(Unseed)그룹 대표 / 이학박사
고문 이순영 前 한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명
편집인 김광두 前생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전문위원 김광춘 대림원예중요(주) 대표
김귀순 前 그린메이퍼 대표
박진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원식 농학 박사 / 씨드림대표
우정아 경기조경가문대학 강사/가든디자이너
유봉수 이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상담소장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강학과 겸임교수
윤명섭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중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권 농학박사

객원기자 김지혜 jsummer@gmail.net
황주리 june777@hotmail.net

주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리로 924번길 87
전화 031-712-7009
팩스 031-634-7991

Gardenin

가든플래너 박공영의

정원 연출 기법과 식물 선택 노하우의 모든 것

우리꽃이 제안하는 조경용 식물 가이드북

한국의 대표적인 정원 테마가 시작됩니다.

계절별 변화하는 살아있는 자연이 다가옵니다.

유럽식 정원, 이제 한국의 집과 도심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 발간 10개월 만에 완판, 초판 발행 5쇄의 베스트셀러
- 교과서적 식물도감과는 다른 현장 경험을 통한 살아있는 정보와
올 컬러 사진 제공
- 훈성 혼합식재, ARI Garden, E&P(생태연못), 벽면녹화,
조경용 지피식물의 적용과 관리(A-Z)
- 현장 적용된 정원 연출 사례 제시 및 각 적용 식물의 특성 비교
- 봄부터 겨울까지 연중 꽃이 피는 훈성 혼합 식재의 비법 공개
-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연중 테마 정원 ARI Garden
- 1000여종 식물의 습성과 특성, 식재법을 올 컬러로 제공



가든인 독자 특별 할인가
20,000원 (정가 32,000원)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 - 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갈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카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 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이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메덴 무료 셔틀버스 이용(약 15분 소요) → 이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 먼저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